21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청년생활



8
1955

청년생활

제8호 (71)
1955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제八호 내용

사설

조선은 하나이다

八·一五 해방—백두산 천지에서 한라산 끝까지 三천리 방방 곡곡에 일제의 쇠사슬을 끊어 버린 만 백성의 환호성이 진동하던 잊을 수 없는 그날부터 一○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나온 一○년 간에 우리 나라에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나라의 강산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걸쳐 거대한 변혁이 일어 났으며 사람들도 변하였고 그들의 사상과 도덕과 생활 풍습도 변했다.

전체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크나큰 감격으로 一○년 전 그날과 지나온 一○년간을 회고하며 또 새로운 결의로 해방 一○주년을 맞는다.

위대한 민족적 명절—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이하는 모든 조선 사람들의 가슴은 해방의 은인인 위대한 쏘련과 쏘련 인민과 쏘련 군대에 대한 다함 없는 감사와 친선의 마음으로 들끓고 있다.

또한 위대한 민족적 명절에 이땅의 모든 인민들은 열렬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에 감사를 드리며 그 주위에 튼튼히 단결되여 있으며 열렬한 충성심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만수 무강을 축원하고 있다.

우리 조국은 력사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나라였고 또 우리 **민족은 분렬을 모르는 슬기로운 단일 민족이였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지나 온 一○년 간 인공적으로 분리된 우리 조국의 남북 땅에 서로 갈라져 살아 왔으며 또 살고 있다.

생각컨대 우리의 선조들이 남북 三천리 우리 조국 강토에 개척의 첫 발자욱을 밟은 아득한 옛날부터 대대 손손 내려오면서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이어온 우리 조선 인민들이 그 언제 한번 국토 량단의 고통과 민족 분렬의 불행을 당한 일이 있었든가?

근면하고 영용한 우리 선조들은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오곡 백과 무르익고 금은 보화로 가득찬 산명 수려한 조국 강토 우에 행복한 락원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로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였고 왜적의 침습으로부터 기름진 산과 들, 거리와 마을들을 고수하면서 화목한 하나의 대 가정 속에서 살아 왔다. 먼 옛날에도 三남 지방 인민들은 북쪽 동포들과 함께 우리 나라 북변의 장강, 보루를 지켰고 바다로 침입하는 왜적의 침습을 막아내기 위하여 함경도와 평안도 인민들은 불원 천리 남해안으로 달려 갔다.

자기 생활의 첫날부터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하나의 가정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은 그 어느때도 민족의 분렬과 국토의 량단을 알지 못하였으며 생각하지도 않았었다.

그러나 一○년 간의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은 우리 조국의 **정치, 경제, 문화 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매개 조선 사람의 가정과 개인 생활에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고 있으니 일대 민족적 참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 一○년 간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량단된 조국의 남북 땅에서 너무나 판이한 길을 걸어 왔으며 너무나 판이한 현실 속에서 살아 왔다.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이 줄기차게 륭성 번영하는 민주의 락원에서 광명과 행복을 마음껏 노래 부른 지난 一○년 간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인 남조선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죽음과 기아의 생지옥에서 신음한 처참한 암흑 속의 一○년이였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해방 후 一○년간에 김 일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령도하에 북반부에서 달성한 정치, 경제, 문화 및 군사적 각 방면에 걸친 거대한 변혁들과 찬란한 성과들을 커다란 긍지와 만족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회상한다.

평화적 건설 시기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수행한 민주 혁명의 승리와 북반부 인민들이 달성한 성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력량으로 되였으니 이 력량은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형제적 인민 민주주의 국가 인민들의 국제주의적 원조 하에 三년간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력사적 승리를 보장하였고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으로부터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수호하였다.

전후 시기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과 청년들이 걸어 온 길은 평화적 조국 건설에 궐기한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력 성과들로써 빛나고 있다.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정전 후 짧은 기간에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하게 파괴 소진되였든 도시와 농촌과 공장 기업소들의 복구 건설을 성과 있게 진행하고 있다.

현대 과학 기술의 최신 성과에 기초하여 방대한 규모와 설비를 가진 六○여개소의 대 중 기업소들이 새로 조업을 개시하였으며 一三○개소에 달하는 대 중 공업 기업소들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복구 신설 확장되였다.

공화국 북반부 농민들은 당과 정부의 지도 하에 또한 자기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사회주의적 농업 협동 경리의 대로를 확신 있게 전진하며 새 생활 건설의 길에 들어 섰다.

민주 수도 평양시를 비롯한 북반부 도시들에는 화려하게 일어선 웅대한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가는 사람 마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며 거리와 마을들은 날마다 그 면목을 일신하고 있다.

오늘 평화적 창조적 로력에 충만된 공화국 북반부 가는 곳마다가 건설장이며 보는 것 마다가 무진장한 힘이며 희망이며 또 신념이다.

그러나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해방 후 一○년간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 통치 하에 있는 남조선의 처참한 파괴상과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당하고 있는 불행과 고통을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과 증오와 또한 참을 수 없는 비통한 심정으로서 회상하지 않을 수 없다.

미제와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의 류례없는 폭압과 테로, 학살의 선풍이 一○년을 하루같이 휘몰아치는 남조선은 기아와 죽음과 암흑과 무권리의 생지옥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군사 기지로 전변되고 말았다.

一○년 전 一九四五년에 비하여 二○%에 불과한 남조선의 공업 생산, 예로부터 조선의 곡창으로 불리워 오든 남조선에 四○○여만석의 식량 절대 부족량—이 간단한 숫자에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식민지적 략탈과 매국 정책이 빚어낸 남조선의 산업과 농촌 경리의 처참한 파탄상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로동자 농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가혹한 략탈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남조선은 二○○만명에 달하는 완전 실업자와 수백만명의 반**실업자와 류리 걸식하는 농민들과 전재민들이 굶어 죽고, 앓아**

죽고, 얼어 죽는 소위 미국식 「자유 세계」로 전변되고 있다.
「북진 통일」을 고창하면서 침략 전쟁 도발에 광분하는 미제
와 리 승만 역도들은 남조선 청년 학생들에게서 일터와 배움
의 권리만 박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적 량심과 건전한
리성까지 빼앗기 위하여 부패 타락한 미국식 문화와 생활 양
식을 주입하여 침략 전쟁의 대포밥으로 개 죽음터로 몰아내
고 있다.

오늘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반동 통치 하의 남조선 천
지에는 몰락과 쇠퇴와 죽음과 기아와 불행과 고통의 검은 구
름이 인민들의 머리 우에 내려 덮이고 있다.

위대한 해방의 사도—쏘련 군대의 붉은 깃발을 우러러 남
북 三천리 방방 곡곡의 모든 인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민족
의 재생과 해방의 기쁨을 노래하며 자자 손손 이땅에 영원히
번영하고 행복할 하나의 대 가정을 꾸미자고 기약하든 그 날
부터 一○년이 지났다.

오늘도 역시 한줄기의 령마루와 크고 적은 도로는 북에서
남으로 이땅에 뻗어 있고 동 남 서해 기슭을 한줄기의 바닷물
이 씻쳐 흐르고 있거늘 어찌하여 한 나라 한 민족이며 한 집
안 식구인 우리들은 이땅의 남북으로 갈라져 살아야 하며 사
랑하는 부모 형제, 처자들 간에도 생사를 알길 없고 행방을
찾을 길 없으며 심지어는 편지 한장 주고 받지 못하는가?

과연 그 어느 누구가 조선 사람들에게 이 참을 수 없는 생
리별의 고통을 맛보게 하였고 국토 량단과 민족 분렬의 참을
수 없는 불행을 강요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조선 인민의
불구 대천의 원쑤인 미 제국주의 략탈자들이며 그 주구 리
승만 매국 역도들이다.

때문에 남북 조선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
하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계속 부절히 투쟁하여
왔으며 또 투쟁하고 있다.

해방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一○년 세월—그 어느 하
루, 한 시간인들 우리 나라 인민들이 하나로 통일된 행복하고
단일한 조국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날이 있었으며 그것을 위
하여 싸우지 않은 사람이 있었든가? 실로 해방 후 一○년
간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하에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의 위업 달성을 위
하여 궐기한 남북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의 영웅적 투쟁과
창조적 로동의 찬란한 성과들로 가득 차 있다.

통일 독립된 하나의 조국에서 화목하고 단란한 하나의 가
정에서 행복하게 살려는 조선 사람들의 너무나 당연한 지향
을 어떠한 힘으로도 막아 내지 못할 것이다.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령도하고 있으며 그
앞길을 태양처럼 밝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
제나 승리하였고 앞으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조선은 하
나이며 하나로 되여야 한다. 이것은 조선 인민의 확고 부
동한 결의이며 정당한 목소리이다. 히마라야 산념어 태평양
을 건너 온 세계의 하늘 높이 울려 퍼지는 이 정당한 목소리
에 전세계 수억만 선량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합쳐지고 있다.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나라 청년
들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
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 주위에 튼튼히 단결하여 조국의 평
화적 통일 독립의 현실적 담보인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 자기들의 모든 지혜와 재능을 다 바쳐 싸울
결의에 충만되고 있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은 그 어느 때와도 같이 자기 생활
의 기치이며 승리의 담보인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
의 제 국가 인민들과의 친선을 눈동자와 같이 보전하며
그를 더욱 공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
다.

영광과 행복의 길 우에서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부 위원장 김 봉 운

전체 인민과 함께 조선 청년들은 영웅적 쏘베트 군대에 의
하여 우리 조국이 일제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민족적 명절
八·一五해방 一○주년을 무한한 감격과 기쁜 심정으로 맞이
한다. 승리와 영광에 찬 지난 一○년간 조선 인민과 청년들
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령도 하에
조국의 통일 독립과 그의 륭성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조선 청년들은 영웅적 우리 인민의 아들딸로서의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과 영광에 찬 지난 一○년간의 자기 생
활과 발천을 회상하면서 당과 경애하는 수령에게 더욱 충실
하며 당과 수령이 가리키는 혁명의 길로 더욱 용감하고 견결
하게 전진하려는 확고한 결의로 충만되여 있다.

민주 청년 동맹은 지난 一○년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주화를 위한 전 인민적 투쟁에서 언제나 로동당의 충직한
방조자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평화적 민주 건설 시기에 있
어서 인민 정권을 공고 발전시키며 토지 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 개혁을 승리적으로 보장하고 그의 성과를 공고 발전시키
며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키는 전 인민적 로력 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이 투쟁에서 민청원들은 생산의 합리화와 기술
창안의 발기자로 나섰으며 청년 작업반 운동을 광범히 전개
하였으며 공장 광산 건설장의 곤난한 부문들에 청년 직장 민
청항 민청, 공구들을 설치하고 생산 능률을 높이는데 모범을
보이였다.

이미 一九四九년에 수십만 청년들이 큰 집단을 형성하여
청년 작업대의 이름을 띠고 평남 관개 공사, 백두 용림 등
림산 철도 공사장들과 철산, 신천 등 광산 개발 공사에서 一
二개의 민청 분광, 九개의 민청 공구를 책임지고 국가 계획
과제를 초과 실행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과학 기술로 무장된 인재가 되라는
당과 수령의 부름에 호응하여 과학의 요새를 전취하는 대중
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청년들은 광범하게 설치된 각종 기
술 교양망에 망라되여 학습하였으며 각종 기술 전습 사업에
참가하였다. 이리하여 전쟁 전야에 산업 운수 부문에서만 六
○여명의 청년 기사, 二、○○○여명의 청년 기술자 二만여명
의 청년 기능자가 육성되였다.

인민 정권 하에서 로동과 휴식과 교육의 광활한 권리와 자
유를 보장 받은 청년들은 인민 교육 발전과 문화 건설을 위
한 투쟁에서 당을 적극 방조하였다. 일제가 남겨 놓은 문맹
을 퇴치하기 위한 성인 교육 사업, 전반적 초등 의무 교육제
실시를 앞둔 장엄한 준비 사업, 구락부, 민주 선전실, 경기

장, 극장, 보건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 등 온갖 분야에서 민청원들의 창조적 로력과 지혜가 제공되지 않은 곳은 없었다.

민주 청년 동맹과 민청원들은 자기의 전투적 힘과 조국과 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미국 침략자들과 리 승만 역도들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에서 가장 뚜렷이 표시하였다.

가렬하였던 정의의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주위에 더욱 굳게 결속되여 자기 조국과 자기의 민주주의적 전취물들을 수호하여 한사람같이 궐기하였다.

인민 군대 내 민청 단체들은 지휘관과 당 단체들을 방조하여 젊은 전투원들을 애국적 헌신성과 원쑤에 대한 증오심, 용감성과 대담성으로 교양하였으며 그들을 원쑤 격멸을 위한 전투 위훈에로 고무하였다. 가렬한 전투 행정에서 민청원들은 로동당원들의 뒤를 따라 복잡하고도 곤난한 전투를 솔선 담당하였으며 습격조와 돌격조의 선두에 섰다.

월미도를 방위한 八○○명의 젊은 용사들은 五○○여대의 적 항공기와 四만여명의 적병, 三○○여척의 적 함선을 대적하여 一二三시간에 걸쳐 가렬 처절하고 영용 무쌍한 방어전을 전개하여 적 一만 四천명을 살상하고 二○여척의 함선을 격침시켰다.

九○六고지에서 최 태용 동무는 四일간이나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적의 수차에 걸친 반격을 물리치면서 원쑤에게 무리 죽음을 주었으며 八五四·一고지에서 원 춘봉 소속 부대 젊은 용사들은 一三일간 계속되는 가렬한 전투에서 三八차의 적의 반격을 물리치고 一, 二○○여명의 적병을 살상하였으며 마지막 한사람까지 조국의 고지를 지켜 싸웠다. 一, 二一一고지, 一, ○五二고지를 영웅적으로 지킨 젊은 장병들은 자기의 숭고한 대중적 영웅주의로써 조국 해방 전쟁사를 찬연히 빛나게 하였다.

오늘 조선 인민과 청년들은 청춘의 젊은 심장으로 적 화구를 막아 부대의 전투 승리를 보장한 김 창걸, 박 원진, 리 수복, 신 기철, 황 순복, 김 성진 등 수다한 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을 가슴 속 깊이 기억하고 있으며 그들을 존경하며 자랑하며 사랑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일시적 후퇴 시기, 적의 강점 지역 도처에서 전개된 빨찌산 투쟁에서 당 단체의 첫째가는 방조자로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모든 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당과 수령의 호소 실천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온갖 애로와 곤난을 뚫고 나가면서 전시 증산 투쟁과 전선 원호 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다.

전선과 후방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당과 수령의 지도에 고무되면서 이와 같이 자기들의 영웅적 투쟁과 희생으로써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 ×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는 오늘까지도 미제와 리 승만 역도들의 침략 정책으로 인하여 아직 우리 조국은 통일되지 못하였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 기지 강화를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건설 투쟁이 곧 조선 인민의 숙망인 조국 통일을 촉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일체 력량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바치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정전 직후에 벌써 수만명이 당의 호소를 받들고 새로 복구 건설되는 생산 기업소와 건설장으로 진출하였다. 공장과 건설장들에서는 청년들의 창발적 제의에 의하여 대중적인 애국 로동이 광범히 전개되였다. 평양 시내 남녀 청년들은 민주 수도 평양시를 화려하고 웅대하게 복구하는 투쟁에 한결같이 궐기하였는바 작년도에만 연 二三

만 三천 七백여명이 건설장에 동원되였으며 금년도에도 수십만명의 로력이 제공되고 있다.

정전 후 一○개월간만 하여도 평남도,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방에서 연 一백여만명의 청년 로력이 도시와 농촌의 복구 건설과 철도, 도로, 교량, 각종 문화 체육 시설의 복구 건설 사업에 동원되였다.

전후 청년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을 솔선 담당 수행하는 용감한 투사로 나서고 있다.

작년부터 수천명의 청년들이 탄광, 광산의 직접 부문과 기본 건설 공사장, 림업, 수산업 부문에서 돌격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아오지 탄광 민청 청년 돌격대를 비롯하여 평양 제二 건설 트레스트 청년들의 발기에 의하여 조직된 민청 청년 돌격 건설장들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끓는 정열과 창발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의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의 불길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작년과 금년도에 자기의 년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기 위한 애국적 증산 경쟁 운동에는 九○% 이상의 로동 청년들이 참가하였으며 경쟁 참가자의 거의 전부가 작년도와 금년 상반년도 계획을 영예롭게 완수 및 초과 완수하였다.

조선 인민들과 청년들이 사랑하는 로력 영웅 조 두실, 김 봉례, 신 복순 동무들을 비롯하여 많은 젊은 로력 혁신자들이 자기 앞에 부과된 三개년 계획을 이미 금년초에 완수하고 그의 초과 완수를 위하여 계속 싸우고 있다.

전후 우리 나라의 공장 기업소들은 현대식 기계들로 장비되고있다. 이런 실정은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의 급격한 향상을 요구하게 된다.

청년들은 당이 제기한 『기술을 배우라』『자기가 일하는 기계의 숙련공이 되라』는 구호 실천에서 거대한 성과를 쟁취하였다. 정전 후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급격히 증설된 각종 기술 교육 기관들과 직장내 기술 강습회 및 기술 연구 크루쇼크들에서 七만여명의 청년들이 망라되여 선진 기술을 배웠으며 한편 생산 행정에서 꾸준하게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젊은 기술자들과 기능공들의 대렬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전후 二년간에만 하여도 수만명의 미기능공들이 기능공으로 되였으며 기능공들은 기능 급수를 높이였고 청년들 속에서 一만여건의 창의 고안이 제기되여 이를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국가에 거대한 리익을 주었다. 여기에서 김책 제철소 내 민청원들의 창발적 제의에 의하여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은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고 각종 창의 고안 사업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훌륭한 모범으로 되고 있다.

민청 단체들과 농민 청년들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 회의 결정 실행을 위하여 관개 시설의 확장과 토지의 복구, 보호 사업을 광범히 전개하며 자급 비료 증산과 선진 영농법의 광범한 도입, 목축업의 발전과 농업 협동 경리의 조직 경제적 강화를 위한 투쟁에서 당을 적극 방조하였으며 또 방조하고 있다.

황해남도, 평남도를 비롯한 공화국 각지에서 농민 청년들은 관개 시설의 확장, 토지 복구 및 개량을 위한 사업에 수천여일의 로력을 제공하였으며 금년도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전국적 경쟁 운동을 조직하고 높은 열성으로써 거대한 량의 자급 비료를 생산하였다. 또한 수많은 제대군인들과 초, 고중 졸업생들이 농촌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거기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에서 민청원들의 五○%는 선진적 농업 협동 경리에 망라되고 있으며 협동 조합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

민족 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에서도 민청 단체들은 적

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의무 교육제 실시를 준비하는 전 인민적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 청년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열성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

민주 청년 동맹과 그의 맹원들이 걸어온 지난 一〇년간은 당 정책 실천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기간이였으며 국가 경제 문화 건설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을 바친 거대한 활동의 시기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지난 一〇년간 국가 경제 건설 사업에 바친 거대한 활동의 행정에서 자기 대렬을 조직 정치적으로 일층 공고 발전시켰다。

민청은 오늘 三만여개의 초급 민청 단체에 一〇〇여만명의 민청원들을 결속시킨 대중적 단체로 장성 강화되였다。 민청은 또한 당의 위임에 의하여 소년단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바 소년단에는 오늘 약 一二〇만명의 소년들이 망라되고 있다。

민청 단체는 당의 지도하에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로력과 건설에서 단련하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 一〇만의 민청의 피교양자들이 오늘 당 및 국가 기관 사회 단체에서 또는 과학、예술、문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이미 수십만명의 선진적 근로 청년들이 영광스러운 로동당에 입당하였는바 당 중앙 위원회 四차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에만도 一一만명의 청년들이 민청 단체의 추천을 받고 당에 입당하였다。

해방 후 一〇년간 공화국 청년들은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세계 민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쏘련、중화 인민 공화국 및 [illegible]가 청년들과 세계 평화 애호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조선 청년들의 생활과 면모는 지난 一〇년간에 몰라보게 변화 발전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초보적 자유와 권리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오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와 수령의 따뜻한 배려 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일하며 휴식하는 행복한 세대들로 되였다。 오늘 공화국 청년 학생들은 五、〇〇〇교에 가까운 각급 학교에서 선진적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믿음직한 민족 간부로 육성되고 있다。

해방 후 一〇년간 거대하게 발전된 청년들의 정치 문화 수준과 조선 인민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열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민청 단체들 앞에는 자기의 대렬을 사상 조직적으로 일층 공고히 하고 민청 일꾼들의 사업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그 어느때 보다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청 각급 단체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과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의 실행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민청 단체 지도 기관들의 사업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간부들의 정치 리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하여 지도 수준을 높임으로써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당이 제기하는 전투적 과업 실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할 것이다。

지난 一〇년간 민청 사업의 모든 성과와 업적은 당과 수령의 옳은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서만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민청 각급 단체들과 전체 민청원들은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여 그가 인도하는 광명 찬란한 우리들의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시) 서정시 三편

희망의 날개

김 학 연

훨훨 날으는 젊은 수리개야!
마음의 날개야。
자유의 노래로 넘치인
우리네 하늘이다。
우리네 땅이다。
희망의 날개를 마음껏 펴라!

음산한 숲속、
어느 나무 아지에서
엄마의 날개 아래 몸을 떨며、
아빠의 먼길을 애타하며、
빛 없는 하늘을 원망하던

그런때는 이미 옛날이 되였구나。

너의 두 눈이 열리던
음산한 숲도、
오늘은 청청한 대기를 뿜거니。
네 여윈 몸에 나래가 자라던
앙상한 아지도、
오늘은 거연히 하늘을 향하여 솟았으니。

훨훨 날으는 젊은 수리개야!
네 날개에 태양빛이 붉던
영광의 一〇년、보람찬 나날이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젊음으로、그 용기로、
날으거라! 앞길이 밝은 우리의 하늘을。
날으거라! 앞길이 열리인 우리의 땅위를。

지 않은 공헌을 하였다. 민청 단체들과 민청원들은 의무 교육제 실시를 준비하는 전 인민적 운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 청년들은 자기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기 위하여 더욱 열성적으로 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 ×

민주 청년 동맹과 그의 맹원들이 걸어온 지난 一〇년간은 당 정책 실천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의 기간이였으며 국가 경제 문화 건설 사업에 자기의 모든 힘을 바친 거대한 활동의 시기였다. 민주 청년 동맹은 지난 一〇년간 국가 경제 건설 사업에 바친 거대한 활동의 행정에서 자기 대렬을 조직 정치적으로 일층 공고 발전시켰다.

민청은 오늘 三만여개의 초급 민청 단체에 一〇〇여만명의 민청원들을 결속시킨 대중적 단체로 장성 강화되였다. 민청은 또한 당의 위임에 의하여 소년단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바 소년단에는 오늘 약 一二〇만명의 소년들이 망라되고 있다.

민청 단체는 당의 지도하에 청년들을 맑스—레닌주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로력과 건설에서 단련하는데서 귀중한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수 一〇만의 민청의 피교양자들이 오늘 당 및 국가 기관 사회 단체에서 또는 과학, 예술, 문화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사업하고 있다.

이미 수십만명의 선진적 근로 청년들이 영광스러운 로동당에 입당하였는바 당 중앙 위원회 四차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에만도 一一만명의 청년들이 민청 단체의 추천을 받고 당에 입당하였다.

해방 후 一〇년간 공화국 청년들은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세계 민청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위대한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 청년들과 세계 평화 애호 청년들과의 친선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조선 청년들의 생활과 면모는 지난 一〇년간에 몰라보게 변화 발전하였다. 일제 시대에는 초보적 자유와 권리도 가져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은 오늘 모든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으며 당과 정부와 수령의 따뜻한 배려 하에서 마음껏 배우며 일하며 휴식하는 행복한 세대들로 되였다. 오늘 공화국 청년 학생들은 五,〇〇〇교에 가까운 각급 학교에서 선진적 과학 지식을 습득하고 있으며 믿음직한 민족 간부로 육성되고 있다.

해방 후 一〇년간 거대하게 발전된 청년들의 정치 문화 수준과 조선 인민의 력사적 과업 수행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열성이 비상히 높아지고 있는 오늘 민청 단체들 앞에는 자기의 대렬을 사상 조직적으로 일층 공고히 하고 민청 일꾼들의 사업 수준을 더욱 높일 것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청 각급 단체들은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결정과 민주 청년 동맹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한 당 중앙 위원회 정치 위원회 결정의 실행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력량을 집중하고 있다.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계급적 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민청 단체 지도 기관들의 사업 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간부들의 정치 리론 및 실무 수준을 제고하여 지도 수준을 높임으로써 민청원들과 청년들을 당이 제기하는 전투적 과업 실행에로 적극 조직 동원할 것이다.

지난 一〇년간 민청 사업의 모든 성과와 업적은 당과 수령의 옳은 지도와 배려에 의하여서만이 달성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민청 각급 단체들과 전체 민청원들은 당과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치여 그가 인도하는 광명 찬란한 우리들의 래일을 위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하자.

(시) 서정시 三편

희망의 날개

김 학 연

훨훨 날으는 젊은 수리개야!
마음의 날개야.
자유의 노래로 넘치인
우리네 하늘이다.
우리네 땅이다.
희망의 날개를 마음껏 펴라!

음산한 숲속,
어느 나무 아지에서
엄마의 날개 아래 몸을 떨며,
아빠의 먼길을 애타하며,
빛 없는 하늘을 원망하던
그런때는 이미 옛날이 되였구나.

너의 두 눈이 열리던
음산한 숲도,
오늘은 청청한 대기를 뿜거니.
네 여윈 몸에 나래가 자라던
앙상한 아지도,
오늘은 거연히 하늘을 향하여 솟았으니.

훨훨 날으는 젊은 수리개야!
네 날개에 태양빛이 붉던
영광의 一〇년, 보람찬 나날이
너에게 베풀어 준 그 젊음으로, 그 용기로,
날으거라! 앞길이 밝은 우리의 하늘을.
날으거라! 앞길이 열리인 우리의 땅위를.

창 조

이 아침도 햇발은 창문을 넘어서
내 부푼 가슴에 안기여 드누나。
햇발은 내 가슴에 안기여
가슴 속의 노래를 어르만져 주누나。
태양이여! 햇발이여! 더 휘황하라!
一○년 세월, 네 밝은 헤아림 속에서
내 청춘은 꽃으로 피여나고 있다。

이 아침도 나의 선반기는
내 뜨거운 심장과 더불어 돌아가누나。
선반기도 내 가슴에 안기여
가슴 속에 노래와 합창을 하누나。
나의 기대야! 선반기야! 더 힘차게 돌아라。
一○년 세월, 네 높은 음향 속에서
나의 노래는 행복의 음조를 찾았다。

산을 허물어 들을 가꾸는 거기에,
강을 막아서 논을 푸는 거기에,
생활의 황금 물결, 마르지 않으리라。
행복과 희망의 노래, 쉬임이 없으리라。
태양이여! 축복의 빛발을 거기에도 뿌려 주라。
나의 선반기야, 사랑하는 기대야!
뜨거운 손길을, 성원의 노래를 거기에 보내자。

그 넓은 대지를 헤치며
그 적은 씨앗들을 솟아오르게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이 되여 넓은 가슴으로 기대 앞에 다가선
우리들의,
고귀한 땀과 억세인 손길과 뜨거운 마음들이
아, 우리의 생활에 랑만을 꽃피우며
우리의 가슴에 영예와 긍지를 주고 있으니—
로력의 즐거움과 창조의 기쁨을 깨우쳐 주고 있으니—

그러나 나는 긴 말을 아니하리。
다만 선반기야, 너에 대해서만 한마디 이야기 하리니…
이땅에 풀이 솟고 물이 흐르기 시작한
그 유구한 력사의 기나긴 나날에,
조선 글자의 "자호"가 달린 선반기는 없었노라。
내 너의 젊은 주인으로 조국에 감사를 드리노라。
내 너와 더불어 새 一○년의 나날도 창조의 불길속에
나의 청춘을 빛내리라。

성 장

그는 화가가 아니다。
다만 그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즐겨온 젊은이,
그는 언제나 짬만 있으면
종이 위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나 그는 오늘, 기중기를 타고서 위대한 그림을 그
리며 있으니…

그의 꿈은 그의 가슴 앞에 펼쳐지고 있다。

먼 옛날, 그가 아직 철부지 어린때엔
강가 모래터에 송아지를 그렸고,
어찌다 한장의 종이가 생기면
그는 거기에 허물어져가는 초가집도 그렸다。
그는 거기에 누데기를 두른 어머니도 그렸다。
아, 그는 또 거기에 화려한 꿈, 꽃나비 춤추는 화원도
그렸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구나。
그는 자기의 그림에서 한숨을 모르는 시대를 만났구나。
그의 가슴엔 붉은 넥타이가 휘날렸고,
그는 고향 강반에서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렸다。

새 거리와 새 학교를, 그 우에 너울치는 공화국 깃
발을,
그리고, 자유의 노래를 배워 주던 한 로씨야 병사의
모습을。

그리하여 그는 장정으로 자랐다…。
어느날 그는, 자기의 붉은 넥타이를 풀어서
귀여운 동생의 목에 물려 주었고,
그날 그는 가슴 속 깊이 푸른 맹증을 품었다。
그후… 학창을 떠나 한햇만에 그는,
이 도시의 자랑인 기중기 운전수로 되였다。

그 육중한 팔을 벌려 우리의 가슴 앞에 그리는
그의 그림, 그것은 우리의 념원… 우리의 자랑…
인민의 념원과 자랑을 위하여 一○년을 걸어 온
그의 가슴 속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당원으로 자라리라。당원으로 자라리라—
아, 바람을 타고 구름을 타고 그의 마음 날으누나。

그는 화가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그에게 축복을 드리자!
기중기를 탄 그가, 자기의 그 억세인 팔뚝으로
우리 시대의 이 위대한 공간 위에
오늘은 장엄한 새 생활의 화폭을 그리며 있으니…。
우리의 자랑과 행복의 첨탑을 쌓아 올리며 있으니…。



청춘의 락원

본궁 화학 공장 민청 위원장 정 동 훈

一九四五년 八월 一五일—바로 우리 조국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 기반에서 해방된 그날로부터 一〇년이 된다。 이날을 맞이하는 우리 공장 청년들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가지고 지난 一〇년간의 위대한 생활의 력사를 회상한다。

우리 본궁 공장 청년들의 一〇년간의 생활은 창조적 로력과 환희에 넘친 보람찬 생활의 가지가지의 이야기로 가득차 있다。 해방 후 一〇년까지 합한다면 본궁 공장은 약 三〇년의 력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一〇년전의 본궁 공장은 일제를 위하여 조선 사람들의 피땀을 짜내는데 복무해 왔었다。 로동자들은 단순한 기계의 부속물로서 하루에 一四—一六시간의 로동을 하고도 임금은 四五전 즉 일본 놈들의 一三%씩 밖에 받지 못했다。 사람으로서 도저히 견디여 낼수 없는 가혹한 로동 강도 때문에 청춘에 불구자가 된 로동자 수는 一九四四년도 한해에만 해도 三〇〇여명에 달하였다。 왜놈들은 조선 로동자들에게 털끝만한 자유도 주지 않았으며 기술을 배울 길도 막아 버렸다。 결과 一만명을 넘는 로동자들 중에서 조선인 기술자는 단 세사람 밖에 없었다。 심지어 놈들은 조선 로동자들이 일하는 장소와 합숙에까지 헌병과 경비원을 배치 하여 조선 로동자들을 질식할 정도로 억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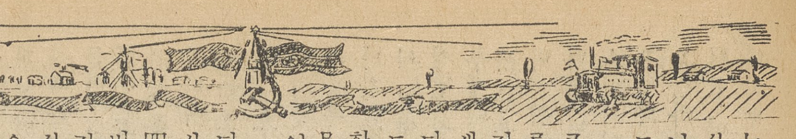
실로 一〇년전의 본궁 공장은 조선 로동자들의 감옥이였다。

청춘의 자랑과 행복은 꽃피기 시작했다

쏘련 군대에 의한 해방에 의하여 공장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청년들은 행복할 앞날을 그려 보며 로동의 새길에 들어섰다。

당과 인민 정권이 실시한 로동 법령에 의하여 로동자들과 청년들에게는 八시간 로동제와 로동 보호 및 휴식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였다。 로동은 고통스러운 것으로부터 영예로운 일로 되였다。 로동자들과 청년들의 생활은 날로 윤택해지고 그들의 생활에는 환희와 랑만이 넘쳐 흐르기 시작하였다。 많은 청년들이 로동에서 애국적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모범 로동자의 영예를 지니게 되였다。 지금 카바이트 직장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도겸 동무가 첫번으로 모범 로동자의 영예를 떨쳤다。

그러나 그는 일제 통치 하에서는 단순한 기계의 부속물로 일했을 뿐、아무런 기술을 소유하지 못한채 八·一五 해방을 맞았다。 해방후 그는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로동자 학교와 기술 교양망들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고급 기능공으로 자라났을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켰다。 그는 一九四六년과 一九四



七년도 자기 계획을 一九二%이상으로 넘쳐 실행하였으며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은 一九四九년도에 완수하였다。 도겸 동무는 一九四七년도에 공장에서 첫번으로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장』에 등록되고 표창을 받았다。 전체 공장 로동자들과 함께 그의 생활도 날이 갈수록 윤택해져 갔다。 그는 해방전에는 四방 여섯자도 못되는 오막사리에서 셋집 생활을 하였으나 해방 후에는 二층 문화주택에서 행복한 가정 생활의 나날을 보내게 되였다。

청년들 속에서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기술 인재들과 생산 혁신자들이 배출되였다。 벌써 一九四九년도 말에 가서는 리 응기를 비롯한 三五명의 청년들이 로동자 학교와 야간 기술 전문 학교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기수로 되였으며 一、九二九명의 기능공들이 새로 육성되였다。 또한 전체 청년 수의 八二·八%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한해 앞당겨 완수하였다。

청년들의 이와 같은 창발적 로력 투쟁은 공장 앞에 부과된 二개년 인민 경제 계획을 五개월 단축하여 一〇四%로 초과 완수하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본궁 공장 카바이트 생산량은 一九四九년도에 벌써 해방전 최고 수준을 훨씬 능가하였었다。

청년들은 기술 기능 수준의 장성과 함께 정치 문화적으로도 발전하여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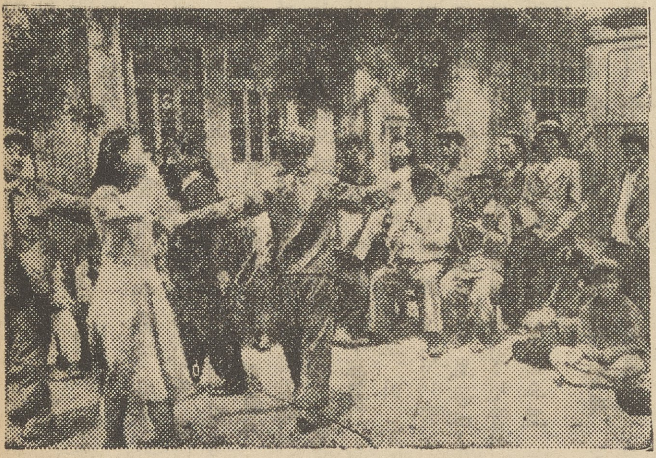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해방 후 공장에는 한글 학교와 성인 학교가 설치되였다。 청년들은 이 학교들에서 국문을 배웠으며 또한 민청 교양망들에서 자체의 정치 문화 수준을 꾸준히 높여 왔다。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리 주만을 비롯한 三〇〇여명의 청년 남녀들이 민청에서 교양 받아 영예로운 로동당에 입당하였으며 二三〇여명의 청년들이 당 및 국가 기관 사회 단체 일군으로 등용되였다。

공장 생산 설비의 확장과 함께 로동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였다。 청년들의 수는 해방 직전에 비하여 二배로 증가하였고 그들의 생산 의욕은 날로 높아져 갔다。 청년들의 대부분은 기술 부문인 공무부 산하 기계 직장에 집중되였다。 억센 청춘의 힘과 들끓는 정열을 조국에 바치려는 로동 청년들의 발기에 의하여 一九五〇년 一월 九일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처음으로 청년 공장을 창립하였다。 청년 공장의 창립은 자기의 로동과 생활에 대한 무한한 기쁨과 보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들끓는 청년들의 심장을 더욱 불타게 하였다。 청년 공장에는 三五개의 청년 작업반이 새로 조직되였다。 청년 작업반과 청년 작업반간 개인과 개인간에 치렬한 증산 경쟁이 벌어졌다。 그들은 증산 경쟁에서 새 기준량을 창조하며 선진 작업 방법을 생산에 광범히 도입하는 적극적 발기자로 나섰다。 리 주만 청년 작업반원들은 카바이트로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로체의 수리 작업을 일제 때에는 연 三、〇〇〇명의 로력으로 하던 것을 작업 방법을 개조하여 연 四五二명의 로력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에 二〇〇만원의 리득을 주었다。

이와 함께 청년 공장은 무기능공을 없애며 기능공들의 기능 급수를 높이는 사업에서도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리하여 一九五〇년도 一·四분기간에만 하여도 제一차 기술 자격 시험에서 二〇명의 청년들이 합격하였다。 청년들의 애국적 열성과 창발적 로력의 결합으로 청년 공장은 一九五〇년 一·四분기간에 총 二五건의 귀중한 창의 고안으로 국가에 八五〇여만원의 리득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 맡겨진 국가 과제를 一八五·二%로 초과 완수하였다。 비록 청년 공장의 탄생 력사는 짧지만 그간 청년들이 이룩한 로력적 성과와 생활은 보람찬 것이였다。

공장도 전선이였다

미제와 리승만 도당에 의한 전쟁의 도발은 우리 공장 청년들의 평화적 생활을 중단시켰다. 행복의 웃음 소리 꽃피는 평화로운 공장에 원쑤들은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 一九五○년 八월 一三일 적들은 五○○여발의 대형 폭탄과 소이탄을 공장에 퍼부었다. 공장은 심대한 상처를 입었고 적지 않은 로동자들이 희생되였다. 간악한 원쑤들의 만행은 로동자들을 격분케 하였다. 쏟아지는 폭탄 속에서도 청년들은 추호도 굴하지 않았다. 공장과 로동자들의 생활은 곧 전시 태세로 개편되였다. 유정길 동무를 비롯한 三○○명의 청년들은 마치를 총으로 바꾸어 쥐고 전선에로 달려갔다. 공장에 남은 청년들은 『전선에 나간 동무들의 몫까지 말아하자』는 결의 밑에 二一개의 청년 작업반을 전선 청년 작업반으로 개편하고 전시 증산 투쟁의 첫 대렬에 나섰다. 원쑤들은 타다 남은 공장에다 계속 폭탄을 퍼부었다. 위험과 난관은 중첩되였다. 그러나 청년들은 청춘의 락원이며 행복의 요람지인 사랑하는 공장을 위하여 온갖 곤난과 위험을 무릅쓰면서 전시 생산을 보장하였다. 그들은 원쑤들이 공장을 백번 마수면 백번 고치였고 전력이 중단되면 손으로 기계를 돌리였으며 부족되는 자재는 유휴 자재로 보충하면서 생산을 잠시도 멈추지 않았다. 청년들은 항상 지난날의 행복스럽던 생활을 잊지 않았다. 적들의 발악적 진공에 의한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들이 다루던 기계를 등에 지고 八○리 길을 걸어 신가파에까지 가서 그곳에다 공장을 설치하고 계속 생산을 보장하였으며 종 휘림을 비롯한 一五명의 청년들은 빨찌산 대오에 용약 참가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청년들은 노래와 춤으로서 휴식 시간을 즐기고 있다.

행복한 래일을 위하여

전쟁의 불길은 멎었다. 공장에는 농촌과 도시로부터 많은 청년들이 새로 들어 왔다. 전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해산되였든 청년 공장은 다시 청년 직장으로 조직되였다. 청년들은 공장의 복구 사업에 일떠 섰다. 그런데 전체 청년수의 八○%가 갓들어온 동무들인 조건 하에서 민청 단체 앞에 제기된 가장 큰 과업은 기술 문제였다. 때문에 공장 민청은 초급 당 단체의 지도 밑에 무기능공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첫 주목을 돌리였다. 공장 민청은 그들을 민청 생활에 적극 인입시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로 교양하는 한편 기술 전습회에 적극 참가시켜 기술을 배우도록 방조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된 기술 일군들을 동원하여 기술 강연과 경험 교환회도 수시로 조직했다. 공장 민청은 그들의 기술의 욕을 높여 주기 위한 방법으로써 청년 직장을 중심으로 기술 경기 대회도 종종 조직했다.

공장 민청의 이와 같은 지도로 말미암아 청년 직장에서는 정전 후 불과 五개월 동안에 전체 무기능공의 七五%가 기능 선반공으로 육성되였다. 청년 직장 리 병호 청년 작업반에서는 一九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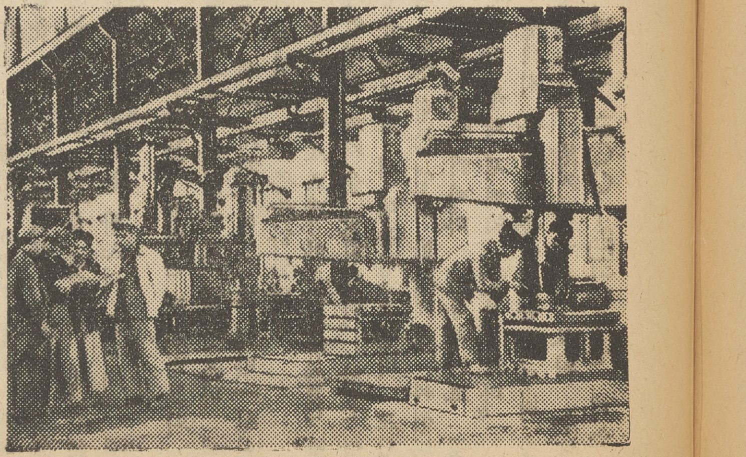


四년도 四·四분기 계획을 一五○%로 초과 실행하였으며 엄만섭 청년 작업반은 一九五四년도 년간 계획을 一二六%로 넘쳐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년도 상반년 계획은 一四七%로 초과 완수하였다. 특히 공장 복구 사업에서 발휘한 청년 직장 조립공 송광은 동무와 선반공 리주만 동무의 공로는 컸다. 송광은 동무는 가성소다 직장 복구 공사에서 전동기 부랏시를 창의 고안하여 전해조 六六조 다미나르 가공로력 계획 四六八공수를 단 五二공수로 완공케 하였으며 또한 철극 가공을 위한 이동 쎄빠를 창의 고안하여 七二六공수의 로력을 절약하고도 소다 직장 복구 기일을 단축케 하였다. 이리하여 송광은 동무는 영예의 로력 훈장을 수여 받았다. 이들의 모범을 따라 청년들 속에서 대중적 창의 고안 운동이 전개되였다. 이리하여 전후 시기에도 총 一一九건의 귀중한 창의 고안으로 九○○여만원의 리득을 국가에 제공하였다. 공장 복구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 부속들을 제때에 가공 보장함으로써 一五명의 국가 수훈자를 내였으며 一八명의 민청원들은 민청 중앙 위원회 『영예의 등록장』에 등록되고 표창을 받았다. 이와 같이 공장 로동자들과 청년들의 창조적 로력에 의하여 굴뚝만이 남았던 카바이트 직장과 석회질소 직장, 그리고 가성소다 직장의 굴뚝에선 연기가 나게 되였으며 다량의 카바이트와 석회 질소 비료가 쏟아져 나오게 되였다.

청년들은 애국 로동을 전개하여 전쟁 기간에 적들의 폭격에 의하여 공장과 함께 혹심하게 파괴되였던 로동 구락부와 一七개의 민주 선전실을 원상대로 복구하였다. 초급 당 단체와 공장 행정에서는 청년들의 문화 생활에 각별한 배려를 돌려 왔으며 또 돌리고 있다. 공장 민청은 청년들의 앙양된 문화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자원에 의하여 청년 직장을 중심으로 五○○명의 합창단을 조직하였으며 연극 써클을 비롯한 각종 써클에 전체 청년 수의 七○%가 망라되였다. 하루의 작업이 끝나고 황혼이 깃들 무렵이면 청년들의 가벼운 발걸음은 복구된 공장 로동 구락부와 민주 선전실에로 먼저 옮겨진다. 그들은 영화를 감상하며 또는 연극실에서, 무용실에서, 미술실에서, 오락실에서, 도서실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우리 공장 청년들은 청춘의 락원이며 창조의 보람찬 일터인 우리 공장의 희망찬 미래를 확신 있게 바라 본다. 八·一五 해방 一○주년을 맞는 우리 공장 전체 청년들은 위대한 해방의 은인인 쏘련 군대와 쏘련 인민에게 끓어 넘치는 감사와 영예를 드리고 있다.

또한 전체 청년들은 우리를 항상 광명하고 행복한 미래에로 인도하여 주는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주위에 더욱 철석 같이 뭉치여 청춘들의 보다 훌륭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래일을 위하여 억세게 전진할 것을 굳게 결의하고 있다.


새로 정비된 본궁 화학 공장의 청년 직장.



자유의 과수원에 행복의 꽃이 핀다

함북 어랑군 봉강리 민청 위원장 황 영 하

이 땅에 드리운 암운을 뚫고 一〇년 전에 북방으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태양이 버치였고 위대한 해방의 사도 쏘련군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선은 자유국이 되였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새 조선 력사의 첫 페지가 될 뿐이다.

화려한 과수원은 사람의 노력과 고려의 결과이다. ……

조선 사람들이여! 기억하라!

행복은 당신들의 수중에 있다』.

그날로부터 一〇년이 지났다.

오늘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을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쏘베트 군대의 그 정다운 목소리를 다시금 무한한 감격으로 회상한다.

지난 一〇년간 우리들은 쏘베트 군대가 피로써 가져다 준 자유의 과수원에 행복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창조적 로력과 영웅적 전투로써 영광과 승리의 길을 걸어 왔다.

쏘베트 군대는 우리를 일제 식민지 쇠사슬에서 해방시켰으며 동시에 수천년에 걸친 노예의 쇠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은 이 짧은 기간에 실로 수백년을 내려 오면서도 해 내지 못한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많은 일들을 해 놓았다.

우리는 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지주에게 얽매여 소작도 마음대로 얻어 부치지 못하던 농민들에게 있어서 일제의 쇠사슬에서 해방된 감격 다음에 또 하나의 큰 기쁨이였다.

봉강리 마을 전체 九五호의 농가 중에서 六五호의 농가가 二〇〇정보에 가까운 기름진 땅을 분여 받았다.

땅의 주인으로 된 마을 청년들의 기쁨과 환희는 그대로 조국 통일을 위한 평화적 건설 사업에 바치여 졌다.

젊은 청년들의 애국적 힘과 지혜는 밭을 일군다, 다리를 놓는다, 학교를 짓는다 실로 피로를 잊은듯 밤낮 없이 련달아 제기되는 창조적 로력에서 샘솟듯 하였다.

一九四九년도 말에는 三四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었고 八〇여정보나 되는 밭을 새로 개간하여 실로 二만一천여두의 곡식을 더 증수하였다.

땅의 주인으로 된 마을 청년들은 영농사업에서 기적을 발휘했다. 낡은 영농법을 버리고 새 영농법을 널리 도입하며 항상 힘든 일의 앞장에서 싸웠다.

논과 밭은 해마다 기름져가고 일제때보다 두배 세배의 소출을 냈다.

일제시 우리 마을에서는 아무리 많이 내는 해라 할지라도 한정보의 논에서 기껏해서 三〇〇—三五〇두를 내는 것



이 보통 상식으로 되였다.

그러나 땅의 주인으로 된 우리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은 평균 한 정보에서 七〇〇—七五〇두의 수확을 냈다.

특히 박 봉호 동무는 한정보에서 일제때의 三배에 해당하는 一、〇五〇두를 증수하였으며 김 철욱 동무는 九〇〇여두의 높은 수확을 걷었다.

그리하여 땅 받은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윤택해졌다.

집집마다에는 새로 전기가 가설되였고 새 가옥들이 늘어갔다. 벌써 一九四九년말에는 열일곱채의 큰 기와집이 새로 생겼다.

마을에는 五五대의 라디오와 축음기가 있었고 五七대의 재봉침을 사 들였다.

또한 마을에는 가축들이 눈에 띄게 늘어갔다. 어느 농가치고 소 없는 농가라군 없었고 어떤 집에서는 두, 세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 집에서도 해방 후 두마리의 소를 사 맸다.

그리하여 마을에는 새로 一三〇여두의 소와 一五〇여마리의 돼지가 뿔어났고 기타 닭, 오리의 떼들은 풍요한 마을을 더욱 흥겨웁게 하였다.

학교는 농민들의 자제들을 위하여 넓은 문을 열어 주었다. 일제 때에는 군적으로 하나 밖에 없던 중학교가 오늘은 九교로 늘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을에는 해방 전에는 한 사람도 없던 대학생이 一二명이나 되였고 一〇여명 밖에 없던 중학생이 三〇〇여명이나 되였다.

마을 청년들은 향토 건설에서도 언제나 모범이 되였다.

영웅의 강으로 불리워지는 어랑천에 남북을 련결하는 四〇〇메터에 달하는 수남 인도교를 마을 청년들의 힘으로 준공하였고 인민 학교, 초중, 고중 교사 신축에도 청년들의 로력이 적지않게 들었다. 마을 한 복판에 二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인민 극장도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의 로력으로 신축되였다.

마을 청년들은 해방 후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두터운 배려 밑에 평화적 건설을 위한 로력과 학습을 통하여 무한히 장성 발전하였다.

해방후 당의 방조밑에 민청에서 교양 받은 청년들은 공화국 인민경제 각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일하고 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문맹을 벗어난 화전민의 딸이였던 김 란주화 동무는 어랑 인민을 대표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으로 사업하고 있으며 왜정 때에는 보잘 것 없는 소작농의 아들이였던 리철용 동무는 오늘 인민 군대 장령으로서 사업하고 있다.

전쟁은 우리들에게 큰 시련이 였다.

우리 마을 청년들은 전쟁의 모진 시련을 해방후 당과 경애하는 수령에 의하여 교양되고 훈련된 백절불굴의 투지와 완강성으로써 훌륭이 이겨냈다.

청년들은 조국을 보위하며 향토를 지키며 피로써 얻은 자유와 권리를 다시는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위대한 쏘베트 병사들이 가져다 준 화려한 『자유의 과수원』을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고수하기 위하여 한사람같이 일어 섰다.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 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수백명이나 전선에 출동하였다.

전선에 나간 우리 마을 청년들은 다른 모든 청년들이 그랬듯이 훌륭히 싸웠다.

적 함선을 까부신 위훈으로 국기훈장 제一급을 수여 받은 해안포 중대장 김기병 동무를 비롯하여 수 많은 청년들이 빛나는 위훈을 세웠다.

전선에 나간 청년들의 뒤를 감당하여 마을에 남은 녀성 청년들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일에서, 전선 원호 사업과 향토 보위 사업에서 모든 애국적 열성을 다하여 싸웠다.

一九五〇년 一一월 九일 원쑤들의 더러운 발톱이 고향 마을에 닿자 마을 사람들은 선조들의 백골이 묻히고 행복의 요람지인 정든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웠다。

一三〇명의 녀성 청년들은 운수대、 담가대、 식사대에 참가하여 눈부신 활약을 하였다。 그들은 하룻밤에도 五、六회에 걸쳐 무거운 포탄을 운반하였으며 수一〇명의 부상병을 업어 날랐다。

김 후남 동무를 비롯하여 식사대에서 일한 젊은 녀성 청년들은 一二일 동안에 실로 어랑 인민들이 一〇년을 먹을수 있는 식사를 지여 날랐다。

특히 박 순옥、 리이숙 동무들은 三차에 결쳐 적구를 뚫고 들어가 맡겨진 정찰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원쑤들은 쫓기워 가면서 갖은 발악을 다해 마을을 파괴하였고 소、 돼지、 농기구할 것 없이 송두리채 빼앗아 갔다。

마을에는 축력과 농기구가 부족했다。 무엇보다 마을에는 발갈이할 사람이 부족했다。 보잡이는 옛날부터 힘센 남자들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고 처녀들도 역시 전쟁전 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어떠한 난관도 청년들의 투지와 전진을 가로 막지는 못하였다。

보잡이를 배운 처녀들은 전원에서 훌륭히 밭을 갈고 논을 갈았다。 마을 사람들은 소겨리반、 품앗이반을 무어 서로 도우며 농사를 지었다。

그리하여 전쟁의 어려운 시기인 一九五二년도에도 례년에 못지 않게 한정보에서 평균 八〇〇두의 다수확을 보장했다。

영농 사업과 아울러 마을 사람들의 전선 원호열은 더욱 더 고조되여갔다。 전쟁 시기 우리 마을에서는 七一二가마니의 전선 원호미와 一四五만여원의 비행기 및 땅크 기금을 헌납하였다。

당과 경애하는 수령에 의하여 교양된 우리 마을 청년들은 전쟁 시기 자기의 피어린 투쟁과 성스러운 승리로써 더욱 더 난관과 애로를 뚫고 나가는 백절불굴의 투지를 소유한 청년들로 단련되였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 김 남순、 조 채룡 동무를 비롯한 一〇여명의 청년들이 영예로운 로동당원의 칭호를 받게 되였다。

전쟁의 불길이 꺼졌다。



전쟁에 의한 파괴를 복구하며 농산물의 생산고를 전전 수준에까지 끌어 올릴 과업이 제기되였다。 온 마을은 복구 건설과 함께 식량 증산을 위한 투쟁에 일어섰다。

전쟁 후 우리 마을에는 또 하나의 위대한 전변이 생겼다。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은 농촌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 보다 화려하고 보다 아름다운 농촌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영웅의 땅 봉강리 마을에 세개의 농업 협동조합을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우리 마을 농가의 八〇%가 망라되였다。

로동당 중앙 위원회 一一월 전원회의 결정 실행을 위하여 청년들은 원쑤들의 만행으로 인하여 파괴된 농경지 복구 사업에서 높은 애국적 열성을 발휘하였다。

금년 봄까지 二二一개의 폭탄구멍을 완전히 메꾸어 八천여평에 달하는 논밭을 복구하였고 너비 二메터 깊이 三메터의 一천여메터에 이르는 배수로 정지 작업을 七일간에 완수하였다。

협동 조합내에서 청년들은 핵심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一二명으로 된 청년 작업반원들은 순전히 자기들의 관리하에 있는 한정보의 과수원、 三정보의 논과 금년 초에 새로 자기들의 힘으로 개간한 四정보의 밭에 콩을 심었다。

청년들은 조합내의 모든 질서와 규률 준수에서 모범을 보이며 어려운 작업을 도맡아 하고있다。

금년도 모내기 작업에서도 도저히 六월二〇일까지는 불가능하다고 하던 것을 한사람이 평균 二二〇평을 보장함으로써 기한전에 완수하여 군적으로 一등을 쟁취하였다。

청년 작업반원들은 풀베기에서도 마을 사람들의 선두에서 리적 계획 四천백톤을 六천五백톤으로 초과하여 벨것을 목표로 七월까지는 그 八〇%를 베였다。

그리하여 청년 작업 반장 김철욱 동무를 비롯하여 김 용녀、 조 채룡등 작업반원들은 모두다 一〇〇여 로력 일수를 초과하여 다른 조합원들보다 더 많은 로력 일수를 쟁취하였다。

지금 우리 마을에 조직된 세개 농업 협동 조합에는 금년 고중을 졸업한 박원식 동무를 비롯하여 초、 고중을 나온 많은 젊은 청년들이 새로 가입하였으며 리 창범 동무를 비롯한 七명의 제대군인들이 있다。 농업 건설자가 되려는 그들은 벌써 농사일에 익숙해지고 한평생 자기의 청춘과 힘을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칠 결의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다。

우리는 협동화된 전원에서 영웅의 땅 봉강 마을에 보다 화려하고 행복하게 꾸려질 환희에 찬 미래를 바라다 본다。

기계들이 전원을 달릴것이고 부락 주위를 둘러싼 낮으막한 언덕들 마다에는 탐스럽게 달린 과수들이 들어 설 것이고 문화 주택이며、 극장이며、 영화관이며、 학교들이 보다 더 웅장하게 일어설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를 승리와 행복에로 항시 인도하여준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에게 다함 없는 감사를 드리며 은혜로운 쏘베트 병사들이 가져다준 『자유의 과수원』을 더욱 화려하게 꾸리기 위하여 청춘의 힘을 아낌없이 바치고 있다。

우리 마을 농민들과 청년들은 당과 경애하는 수령이 가르치는 길、 행복과 희망에 찬 길—농업 협동화의 길에서 지난 기간 로력과 전투에서 단련된 억센 투지와 청춘을 더욱 더 빛내일 것이다。

서울에서 온 편지

사랑하는 준아!

너와 내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처음으로 해방의 만세를 웨치며 숱한 사람들의 틈에 끼여서 종로 거리로 밀려가든 그날은 벌써 一〇년 전 옛날이 되였다。

그 때 우리는 겨우 열살을 하나 둘 넘었었지。 우리는 자꾸만 넓은 광장으로 가고 싶었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만 가고 싶었다。 프랑카트와 깃발을 높이 휘날리고 수많은 군중들이 뒤끓으며 대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신명나고 기뻤드냐。 너나 내나 그때야 무엇을 똑똑히 알았으랴만 우리는 군중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만 싶었다。

그리고 그것은 옳았었다。

회고하면 까마 아득한 一〇년 세월에 정말 우리는 얼마나 징그럽고 고통스런 길을 걸어왔느냐。 그러나 나는 六·二八(一九五〇년) 이전의 일을 네게 이야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도 이미 겪어온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그만 두었다。 삯바느질로 어머니가 늙으시는 것을 참아가면서 그래도 나는 무엇을 배워보자고 학교를 갔었지。 그러나 놈들은 나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느냐。 모두가 미국식 노예교육의 그 썩어빠진 찌거기 뿐이다。 사람을 서로 의심하며 미워하며 모함하며 대립시키며 제 리익을 위해서 남을 구렁텅이에 굴러뜨리며 빈궁과 불행과 고통은 인간의 숙명이며 다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고 바쳐야 한다는 것이 바로 놈들의 리론인데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미국이란 것이다。

부패하고 타락적이며 음탕스러운 미국의 짜즈 문화 교육이 지배하는 남조선 학원은 또한 『미국놈의 대포밥의 양성소』다。 학생들은 반드시 졸업하고는 미국놈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운명이 마련되여 있다。 뿐만 아니라 리 승만 도당들은 학원을 『모리 시장』으로 하고 엄청스런 잡부금과 입학금을 강탈하여 학생들의 피를 빨아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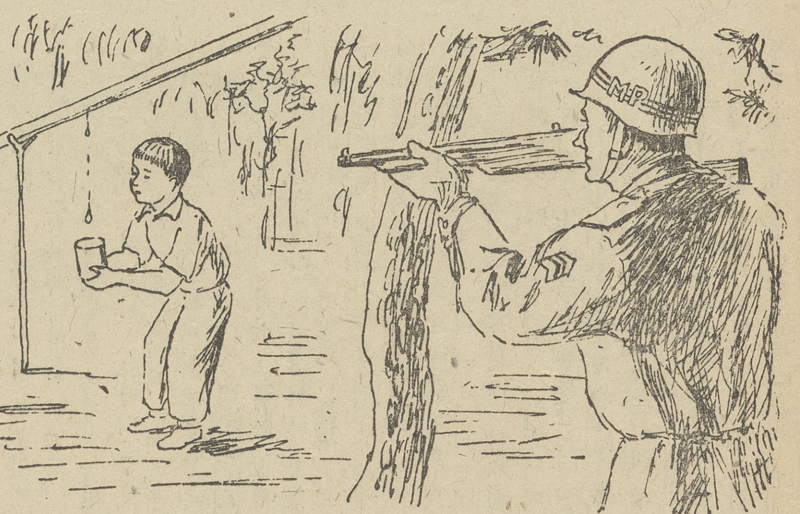
정말 무엇을 배우자고 피를 빨리우면서 우리는 학교에 가야만 하겠니。 죄악과 죽음의 막다른 길을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젊고 순결하고 옳바른 판단력과 정의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미국식 노예 교육과 리 승만 도당들의 억압을 항거하고

일어섰지。 동맹 휴학을 하고 시위를 하고 삐라를 뿌리고—그러나 결과는… 너도 잘 아는 최 인범이는 경찰에 붓잡혀가드니 나오지를 않고 문학을 좋아하든 박 경복이는 테로를 맞고 딩굴다가 약 한첩 먹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놈들의 공식 보도에 의하더라도 현재 남조선에는 一三만명이나 되는 징병 기피자가 있다고 한다。 놈들은 『징병 기피자 단속 월간』이란 것을 설정해 가지고 경찰과 『국방군』이 합동해서 그물을 치고 있다。 그물에 걸리는 청년이란 청년은 모주리 검거해서 도살장으로 몰고 가는 소와도 같이 병영으로 끌고 간다。

그러나 사랑하는 준아!

제 어머니의 젖가슴에 총뿌리를 겨누는 그런 자식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니。 공화국은 우리의 어머니다。 一〇년 기나긴 세월을 우리는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젊디 젊은 몸들이 놈들의 총알에 쓰러진 대구、 려수、 제주도、 헤아릴 수 없는 거리와 산봉우리와 또는 캄캄한 감옥 속에서 수만 수십만의 애국 청년들이 한결 같이 부른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였드냐。



열번 죽고 백번을 다시 살아나도 나는、 아니 나와 같은 우리 조선 청년들은 결코 미국놈은 될수가 없다。 그놈들의 생활 륜리를 따라갈 수는 없다。 우리 조선 청년들은 어머니를 섬길 줄 안다。 놈들이 쥐여 준 총뿌리는 어머니의 젖가슴이 아니라 바로 그 총뿌리를 잡기를 강요한 놈들의 가슴팍에 돌려질 것이다。 이는 수천년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전해준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이요 명령이다。

학교에서 쫓겨난 나는 ××공장에서 로동을 했다。 독신자 하숙비만 해도 한달에 자그만치 一만 五천환인데 임금은 고작해야 一천 五백환이다。 한간 방세가 四천환이요 다섯 식구 살림을 하자면 적어도 二만 二천환은 있어야 입에 풀칠을 할 지경이다。 놈들은 전력을 보내주지 않고도 전등료금은 三배나 올려서 강탈을 한다。

생산 공장이라 해서 전력을 보내 준다는 것이 하루에 기껏 두시간 혹은 세시간 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도 놈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다。 생산이 二〇% 내지 三〇% 정도에서 할딱할딱 숨을 쉬고 있는 꼴을 상상해 보라。

남조선 공장은 물품을 생산하는 데가 아니라 실업자를 생산하는 마굴이다。 二〇〇만명이나 되는 실업자가 현재 남조선에서 지향도 없이 방황한다는 것을 놈들도 속이지 못한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리 승만은 이렇게 되기를 원했고 이렇게 됨으로서 미국놈의 뱃대기는 자꾸만 살이 쪄가는 것이 아니냐。 나도 이젠 이 실업

군중 속의 한사람이 되였다.

백주에 미군놈이 부녀자를 겁탈하고 강도질을 하는 추악한 행동은 이미 一〇년을 내려오는 미국식 전통으로 되였고 종유관 이에 짬에서 새는 기름 방울을 깡통으로 받는 어린 것을 미국놈들은 총 사격 련습의 목표로 리용하고 있다. 전쟁 과부들의 뗴거리는 료정의 쓰레기통을 뒤지기에 손끝이 닳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은 그 작은 손바닥으로 미군놈과 돈 있는 부랑배의 구두를 닦으면서 란닝그 바람으로 삼동을 지낸다. 피투성이 기아(棄兒)들은 골목마다 늘어가고 종로, 광화문 거리에 나뒹구는 행려 병인의 시체는 일주일이 지나도 거둘줄을 모른다.

사랑하는 준아!

나는 또 하나의 『진기』한 사실을 이야기하마. 초동에 있는 백 린제 병원을 너도 알겠지. 그것이 바로 『혈액 은행』으로 되였다. 그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의 피를 싼값으로 뽑아 모으는데다. 여기에 모여드는 사람들이란, 실업자, 학생, 사무원, 로동자, 다시말하면 남조선의 인간 권리를 박탈당한 인간층들이다. 어둑컴컴한 채혈실(採血室)의 유리창을 들여다보며 얼굴이 파랗게 질린 어린 학생에게 물을 필요도 없는 질문을 나는 했다. 무엇 때문에 피를 뽑느냐고. 맥 없이 말하는 그의 대답을 듣고도 나는 물론 놀라지 않았다. 학생은 닥쳐오는 학기에 바쳐야 할 잡부금을 미리부터 이렇게 피를 팔아 모은다고 한다.

나는 또 이 저주로운 집 모퉁이에 쓰러져 있는 중년 사나이를 만났다. 그는 저 전라도에 고향을 가진 농민이라고 한다. 리승만 도당의 극흉한 『농지 개혁법』에 의하여 세간과 마소를 팔아서 땅돼기를 사기는 했으나 그 무서운 가렴 잡세에 해마다 땅을 쪼개여 팔다가 지난 봄에는 살림살이의 밑바닥까지 파산당하고 말았다고 한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 주린 창자를 채워가며 류랑의 길을 헤매다가 흘러온 것이 서울인데 이렇게 피를 뽑아서 여섯 식구를 살려 먹이노라고 하소연을 한다.

미국식 노예 교육을 받기 위해서 피를 뽑아야 하고 곡식이 아닌 자기의 피를 뽑아서 목숨을 부지하는 농민——이것이 미국 상전을 받들고 역도 리승만이가 뛰노는 남조선의 진상이다.

아마 너도 반동 문학 평론가인 림궁제란 놈을 기억하리라. 그 악당까지도 말하기를 『대한 민국』에서 사람의 가치는 구와니찡보다도 못한데 구와니찡은 그래도 설사를 멈추게 하는 가치를 가졌으나 사람의 가치는 아무데도 찾을 길이 없다고 제라서 한탄을 했다. 리승만의 정체와 미국놈의 『은혜』의 정체는 저희들끼리도 이젠 감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서울의 모든 출판물이란 하나 같이 한창 썩고 있는 쓰레기통에 욱실거리는 구데기떼의 란무장(亂舞場) 바로 그것이다.

나무 껍질과 풀뿌리로도 창자를 채울 길이 없어 농민이나 로동자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피를 뽑아 살아가는 이 암흑 천지의 기아 선상에서 리승만 역도는 『생활 간소화』요 『의복 간소화』요 하고 호통을 친다. 이 역도의 요구대로 한다면 남조선 인민은 공기만 먹고 살아야 하고 발가벗고 살아야 한다.

사랑하는 준아!

이것이 一〇년 세월을 걸어온 서울의 진상이다. 극악한 미제와 리 승만 도당들이 저지른 범죄의 결과다.

그러나 한가지만은 꼭 믿으라. 미제와 리 승만이 제 아무리 총칼로 억압하더라도 태양을 그리는 념원이 남조선 인민의 가슴마다에 불 붙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바로 그것은 어머니인 공화국 북반부로 달리는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 같은 열정인 것이다.

주구 리승만을 시켜 간악한 미제가 제아무리 『북벌』 전쟁을 음모하며 발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끝내는 제놈들의 멸망으로 결말지어지리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는다. 놈들의 광포한 총칼 밑에서도 새벽마다 거리에 나붙는 삐라를 인민들은 본다. 그것은 한결 같은 인민들의 념원인 공화국 최고 인민회의 제八차 회의 호소문을 지지하는 불 같은 글발들이다. 로동자들은 호소문을 수 없이 활자로 찍어냈고 용감한 청년들은 그것을 인민들의 손과 손에 골고루 노나 주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웨치며 징병을 반대 기피하는 수십만 청년 학생들의 대렬은 날마다 늘어만 가고 있다.

사랑하는 준아!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경축하는 평양은 얼마나 흥성겹고 다채롭고 감격과 환희에 넘칠 것이냐.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된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들은 위력을 시위할 것이고 로동자를 선두로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의 만수 무강을 빌면서 자기들이 이룬바 빛나는 건설의 성과를 자랑할 것이다. 날마다 부강 발전해가는 조국 북반부의 건설 모습은 우리들 남조선 인민들의 가슴마다에 최후 승리에 대한 신심을 북돋아준다.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 경축 행사에 우리를 부른 공화국의 초청을 미제와 리승만 역도는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몸은 비록 남조선에 있으나 우리의 불타는 마음은 공화국의 민주 수도 평양으로 달리고 있음을 잊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념원인 평화적 통일 독립에 대한 신심이 우리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간직되였음을 알라.

평양에서 웨치는 만세 소리로 하여금 암흑 속에 허덕이는 남조선 방방 곡곡에 울리게 하라.

서울에서

김 시학



″조쏘 친선 월간″에 제하여 선전원들에게 주는 담화 자료

농업 집단화 시기에 있어서 레닌 공청원들은 어떻게 투쟁 하였는가

정 균 수

쏘련의 농촌 경리가 오늘과 같이 발전하였으며 쏘련 농민들이 오늘과 같이 부유하고 문명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위대한 레닌—쓰딸린 당에 의하여 창조되고 육성 강화된 선진적 꼴호즈 제도의 덕택이다.

혁명전 짜리 로씨야의 농촌 경리는 심히 락후하였고 농민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였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적은 발뙈기 조차 경작할 수 없어서 자기의 농토와 고향을 버리고 품팔이로 떠나가지 않으면 안되였다. 농민들의 대다수는 문맹자였다. 반면에 극 소수의 지주와 부농들이 전 경작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빈농민들을 무자비하게 억압 착취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은 세기적 억압과 착취와 빈궁과 불행으로부터 농민들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자유로운 생활의 길을 열어 주었다. 농민들은 토지의 주인으로 되였으며 국가는 그들에게 축력과 농기구를 방조하여 주었으며 영농 자금을 대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 분산된 소농 경리로서 선진 농학을 적용하며 뜨락또르와 기타 새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였으며 농촌 경리는 역시 락후한 형편에 있었다. 이것은 농민들은 물론하고 농산물에 대한 전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민 경제의 전반적인 발전에 큰 장애로 되고 있었다.

사회주의 건설과 인민들의 보다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여야 하였다. 쓰딸린 대원수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아갈 길은 소규모적이고 분산적인 농촌 경리를 공동 경작의 기초 우에서 대규모적이고 련합된 농업에로 넘어가는데 있으며 새롭고 고상한 기술의 토대 우에서 집단적 경작에로 넘어가는데 있다. 나아갈 길은—……소규모적 농민 경리를 점차로 꾸준하게 강제로가 아니라 실증하고 설복시키는 방식으로써 대규모적 경리에로 넘어가는데 있다. 다른 출로는 없다』。

농업의 전반적 집단화를 준비하면서

사회주의 一〇월 혁명과 함께 레닌—쓰딸린 당에 의하여 농업의 집단화는 꾸준히 계획되였다。 공청은 농업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의 전 단계에 있어서 당의 헌신적인 방조자였다。 공산당에 가장 충직한 공청은 자기의 수백만 공청원들을 농업 집단화를 위한 투쟁에 조직 동원하였다。



당이 전반적인 집단화 로선을 취하기 휠씬 전부터 공산당원들의 지도 밑에 농촌의 공청원들은 농민들의 생활에 닥쳐올 위대한 전환을 위하여 농민들과 청년들을 준비시켰다。 공청원들은 당과 쏘베트 정부의 정책을 꾸준히 농민들에게 해설하였으며 실지 시범과 완강한 선동을 통하여 집단 경리만이 부농의 압박과 흉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공산당원들과 함께 그들의 지도 밑에서 공청원들은 농촌에서의 모든 사회적 사업의 발기자로 나섰다。 공청원들은 농민들 사이에서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용감하고 정열적인 그들은 무지와 비문화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농촌에는 농촌 청년 학교、도서실、농업 기술 크루쇼크、문맹 퇴치 크루쇼크 등이 창설되였다。 공청원들의 도움으로써 수십만명의 농민들이 글 쓰기와 읽기를 배웠으며 사회적 생활에 참가하였다。 청년들은 파종 면적의 확대를 위하여、기계와 현대 농학 기술의 능숙한 리용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당의 호소에 의하여 수백 수천명의 공청원들이 솔선 우량 종자를 파종하며、광물질 비료를 사용하였다。 구락부와 도서실에서 공청원들은 농학자들의 방조 밑에 선진적 농학 기술의 우월성에 관한 담화를 하였으며 각종 농업 문제에 대하여 농민들에게 대답을 주었다。 볼로꼴람쓰끄군 다닐로브까촌에서 공청원들은 처음으로 륜작을 실시하였으며 우량 종자를 파종하고 고랑이 넓은 파종기를 사용하였다。 얼마되지 않아서 전 다닐로브까촌은 륜작 순환 파종을 실시하였다。 높은 수확을 거둔 것을 본 농민들은 새로운 작업 방법을 알기 위하여 이곳에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곧 이곳에는 첫 조합이 창설되였다。 공청원들은 꼴호즈의 전신 형태인 토지 공동 경작 조합 조직에서 당을 도왔다。 쏩호즈、토지 공동 경작 조합、선진적 농업 기술을 적용한 모범 경작지—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적 농업으로써만 달성될 수 있는 그 성과를 농민들에게 명백하게 시위하였다。

위대한 전환의 시기에

一九二七년 一二월에 열렸던 력사적인 전 련맹 공산당(볼쉐위크) 제一五차 대회는 농촌 경리의 집단화를 전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모든 공청 단체들과 공청원들은 당의 결정 실행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공청 단체는 꼴호즈의 강화와 부농에 대한 공격에서 당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계급적 원쑤들은 잔인하게 저항하였다。 쏘베트 국가에서 마지막 착취 계급인 부농들과 부농 지지자들은 여유 량곡을 국가에 팔 것을 거부하였으며 꼴호즈원들을 반대하여 농촌에서 당 및 쏘베트 일꾼들을 반대하여 테로를 감행하였으며 꼴호즈 건물들과 국가 량곡 창고에 방화하였다。

계급적 원쑤들은 『꼴호즈는 농민들에게서 소와 말과 농기구를 빼앗는다』고 거짓 선동하며 집단화의 발전을 방해하며 농민들을 놀래우려고 발악하였다。 적지 않은 공청원 열성자들이 원쑤들에 의하여 살해되였다。 당은 一五차 당대회의 결정을 실천하면서 부농들에 대한 결정적 공격을 전개하였다。 당의 지도 밑에 공청원들은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과 인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확신 있게 내다 보면서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히 뚫고 영웅적으로 행동하였다。 공청원들은 농민들 사이에서 당의 정책을 꾸준히 해석 선전하였다。 공산당원들과 함께 공청원들은 쏘베트의 모든 곳에서 꼴호즈 조직의 선구자로 나섰다。 수천명의 공청원—선동원들은 농민들의 생활에서의 위대한 전환의 의의를 농민들에게 해설하였으며 그들을 꼴호즈에 인

입하였다。 一九二九년—三〇년 끌호즈에로 농민들의 대중적 가입 운동이 전개되였다。 농민들은 개별적 그루빠가 아니라 전 지구 단위로서 끌호즈에 들어왔다。 전면적 집단화와 계급으로서의 부농 청산에 관한 쓰딸린적 정책은 농민 대중을 사회주의적 농업의 길에로 전환시켰다。

공청원은 뜨락또르에로!

사회주의 공업은 농촌에 다량의 새 농업 기계들을 제공하여 주었다。 날이 갈수록 공장들은 더욱 더 많은 뜨락또르를 생산하였다。 쓰딸린 대원수의 표현에 의하면 뜨락또르—이는 대포인바 이것은 낡은 부르죠아 세계를 폭파하고 농촌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제도에로의 길을 닦아 놓았다。

전국적으로 『공청원은 뜨락또르에로!』라는 구호가 울려 펴졌다。 북깝까즈에서 중앙—흑토주에서、우랄에서 공청원들은 새로운 기계들을 연구하였으며 첫 뜨락또르 간부들을 양성하였다。

一九二七년 로스또브 거리에는 三〇대의 뜨락또르의 첫 대렬이 행진하였다。 행렬에는 처녀 공청원 운전수들의 얼굴이 뵈였다。 많은 군중들이 첫 뜨락또르 운전수들을 환영하여 꽃다발을 안겼다。

공청은 기계 뜨락또르 임경소 사업을 위하여 一三、〇〇〇명의 청년 남녀들을 이에 파견하였다。 그들의 많은 부분은 사회주의적 농업의 골간인 기계 뜨락또르 임경소의 뜨락또르 운전수로 되였다。

끌호즈 전야는 물론하고 버림받던 처녀지와 휴간지들이 이들에 의하여 개간되였다。

끌호즈의 조직 경제적 공고화를 위하여!

공산당은 농촌에서의 공청 사업을 주의 깊게 보살폈으며 그를 잘 지도하였다。 一九二九년 一二월 전 련맹 공산당 (볼쉐위크) 중앙 위원회는 경제 건설에 농촌 공청 단체들이 참가할 데 대한 문제를 심의하였다。 당은 집단화와 끌호즈를 강화할 데 관한 사업을 전개할 것을 공청에 제기하였다。 전체 농촌 공청 단체들과 공청원—청년들은 자기 앞에 부닥치는 모든 난관과 애로를 용감하게 극복하면서 당의 호소를 실천하는 적극적 투쟁을 전개하였다。

一九三〇년에 전 련맹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는 농촌에서 끌호즈 경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二만명의 공청원들을 끌호즈 경리원으로 파견하였다。 그들에게는 끌호즈에서의 모범적인 계산을 확립할 것이 위임되였다。

다수확을 위한 운동은 농촌 공청 사업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하였다。 당 단체의 발기에 의하여 끌호즈에서는 돌격대 운동과 사회주의 경쟁 운동이 광범히 보급되였다。 끌호즈、쏩호즈、기계 뜨락또르 임경소내의 청년들은 첫 공청 돌격대를 창설하고 호상 경쟁을 조직하였다。 수천의 공청—돌격 작업반들은 높은 수확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그들은 종자를 정선하였으며 전야에 비료를 운반하였으며 기계의 검열을 실시하였다。 공청원들은 끌호즈의 가축 사양에 각별한 로력을 경주하였다。 공동적 축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촌 공청은 수백만개의 마초 저장소를 만들었다。 一九三〇년간에 三五〇만톤의 마초가 저장되였다。

쏘베트의 가장 궁벽한 지대에서도 새로운 생활을 맞이하여 힘차게 일어섰다。 이곳에서도 공청원들은 집단화와 다수확을 위한 대중적 투쟁에서 모범을 보이였다。 다수확을 위한 운동 기간에 아르마비르 지구에서 공청원들은 공청 뜨락또르대를 조직하고 七대의 뜨락또르를 구매할 돈을 수집하였다。 까자끄 촌락에서는 농기구 수선에 종사하는 三六개의 공청 작업반과 알곡 정선을 위한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一九개의 작업반이 조직되였다。 여기에서는 七개의 끌호즈들이 공청원들에 의하여 결성되였다。 아제르바이잔의 五개의 커다란 군에서는 보습 공청대가 조직되였다。 보습 공청대는 빈농과 붉은 군대 가족과 끌호즈에 원조를 주었다。 보습 공청대는 모든 일을 무보수로 하였다。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농촌 경리에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 적용하는 선구자로 나섰으며 매년 높은 수확을 위하여 혁신적으로 투쟁하였다。

一九三一년에 전 련맹 공청 수확 보호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해에 공청이 진행한 잡초를 방지하는 전 련맹적 운동은 중요한 의의를 가졌다。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해충과 한발과의 투쟁의 발기자로 나섰다。 청년들은 새관개 공사에 나섰으며 못을 팠으며 밭을 보호하기 위한 나무들을 심었다。

농촌 공청 단체들은 끌호즈내에 강한 질서와 규률을 확립하기 위하여 거대한 로력을 경주하였다。 농촌 공청은 끌호즈 청년들 사이에서 그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자본주의 사상 잔재를 반대하여 결정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완강하고 인내성 있게 정치 교양 사업을 진행하였다。 전야에서、구락부와 도서실에서 광범한 청년들과 농민들을 위한 강연 담화들이 수시로 조직되였으며 청년들의 연극 공연과 감상회、토론회들이 활발히 전개되였다。 공산당원들과 공청원들의 실지 행동상 모범은 끌호즈 농민들과 청년들의 교양 사업에서 커다란 교양적 의의를 가졌다。

낡은 의식 잔재와 관습을 퇴치하기 위한 투쟁은 가맹 공화국들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졌다。 왜냐 하면 그것은 봉건 잔재가 아직 이곳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급적 원쑤들과 그의 협조자들은 새로운 진보적인 모든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완강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희생도 공청원들의 전진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였다。 사회주의 조국과 당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자기 임무 실행에 대한 높은 자각심은 그들을 더욱 고무 격려하였다。

공청 단체들은 당 단체의 지도밑에 집단적 규률의 정신과 공동적 로동에 대한 자각과 끌호즈 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갖도록 끌호즈 농민들과 청년들을 꾸준히 가르쳤으며 쏘베트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어떠한 곤난이라도 용감하게 극복하는 불굴성의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하였다。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였다

레닌은 공청 三차 대회에서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공산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다。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알아야 하며 과학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알기 위하여서는 배워야 한다』하고 쓰딸린은 레닌 공청 제八차 대회에서 교시하였다。

당이 제시한 거대한 문화 혁명 사업에 참가하면서 공청은 레닌、쓰딸린의 교시를 훌륭히 실천하였다。 기술을 소유한 볼쉐위크적 새 간부 양성에 대한 국가의 요구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교육 교양에 대한 공산당과 정부의 두터운 배려에 보답하고저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일어섰다。『과학의 요새를 전취하라!』라는 구호는 전체 청년들에게 침투되였다。 농촌 공청 단체들은 농촌 경리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킴에 있어서 당을 더 훌륭히 돕기 위하여 공청원들과 끌호즈 청년들의 지식 수준을 높이며 새로운 영농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각종 통신 학교들과 야간 학교들에서 공청원들은 배우면서 일하였다。 각종 농업 기술 크루쇼크는 농촌 청년들의 기술 습득에

위대한 쏘련을 향하여 배우자

큰 방조를 주었다。 공청의 발기에 의하여 구락부와 도서관들이 전 군중적 운동으로 창설되였으며 운영되였다。

수많은 공청원—청년들 속에서 볼쉐위크적!전문가의 새 간부들이 자라났다。 청년들의 문화 수준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갔다。 각종 문예 써클에서 공청원들은 핵심적 역할을 놀았으며 이들 속에서 새 시대의 젊은 문학 예술가들이 자라났다。

× × ×

공산당은 꼴호즈 건설에서 공청의 참가를 높이 평가하였다。 一九三〇년 一월 전 련맹 레닌 공청 제九차 대회에서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위임에 의하여 엘·엠·까가노위츠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공청은 우리 건설에서 실제적 방조자이였다。 당 세포가 없었던 농촌 지대에서 공산 청년 동맹은 방조자、집행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꼴호즈를 위한 투쟁에서 주도자의 역할을 놀았다』

이렇듯 당의 옳은 지도 밑에 공청원들과 청년들은 쏘베트 조국의 믿음직한 주인공으로 자라났다。

쏘련 예술 영화

후보 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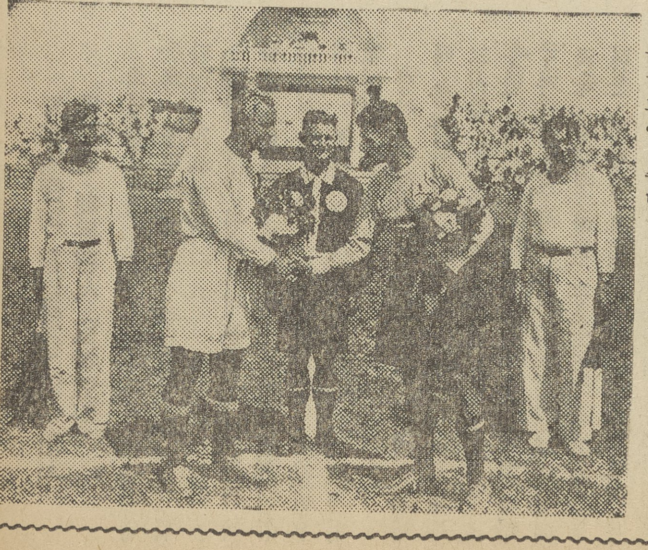
천연색 예술 영화『후보 선수』는 체육 희극 영화이다。 관중들은 이 영화를 통하여 쏘련 청년들의 혁명적 락천성과 쏘련 운동 선수들의 고상한 동지애、그리고 집단 생활에서의 청년들의 발전 면모를 시종 웃음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단란한 로동자의 가정인 웨쓰느슈낀의 집안은 축구 일가라고 불리울 만큼 축구에 관심이 크다。 영화의 주인공 싸샤와 와샤의 형제는 레닌 그라드 라디오 제작 공장 소속 "푸른 화살" 축구팀의 선수이며 그의 어머니도 이름난 축구 애호가이다。

형 싸샤는 축구팀내의 중요 선수로서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나 고집이 세고 좀 거만하다。 그의 동생 와샤는 후보 선수였으나 투지력이 강하고 풍부한 발전성을 가진 솔직하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화면은 "푸른 화살" 팀이 직업 총동맹 우승 쟁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남방 항로에 올랐을 때 그들이 려객선에서 만난 사람들인 영화 배우、작곡가、학자、신문 기자들이 자기들이 처한 각양한 직업과 생활이 지어준 흥미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등장하여 사건을 풍부히 한다。

와샤 형제와 나중에 와샤의 애인으로 된 녀자 체조 선수인 왈랴、그리고 로 학자와 영화 배우 제두슈낀 등이 배우에서 즐기는



희망찬 생활의 장면들은 언제나 젊은 그대로인 쏘베트 인민의 고상하고 생신한 품성을 뵈여 준다。

이 영화는 "몸과 함께 마음도 젊어지라" 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영화는 웨쓰느슈낀 형제의 체육 선수 생활을 통하여 단체 경기란 어느 개인의 우수한 기술로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계통성 있는 집체적 기술 여하에 달렸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또한 유능한 일꾼들은 언제나 용감하게 등용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뵈여 준다。

쏘베트 문학 예술과 조선 청년

리 허 구

쏘베트 문학과 영화 예술은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원칙 우에 튼튼히 서 있다。 이것은 그로 하여금 거대한 형상적 인식 작용과 사회 개조의 힘을 가지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쏘련 공산당은 근로자들、특히 그의 젊은 세대들의 정치、도덕적 교양을 위한 부문에서 쏘베트 문학 예술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쏘베트 청년들은 그를 "생활의 안내서" "혁명의 전투적 교과서"로 여기고 있다。

쏘베트 문학 예술은 비단 쏘베트 청년들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 애호 청년들과 함께 조선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나라에 이미 번역 출판되였고 또한 영화로도 널리 보급된 느·오쓰뜨롭쓰끼의『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고·씨모노브의『우리 도시의 청년들』므·알리게르의『조야』아·파제예브의『청년 근위대』브·뽈레보이의『참된 사람의 이야기』및 기타 우수한 문학 예술 작품들이 이에 대한 뚜렷한 표현으로 된다。

이 작품들에 형상화된 청년 주인공들—투사들은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혁명의 리익에 대한 무한한 충직성、고상한 국제주의 사상、굴할 줄 모르는 용감성과 인내성、규률성과 성실성、집단주의 정신과 깊은 동지애、그리고 혁명적 락관주의의 거대한 모범으로써 우리들을 크게 감동시키며 옳바르게 교양하고 있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의 주인공 빠웰·꼬르챠긴의 형상은 오늘 평화와 민주와 공산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싸우는 불굴의 투사의 상징으로 되였다。 때문에 이 작품은 오늘 쏘베트 청년은 물론 중국과 조선、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와 기타 세계 각국의 진실하고 애국적인 모든 진보적 청년들 속에서 애독되고 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바로 생이다。 생은 사람에게 있어 한번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적없이 산 지난 여러해 때문에 치욕을 맛보지 않도록、그리고 림종에 있어서도 생과 모든 힘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인류 해방을 위한 투쟁에 바쳤다고 긍지를 가지고 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꼬르챠낀의 이 말은 오늘 조선의 수 많은 청년 독자들의 생활과 투쟁 속에 살고 있으며 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쏘베트 문학 예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인상과 강력한 교양의 힘은 그 작품의 주인공들이 품은 위대한·애국주의 정신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이 가진 애국주의 정신의 힘—이것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三년간의 가혹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우리 나라가 낳은 무수한 청년 영웅들, 적 화구를 자기 가슴으로 막은 김 창걸, 김 옥근, 박 석봉과 같은 수많은 조선의 마뜨로쏘브와 조 옥희와 같은 조선의 조야, 조선의 청년 근위대, 소년 빨찌산들은 조국 해방 전쟁이 발발되였을 때 쏘베트 청년이 뵈여 준 모범을 서슴치 않고 따랐다。

「조야」「마뜨로쏘브」「청년 근위대」등에 나오는 쏘베트 청년 영웅들의 모범이 우리 나라 청년들의 심장을 격동시켰고 조국을 위하여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명백히 가르쳐 준 것이다。 쏘베트 나라가 팟쇼 도배들의 침략을 받았을 때 「너는 무엇으로 전선을 방조하는가?」라는 「포스타 옆을 태연히 지나갈 수 없군요」라고 괴롭게 말하는 조야, 타버린 집들과 공포에 떠는 어린애를 보고 「나는 아직 원쑤를 복쑤하지 못했다」라고 자기를 몹씨 원망하는 병사 마뜨로쏘브, 그리고 한 독일 팟쇼 병사가 쏘베트 조국을 모욕할때 「투쟁할지언정 노예로 되지 않으련다」고 결심하고 「어머니 뭘 울어요? 전 적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없어요。 전 조국을, 당신들 모두를, 친애하는 어머니를, 지어는 생명까지 사랑해요。 그러니 죽는단들 어때요?…전 제 책임을 다해야겠서요……」라고 말하면서 어머니와 리별하는 올레그·꼬쉐보이의 형상들이 우리 조선 청년을 주저함이 없이 원쑤 격멸, 조국 방위의 성전에로 고무하였으며 대중적 영웅주의에로 고무하였다。 가렬 처절하였던 三五一 고지 전투에서 적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전우의 돌격로를 열어준 공화국 영웅 김 용택은 출격을 앞둔 공개 세포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토론하였다。

「난 입대후…영웅 전투기 특히 마뜨로쏘브들의 전투기를 몇번씩 읽고 연구했습니다。…나는 당원 동지들의 뒤를 따라 영웅성을 발휘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함으로써만 당원의 영예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맹세를 실행하였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의 생명력은 그가 이러한 영웅적인 희생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청년들에게 확신시키고 있는데 있다。

쏘베트 문학, 영화 작품들은 이 열렬한 애국주의 정신이 고상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에 있다는 것을 선명히 뵈여 주고 있다。「우리 도시의 청년」의 주인공 루끄닌의 형상을 례로 들어 보자。 그는 쏘베트 시대에 자랐고 레닌 공청에 의하여 교양되였다。 당과 조국의 요구는 그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신성하며 절대적이다。 혁명의 리익이 그것을 요구하였을 때 서슴치 않고 그는 땅크병이 되였으며 사랑하는 도시와 애인을 떠나 서반아 인민을 원조하려 갔으며 할힌-골에서 몽고 인민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왔다。 그리고 인류와 인간 량심의 원쑤인 팟쇼 도배가 조국에 쳐들어 왔을 때 그는 「안된다! 너희들이 발들여 놓을데가 아니다。 여기는 전세계 근로자들의 고향이다!」라고 웨쳤다。 그는 자기 자신이 말한 바와 같이 「자, 여기에 우리들의 자유를 위하여 죽은 로씨야 청년이 있소 하고 중국말로, 불란서말로, 서반아말로, 내가 가는 그 모든 나라의 말로 사람들이 말하게 되도록」항상 준비된 현대 쏘베트 청년들의 고상한 국제주의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 이러한 사상이 그를 중상을 입고서도 적의 포위망에 들은 자기 땅크 부대를 구출하는 간고한 전투에로 들어가게 하여 주며 끊어진 다리를 「독수리처럼」뛰여넘고 적의 심장부로 돌입하는 애국적 위훈에로 고무하고 있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들은 이러한 영웅적 행동이 혁명적 집단주의 정신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다。

오늘 우리 나라 청년들이 집단에 대한 사랑,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자기를 준비시키는 것은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이 이 요구에 훌륭한 대답을 주고 있다。 그의 주인공들은 자기가 가장 곤난한 처지에 처하였을 때에도, 우선 자기 민족의 운명과 동지들의 전투 정형을 걱정하며, 집단을 위하여 살겠느냐? 개인을 위하여 살겠느냐?라고 결정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에는 서슴치 않고 원쑤를 격멸하고 조직을 옹호하며 자기의 생을 희생하고 동지들의 비밀을 옹호하는 것이다。

「"청년 근위대"에 대해선 나를 심문하지 말라。난 한마디도 말할수 없다。 그리고 너희놈들이 알아야 할 것은 쏘베트 청년이란 어느 때나 너희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을 때에도 우린 서서 죽는다。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다, 알겠느냐? 난 너희놈들을 몹씨 경멸한다。 우린 너희들과 더 말하구 싶지 않다。 한마디 할 것은 장래 피하지말라, 우린 꼭 네놈들을 찾아 내구야 말테니까。 그때엔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같이 최후의 심문시에 원쑤에게 말하는 꼬쉐보이의 이 장엄한 힘은 어데서 솟아나왔는가? 그것은 집단의 힘에 원천을 두었던 것이다。

우리의 집단주의 정신은 일상 생활이나 전투 행정에서의 동지적 우애에서 표현된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들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혁명적 동지애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자기의 생, 죽음, 기쁨, 아픔, 쾌락을 동지들의 그것과 밀접히 결부시켰을 때, 극복하지 못할 난관이 없다는 것을 뵈여주고 있다。 동지애의 기초에는 반드시 국가의 리익, 당의 리익이 선차적으로 놓여 있어야 한다。

또한 남녀간의 고상한 동지애의 하나인 우리 시대 청년들의 사랑에 대하여서도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한 문제는 그가 개인의 사업과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리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옳은 관점을 수립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들은 남녀 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대한 리해의 공동성, 목적의 일치성, 호



조선 청년들 속에서 애독되고 있는 쏘련의 문학 작품들.

상존경과 신임과 방조에 기초한 동지적 관계, 성실성과 의무감 등에 립각한 고상한 감정을 두고말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그들 남녀간에 있어서는 사랑 그 자체가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빠웰·끄르챠긴이 공청원을 멸시하는 자기의 첫 애인 또냐에게 『만일 내가 우선 너에게 매이고 다음에 당에 매인다면 나는 나쁜 남편이 될게다. 나는 우선 당에 매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매여야 한다』라고 말한 바와 같이 진정한 사랑은 당과 조국과 인민의 리익을 선차적으로 옹호하려는 두 사람의 결의가 있을때 산생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맺어진 사랑은 견고하고 영원하며 생에 대한 의욕과 사업에 대한 욕망을 자아내는 것이며 위훈에로 사람을 고무한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들의 또 하나의 교양적 힘은 그 주인공들의 강의성과 백절 불굴의 인내성이다. 공화국 영웅 조 신형은 파제예브의 작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조국의 준엄한 시기에도 이 책을 손에서 떼지 않았으며 이 책의 주인공들의 모범을 따라 실제 행동하였다』.

이러한 강의한 성격을 우리는 『참된 사람의 이야기』의 주인공 알렉쎄이·메리씨예브에게서도 배웠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영웅의 불요 불굴의 의지와 용감성, 대담성, 성실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다만 작품이 발표된지 一년만에 저자인 뽈레보이에게는 물론 작품의 주인공인 마리씨예브(이 작품은 실제 있는 사건을 취급했고 따라서 주인공의 이름도 현재 살아 있는 쏘련 영웅 『마리씨예브』를 『메리씨예브』라고 한 글자만을 바꿔 놓고 있다)에게 쏘련과 국외의 각처로부터 二만 수백통이나 되는 편지가 쇄도했다는 사실만 들어도 충분할 것이다.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의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제마는 로동이다. 우리 나라 청년들은 출판물과 영화를 통하여 전선의 승리를 위한 후방의 로력 전선에서 쏘베트 사람과 공청원들의 희생적인 로동과 동지애를 취급한 웨·아자예브의 『모쓰크바를 멀리 떠러져서』, 전선으로부터 돌아가서 농촌 경리의 복구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로력에서도 영웅적 위훈을 세우는 청년 쎄르게이·뚜따리노브를 형상화한 쓰·바바예브쓰끼의 『금별의 수훈자』, 로씨야 로동 계급의 영광스러운 혁명적 전통과, 로동, 학습, 가정, 사랑에 대한 쏘베트 청년들의 옳바른 태도를 뵈여 주는 웨·끄체또브의 『주르빈 일가』(영화 제목은 「대 가정」) 끌호즈 내에서의 생산 질서의 확립, 증산 투쟁, 공유 재산의 애호를 위한 공청원들의 역할과 로동과 사랑과의 관계를 해명하여 주는 그·니꼴라예바의 『수확』(영화 제목은 「와씰리·보르뜨니끄브의 귀환」) 및 기타를 잘 알고 있으며 사랑하고 있다. 이 작품들에 나오는 긍정적 주인공—청년들의 품성에서 고유한 특성은 로동에 대한 자각적인 태도, 난관과 고난 앞에서 두려움을 모르며 모든 힘 온갖 지혜를 다하여 조국의 물질적 부를 증대시키고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열렬한 애국심, 경제 계획을 초과 완수하며, 창의 창안을 내놓으며, 로동 규률을 준수하며,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려는 부단한 지향,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하며,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당하며, 부모와 로인에 대하여 존경심이 깊은 것 등이다. 이러한 고상한 품성이 오늘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과 사회주의 기초 축성을 위하여 궐기하고 있는 우리 나라 청년들에게 빛나는 고무적 모범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위대한 브·이·레닌

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없는 모범의 힘은 토지와 제조소에 대한 사적 소유가 폐지된 사회에서 거대한 힘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우리의 인민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정치 및 경제 분야에 있어서 쏘련의 모범을 본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들이 쏘베트 문학 예술에 형상화된 젊은 영웅들의 모범을 따랐을 때에 그것은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을 추진시키는 실로 거대한 물질적 힘을 낳게 할 수 있다.

조선 청년들은 우수한 쏘베트 문학 예술 작품에 형상화된 쏘베트 청년들의 모범을 따라 자기를 로동당이 부르는 위업, 즉 평화와 인류의 해방 그리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 독립과 공화국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기초의 축성을 위한 투쟁에 보다 더 훌륭히 복무할 수 있고 영웅적 공훈을 세울 수 있는 혁명 투사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고 있다.

쏘련 예술 영화

호랑이를 다루는 처녀

천연색 예술 영화 『호랑이를 다루는 처녀』는 곡예단에서 시중하는 평범한 처녀 례나 워론쪼와가 어떻게 호랑이를 손쉽게 다루는 곡예 배우로 되는가를 뵈여 준다.

례나는 어릴적부터 단순하고 좋은 청년인 뻬쨔 모낀과 친하여 진다. 뻬쨔의 우정은 점차로 처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으로 자란다. 그러나 례나는 그것을 알아 차리지 못하고 자기 지향하는 바에 가까운 표도르 에르몰라예브를 만나게 되자 그에게서 첫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와 동시에 례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력과 견인성으로서 그의 숙망이였던 곡예 배우를 하게 된다.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례나의 성격은 자기의 소질과 취미를 정확히 타산하고 자기가 선택한 길에 온갖 정열과 로력을 바친다면 자기가 가진 리상은 훌륭히 실현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이 영화는 지혜와 대담성을 요구하는 곡예단의 매력 있는 사업을 사건의 기본 무대로 삼고 있다. 영화에서 사랑과 우정의 제마를 전개하면서 쏘베트 청년들의 락천적 생활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희망찬 로력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을 감동시켜 준다.

영화 『호랑이를 다루는 처녀』는 이미 우리 나라에 많이 알려진 영화들인 『뜨락또르 운전수』, 『축구의 시절』 『씨베리야 대지의 곡』들의 작가로서 로력 적기 훈장과 쓰딸린 상 一급 및 영예 훈장들을 수여 받은 작가 예·뽀뮈쉬끄브와 까·민쯔와의 합작으로 되여 있다.

주인공 례나 워론쪼와로 분장한 엘·까쌈끼나는 一九四七년에 쏘련 연극 대학을 졸업한 무대 배우로서 이 영화를 통하여 그는 처음으로 영화에 출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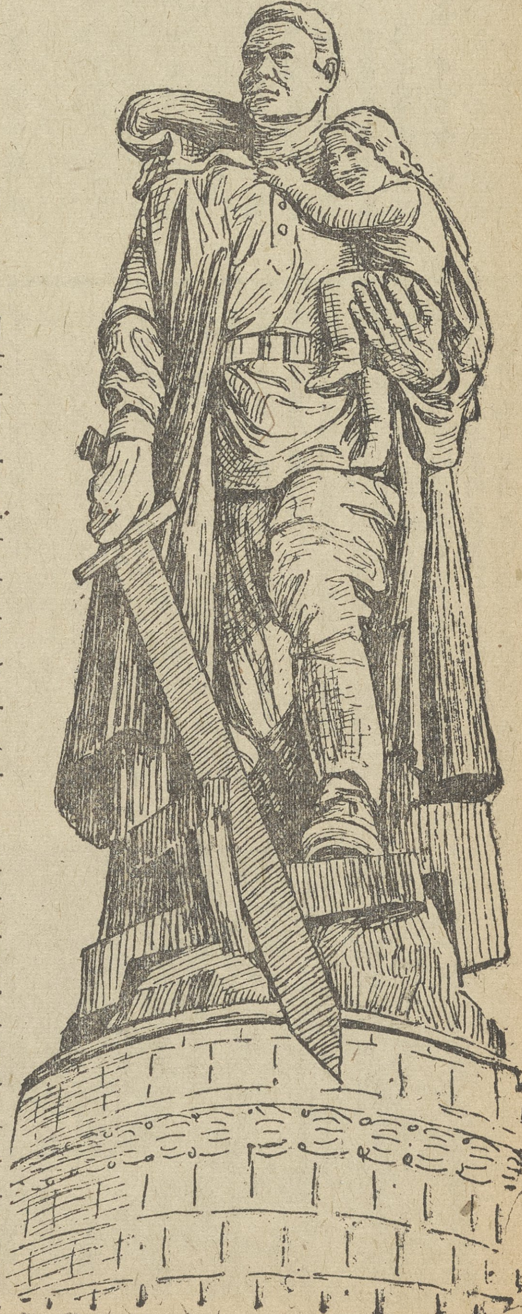
영화 『호랑이를 다루는 처녀』는 단순한 줄거리에 명랑한 유모아와 지혜 있고 특출한 락천성을 가진 영화이다.



쏘베트 군대의 고귀한 풍모

륙군 중좌

므·일리인



베를린시 트레프톱 공원에는 큰 동상이 하나서 있다。 높은 대각 우에는 쏘베트 군대의 늠늠한 모습이 우뚝 솟아 있다。 동상의 머리는 아무 것도 쓰지 않은 채로 있다。 용사의 오른 손에는 팟쇼의 卍자를 찢어버린 무거운 장검을 들고 있으며 왼 손에는 미래의 행복한 인간을 뵈여 주는 해방된 어린 소녀를 안고 있다。 청동으로 만든 이 조각품은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불멸의 공훈을 세운 해방자인 쏘베트 군대의 고귀한 풍모를 상징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는 우리 인민의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이며 또한 우리의 자랑이다。 사회주의 국가의 보위를 위하여 창건된 쏘베트 군대는 바로 자기의 창건 첫날부터 전 세계에서 새로운 형의 군대로 출현하였다。 제국주의 자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부르죠아 국가의 군대와 다른 점은 그가 근로 인민의 리익의 초소에 서 있으며 쏘베트 인민의 창조적 로력을 보위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과 군대와를 떼여서 생각할 수 없다。 쏘베트 군대의 고상한 도덕적 품성—조국에 대한 충실성、로력에 대한 사랑、친선、동지애、친절성、성실성、—이는 우리 인민들의 품성이다。 쏘베트 군대의 매개 병사들은 전사에서 원수에 이르기까지 조국을 보위한다는 공통한 사상으로 결합되여 있다。



위대한 조국 전쟁 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무력은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고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라파 인민들을 히틀러 기반으로부터 해방시켰으며 세계 문명을 파시스트 략탈자로부터 구원하였다。 우리 군대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 수많은 동지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오직 제국주의 자들과 새로운 세계 전쟁의 방화자들만이 우리 군대를 달가워하지 않고 두려워 한다。

＊ ＊ ＊

공산당은 우리 조국의 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부단한 배려를 돌리고 있다。 당은 쏘베트 군대를 인민에 대한 충실성과 공산주의 위업의 사상으로 교양하고 있다。 팟쇼 침략자들과의 전쟁 시기에 있어서 쏘베트 륙 해군은 조국의 리익을 수호하는 믿음직하고 충실한 방위자로서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였다。

감탄과 자랑이 없이는 우리 나라의 보병、공군、땅크병、포병、공병、통신병들의 영웅적인 위훈을 상기할 수도 없다。 쏘베트 동맹의 三중 영웅들인 아·뽀끄릐쉬낀과 이·꼬줴두브 그리고 쏘베트 동맹의 영웅인 아·메리찌예브와 같은 조국의 용감한 방위자들의 이름은 전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군인들과 전체 쏘베트 인민들은 적과의 투쟁에서 승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은 보통 공청원인 근위병 알렉싼드르 마뜨로쏘브의 영웅적인 위훈을 커다란 긍지로서 회상한다。 마뜨로쏘브의 위훈은 조국 전쟁의 여러 전선에서 수많은 전사들에 의하여 반복되였다。

쏘베트 전사들의 고상한 전투—도덕적 풍모는 호상 원조에서와 전투마당에서 전사로서의 동지애 등에서 여실히 표현되였다。『자신은 죽어도 동지는 구출하라』는 쑤워로브의 귀중한 말이 륙해군 전사들의 법칙으로 되였다。

一九四三년 봄에 우세한 적군과의 공중전에서 H 부대의 분조 지휘관이 탓던 비행기가 격상되였다。 그래서 비행사는 적군의 점령 지대에 불의의 착륙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행사 제메힌은 목숨을 내 걸고 대담하게 바다 가운데로 가서 비행기를 파손시키고 자기는 동무의 뱃전으로 기여 올랐다。 이 공훈으로 인하여 제메힌은 쏘베트 동맹의 영웅 칭호를 수여 받았던 것이다。 전투의 가렬한 순간에 히틀러 군대의 탄환을 자기 가슴으로 막아 지휘관을 구원한 까푸르 마메도브의 공훈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지휘관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 부하를 구출한 그런 실례들은 얼마던지 있다。 군관 끼릴로브는 쏘베트 동맹의 영웅인 군의 드·므·까르븨쉐브 장군의 고귀한 행동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어느 때 한번 우리들은 쭉 늘여 놓은 독일놈들의 엄폐호를 빠져나가고 있었다。 몇 사람씩 그루빠를 지어 빠져 나가댔는데 까르븨쉐브는 부하인 다되쉐브와 빼뜨로브를 데리고 가고 있었다。 그런데 오솔길은 차단되여 그들이 숲속으로 깊이 들어 갔을 때 지뢰의 폭발에 부디치게 되였다。 다되쉐브는 배에 중상을 입었다。 그래서 빼뜨로브가 그를 업고 갈려고 했으나 그만 힘이 모자랐다。 그래서 붉은 군대 한사람과 장군과 둘이서 부상병을 부축해 가고 있었다。 그때 독일놈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대장 동무! 저를 남겨 두십시요」 하고 다되쉐브는 청했다。

「내가 죽기는 마찬가지인데、왜 당신은 나때문에 독일놈 한데 잡히겠습니까」

「괜찮네、 전 다음 의논 하세 나도 군대고 자네도 군대가 아닌가、그런데 군대들은 서로 전투에서 동무를 배반할

수는 없다네……」하고 까르븨쉐브가 대답하였다。

이러한 실례는 쏘베트 군대의 전사와 군관과의 사이에 있어서 새로운 동지애의 관계를 똑똑히 특징지어 주는 것이다。 전우로서의 충실성、 그리고 같이 싸우고 있는 전우들 중에서 위험한 순간이 닥쳐왔을 때 어느 한 사람도 그냥 내 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정신이 전사들로 하여끔 호상 신임을 자아내며 자기의 력량에 대한 신념과 더불어 부단히 씩씩한 사기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들은 마지막 숨결이 끊어질 때까지 군인 선서에 충실하다。 쓰딸린 그라드 교외 전투에서 공청원인 통신병 마뜨웨이 뿌찔로브는 불멸의 공훈을 세웠다。 지휘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그는 적들의 쏘아대는 탄환 속을 뚫고 전선이 끊어진 곳으로 기여 갔다。 그는 맨 처음 한쪽 팔이 상하고 다음엔 또 다른 팔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을 다하여 두 팔로 전선을 이었으며 아픈 것을 참고 견디면서 잇발로 상처를 눌으고 있었다。 이리하여 통신은 지체없이 보장되였던 것이다。

가장 위험한 순간을 앞두고 우리의 전사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용감성과 견인성을 발휘하군 하였다。 어느 한 전투 지역에서 파시스트 야수들은 부상당한 五명의 전사를 포로하였다。 이들로부터 군사 비밀을 탐지해 낼 목적으로 그들을 고문하기 시작하였다。 첫번째로 희생을 당한 것은 중사 쎄르게예브였다。 놈들은 포로에게 석유를 끼얹고 산채로 불을 질르며 위혁하였다。 그러나 그는 완강하게 침묵을 고수하였다。 그 다음에는 쎄르게예브의 눈알을 빼내였다。 드디여 그는 죽었으나 단 한마디의 말도 입밖에 내지 않았다。

형언할 수 없는 가혹한 고문을 받은 것은 전사 하리또노브이였다。 놈들은 그를 바늘판으로 쳐 몰았으나 그는 적에게 자기 부대에 대한 것을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 독일 장교놈의 질문에 대하여 전사 월로호는 갑자기 자기가 말을 할터이니 놓아 달라고 대답했다。 기뻐한 파시스트놈은 그의 손을 풀어 주었다。 월로호는 적에게로 바싹 다가가서 죽어라 하고 그놈의 관자노리를 후려 갈겼다。

『자 이것이 땅크다。 이것이 련대다!』하고 영웅은 소리치면서 히틀러 도배의 목아지를 눌으기 시작했다。

조국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브레스트 요새를 지키고 있던 소수의 방위자들은 二二일간이나 히틀러 대군과 영웅적인 전투를 진행하였다。 전투는 산사람이라군 한명도 남지 않았을 때에야 끝이 났다。 용감한 애국자들은 모두 전사하였다。 그러나 요새는 적에게 내주지 않았으며 끝까지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였던 것이다。

룩 해군 내의 공청원들은 전체 청년 군인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북부 함대의 선원 이와노브는 공청 가맹원서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비서 따르쩨브 동지를 수위로 한 공청원들이 어떻게 용감하고 대담하게 싸우는 가를 보았다。 나는 이 사람들과 같이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여들어 가겠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나를 전 련맹 레닌 공청의 맹원으로 받아 주기를 바란다。 나는 그의 대렬에서 영웅적인 공청원들과 함께 파시스트 야수들을 반대하여 투쟁하겠다」

이와 류사한 원서가 수천 수 만통이나 룩 해군 공청 단체에 들어 왔던 것이다。

력사는 지난 전쟁 시기에 있어서 독일의 도시와 마을에서 쏘베트 군대들이 그 나라 주민들에 대하여 사업한 수많은 고귀한 업적을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것은 전 세계가 알고 있다。

쏘베트 군대의 고귀한 풍모는 력사적

인 기념물과 독일 민족의 재산 및 세계 문화에 대한 취급에 있어서도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一九四五년에 독일 경내에서 전투를 진행하고 있던 당시 쏘베트 군대들은 드레스덴 병선의 고대 회화들과 그리고 전 인류의 문화 예술의 재산으로 되며 위대한 고전적 회화의 대표작으로 되는 수많은 작품들을 구출해 내였던 것이다。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여러 나라 인민들은 자기를 파시스트 예속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데 대하여 쏘베트 군대에게 영구불멸의 감사를 드리고 있다。 체코슬로바키야에서 보내온 어느 한 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당신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붉은 별의 표식을 그린 당신들의 천막과 화단이 있던 그 장소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애들에게 우리의 친애하는 해방자들과 손님들에 대하여、 로씨야의 붉은 군대들에 대하여 이야기 해 줍니다」

* * *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는 우리 나라의 국방력을 강화하며 쏘베트 룩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할 데 대한 커다란 배려를 돌리고 있다。

위대한 조국 전쟁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우리 군대들은 자기의 전투 기능의 제고와 현대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새로운 수법과 방법들을 계속 부단히 연구하고 있다。 전투할 때와 거의 같은 복잡한 환경과 조건에서 그리고 또한 어떤 일기에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낮에도 밤에도 전사들은 군사 예술을 부단히 학습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에 진행된 룩해군들의 군사 훈련들은 우리 전사들의 고상한 전투 훈련인바 그들이 새로운 군사 기술에 정통함으로써 그를 직접 전투마당에서 능숙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쏘베트 군대의 고귀한 풍모는 복무와 동지와의 관계 등 평상시의 생활에 있어서도 표현되고 있다。 카스피해의 적기 함대내 해원들 속에는 오랫 동안 근무하고 있는 해군 소위 아·하리또노브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특출한 공훈으로 인하여 그는 다섯개의 『영예 포병』휘장과 두개의 기명 시계를 룩 해군 최고 사령관으로부터 받았으며 전 련맹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와 아제르바이잔 레닌 공청 중앙 위원회의 영예 휘장과 또한 상금도 받았다。 신망이 높은 아·하리또노브는 청년 해원들 속에서 해군 복무에 대한 기술을 부단히 전습시키고 있다。

평화 시기에 쏘베트 전사들이 자기의 신성한 맹세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군대들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더 한층 보존하고 빛나게 한 실례들은 수 천개라도 들 수 있다。

보통 전사인 아파나씨 가이다르릐와 쎄르게이 벨로우쓰는 보초를 서서 대상물을 감시하고 있었다。 점점 황혼이 질어져 갔다。 가이다르릐는 외등을 켜고 주의 깊이 어둠 속을 살펴 보면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보초의 예민한 귀는 들릴락 말락 하는 바스락 소리와 무슨 인기척 소리가 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가이다르릐는 바싹 정신을 차리고 두손으로 자동총을 힘껏 틀어 쥐였다。 문득 땅 밑에서 솟아오르는 것 처럼 사람이 불쑥 일어섰다。 그는 천천히 초소를 향해 곧바로 가고 있었다。

『섯!、쏜다!』 보초는 큰 소리로 웨쳤다。

사람은 우뚝 멎어서 두 손을 우로 쳐들었다。 그러더니 두팔을 늘그머니 아래로 내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초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필요한 처치를 받았던 것이다.

낯선 사람은 보초를 설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런데 동무! 어째서 저를 묶습니까? 나는 지금 일터에서 돌아오다 길을 헛들었습니다』

가이다르리는 보초실에 신호를 하였다. 이윽고 보초실에서 보초장이 나왔다. 억류된 그는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쏘베트 군대―이는 공민의 군대이다. 쏘베트 군대는 인민과 더불어 한마음 한감정으로 생활하며 무엇보다도 그들의 리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해군 특무 상사인 공청원 지오도르 씬쬬브가 작업을 끝마친 때였다. 문뜩 불타는 지독한 냄새가 그의 코를 찔렀다. 씬쬬브는 화재가 난 곳으로 뛰여갔다. 불길이 주택을 삼켜 버리고 세차게 창고로 타번지더니 옆에 있는 다른 국가 재산에도 달렸다. 위험을 무릅쓰고 씬쬬브와 그의 동무들―하사 모또린, 특무상사 구체랴브이 그리고 병사들인 쑤호루꼬브, 출라끄, 우쩬꼬브 및 기타 해군들이 불을 끄기 시작하였다. 불길은 씬쬬브의 얼굴에 부디치며 막 타올랐으나 그는 용감하게 불붙는 건물로 뛰여들어 불속에서 귀중한 재산들을 끄집어 내기 시작하였다. 그의 얼굴과 손들이 불에 거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불과 싸워 네살 나는 소녀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였다. 어린이를 찻간 안에 눕혀 놓았다가 해군은 다시 집으로 데려 갈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는 기진하여 그만 쓰러지고 말았다. ……해군 특무상사 씬쬬브가 근무하고 있던 그 부대의 해군들은 용감하고 대담한 군대에 대하여 엄숙한 마음으로 그를 추도하고 있다.

쏘베트 군대에게는 높은 경각성과 계속 부절한 전투적 준비가 요구된다. 매개 군무자들은 그가 어데 있던지간에―보초를 서건, 당직을 하건, 병사 안에서건, 전투 훈련에서건, 부대 청사 밖에서건 할 것 없이―그 어데서도 그는 경각성을 높여 자기의 군인 임무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쏘베트의 한 큰 도시에서 련합 사령부의 정문을 보위하고 있던 보초가 사령부 건물 바른편 유보도(遊步道)에 앉아 있는 어떤 사람에게 주의를 돌렸다. 보초는 그 사람이 손에 신문을 쥐였으나 읽지 않고 건물에서 들락날락 하는 군관들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 차렸다. 그 이상한 녀석을 구금하였다. 그는 쏘베트 무역 회사의 대표로서 가장하고 여러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나라 군대의 배치 정형을 탐지하려던 외국 간첩이라는 것이 판명되였다.

인내성, 용감성, 강인성 및 기타 승리를 쟁취함에 필요한 고상한 도덕적 품성이 단번에 배양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완강한 훈련과 곤난한 투쟁 속에서 점차적으로 교양되는 것이다.

……항행할 군함의 준비가 되였다. 호스들로 선창을 깨끗이 닦고 해군들은 식량을 실었다. 갑자기 초산을 넣은 통이 바다에 떨어졌다. 불안스러운 생각이 모든 사람을 휩쌌다. 만일 그 속에 물이 스며 들어가면 통이 폭발될 수 있다. 지휘관은 잠수부인 특무 상사 꾸츠마이를 불렀다. 그는 흐린 물 속으로 들어가서 재빨리 통을 찾아 가지고 그것을 살펴 보았다. 주둥이가 거꾸로 넘어졌는데 통은 거의 절반쯤 껍진한 흙 속에 박혀 있었다. 해원은 그것을 쳐들고 올라 오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그 때 그는 땅에 바줄을 늘이고 통의 목아지를 비끌어 맨

다음 배에 신호를 하였다. 통은 우로 들려 올라갔다. 이리하여 폭발은 방지되고 군함은 바다로 나왔다.

전체 우리 인민들은 쏘베트 군대의 성과를 주시하면서 우리의 영웅적 군대를 자랑한다. 이와 같은 감정은 사회주의로력 영웅이며 다수확 농민인 마르끄 오제르늬가 군대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찾아 볼수 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쏘베트 군대에 복무한다는 것은 커다란 자랑입니다. 세상에 우리 군대와 같은 그런 군대는 어데도 없었으며 또 없습니다. 나는 짜리 군대에 근무하면서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다 겪은 늙은 졸병입니다. 동무들을 위하여 고향 집과 같으며 훌륭한 학교와도 같은 그런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당신들이 무척 부럽습니다.

친애하는 동지들이여! 자랑하십시요. 아들들이여! 뽐내십시요. 쏘베트 군대에 복무하고 있다는 것을. 온갖 힘을 다하십시요. 그리고 우리들을 즐겁게 하십시요. 훈련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둔 위대한 우리 조국의 전체 근로자들의 늙은 병정을』

쏘베트 군대는 국제주의 사상과 전세계 근로자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정신으로 교양되고 있다. 우리 군대들은 전체 쏘베트 인민들과 같이 온갖 형태의 인종적 및 민족적 차별을 모른다. 이 특징은 우리 조국의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사들에게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은 이 나라의 인민들과 그들의 풍습과 제도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곤난할 때에는 그들을 방조하기도 한다.

우리 군대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독일의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화재를 끄고 고상한 인도주의를 발휘한 실례는 수 백개라도 들 수 있다.

경비 부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지방 주민의 집에 화재가 일어났다.

『나의 뒤를 따르라!』

중위 끄브춘이 휴식하고 있는 군대들에게 소리쳤다. 병사들이 화재 장소로 뛰여 갔을 때 벌써 불길은 그집 뿐만 아니라 린접해 있는 건물에 까지 휩싸였다. 집 주인은 잠근 문을 열려고 애썼다. 열쇠가 그의 손에서 부들부들 떨려 잠을쇠 구멍으로는 암만해도 들어가지 않았다.

『마인 무터, 마인 무터』(나의 어머니라는 뜻 역주)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군대들에게는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전사 아노힌이 창문을 기껏 쳐서 부수고 첫번째로 불 붙는 집에 기여 들어갔다. 그의 모범을 따라 다른 군대들도 그렇게 하였다. 방마다 매운 냄새가 가득차고 연기에 숨이 막히고 싯벍언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런데로 뚫고 들어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공청원인 아노힌은 집 안의 어느 곳에 농민의 어머니가 계시리라는 것을 알았다. 사람을 구원한다는 고귀한 기대가 그를 이렇게 인도하였다. 어느 한 문결에서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앉아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그 쪽으로 뛰여가서 할머니를 손으로 쳐들어 가지고 조심조심 사다리로 내려오기 시작하였다. 이 때 지붕 우에서는 다른 군대들이 헌신적으로 불을 끄고 있었다. 화재는 진정되고 농민의 재산은 거의 완전하게 구출되였다.

쏘베트 군대들은 이러하다.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하여 배려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고상한 인도주의는 어떤 평범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은 벌써 행동의 규범으로서 법칙으로 되였다.

쏘베트 륙 해군은 전체 쏘베트 인민과 더불어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의 주위에 굳게 뭉쳐 있다. 그들은 경각성 드높이 우리 조국의 안전의 초소에 서 있다.

『젊은 공산주의 자』六호에서

김 원필 역



—평북도 운전군 운하리 젊은 농업 협동 조합원들의 좌담회—

참 가 자

윤 제 (운하 농업 협동 조합 다수확 모범 농민 청년)
최 경숙 (운하 농업 협동 조합 모범 농민 청년)
리 종수 (소교 농업 협동 조합 모범 농민 청년)
김 상화 (하일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한 제대 군인)
리 위선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한 제대 군인)
강 명원 (지경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한 운전 고급 중학교 졸업생)
최 승화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한 운전 제一 초급 중학교 졸업생)
최 길원 (운하 농업 협동 조합 민청 분 초급 단체 위원장)
김 지후 (운하리 민청 위원장)

좌담회에는 이 외에도 운하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로동당 운하리 당 위원회 위원장 군 민청 위원장을 비롯하여 다수 열성 농민 청년、제대군인、초、고중 졸업생、민청 열성자들과 『청년 생활』 편집부 기자가 참가하였다。

시일—一九五五년 七월 一二일
장소—운하리 민주 선전실에서

본사 기자…오늘 저녁 동무들과 이렇게 한자리에 피여 앉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제 시책을 받들고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현재보다 청년들이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하여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서로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동무들이 농촌 생활에서 얻은 경험들과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하여 기탄없이 말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농촌에 튼튼히 자리 잡고 일하고 있다

김 상화…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난 六월에 인민 군대에서 제대되여 고향으로 돌아 왔습니다。

내가 고향에 와서 먼저 느낀 감상은 물론 군대에 있을 때에 후방 청년들의 편지라든가 여러 출판물을 통해서 발전하여가는 농촌의 면모를 대략 알고는 있었지만 오늘의 농촌은 어젯날의 농촌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의 고향인 하일 동네만 보더라도 八〇호의 농가 중 七二호의 농가가 협동 조합에 망라된 사실이라든가 또 새로운 영농 기술을 도입하여 농사 짓

는 방법도 개선된 것이라든가 모든 것이 알아 볼수 없으리만큼 발전을 하였습니다。

농촌에 돌아온 후 나는 조합원들의 위임에 의하여 하일 농업 협동 조합 제四 작업반에서 작업 반장의 책임을 지고 일하게 되였습니다。

작업 반장으로서 작업 반원들과 함께 전야에서 처음 일할 때 첫 인상은 작업 반원들이 규률이 없고 동작이 굼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때때로 작업 과정에 갑갑증이 나고 나의 성미에 맞지 않아서 빨리빨리 일하고 끝마치자고 작업반원들을 몹씨 서둘러 댔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되여 『작업 반장은 군대 생활에 습관되여서 그런지 성질이 너무 급해서 틀렸다』는 작업 반원들의 여론이 나에게 들려 왔습니다。 이것은 나의 겸손치 못한 태도에 대한 정당한 충고였습니다。 왜냐 하면 이는 생활 환경이 달라진 조건 하에서 농민들의 일손에 맞추어 그들과 일하지 않았기 때문이였습니다。 이렇게 일을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좋은 일이지만 지나치게 일을 빨리 하였기 때문에 얼마전까지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작업반원들에게 오히려 실증을 내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나는 작업 반장으로서 이런 부족점을 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한가지 더 말해야 될 것은 우리 제대군인들을 농촌에 튼튼히 자리 잡게 하며 사업 열의를 북돋아 줌에 있어서 생활을 안착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키웠습니다。

내가 군대에서 제대되여 하일 농업 협동 조합에 배치되였을 때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은 조합 실정과 조합 규약을 세세히 가르쳐 주었으며 리당 위원회를 비롯한 리 인민 위원회와 리 민청 위원회에서는 우리들을 위한 좌담회를 가지여 우리들이 제기한 식량 문제、신문을 구독할 데 대한 문제、기타 사소한 문제까지도 제때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지금 생활상 불편없이 협동 경리의 새 생활에 튼튼히 자리잡고 일하게 되였습니다。

리 위선…이제 김 상화 동무도 말씀하였지만 겸손하고 허심하게 배운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대에 복무하는 동안에 우리 자신들이 단련되고 발전된 것처럼 후방 인민들의 생활도 비할바 없이 발전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난 五월달에 군대에서 제대되여 지금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처음 농사 일에 다년간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써 자만하고 새로운 영농 방법을 배우는데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동 조합에 들어가서 정작 일해보니 현실은 나의 생각과는 판이하였습니다。 농업 협동 조합에서 농사 짓는 방법은 그전처럼 대강 눈짐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토양에 어떤 곡식을 심으며 어떤 곡식에 어떤 비료를 어떻게 시비하며 어느때 파종하고 어느때 추수하며 해충이 생겼을 때에는 어떻게 퇴치한다는 등 과학적 영농 방법에 의하여 모든 농사일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과거에 농사하든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현재 모르고 있는 새로운 영농 방법들을 열심히 배워서 농촌 경리의 새 능수가 되겠다는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강 명원…나는 금년에 운전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오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지경 농업 협동 조합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농사일에 착수하면서 느낀 감상을 말하기 전에 졸업을 앞두고 생각하였든 바를 먼저 이야기 하고저 합니다。

나는 초중 때부터 문학에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희망은 초중을 졸업한 다음에는 고중 그다음에는 김 일성 종합 대학 어문 학부에 들어가 문학가가 되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나에게는 문학가가 되려는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농사 일은 물론 기타 로동도 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고중을 졸업한 내

가 농촌에서야 어떻게 살겠는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마을 사람들이 나를 볼때 못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번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과 민청의 옳은 교양 밑에 나의 리상 문제를 재 검토하여 보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나는 쏘련 청년들의 고상한 품성과 애국주의적 행동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쏘련 청년들은 공산당의 호소를 받들고 화려하고 행복한 모쓰크바를 떠나서 먼 처녀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모범은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우리 나라 청년들이 본 받아야 할 행동이 아니겠는가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확실히 지난날 내가 국가의 현실적 요구는 망각하고 쓸데 없는 허영심과 개인의 리익에서 부터 출발하여 자기의 리상과 희망을 내 세웠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리상을 국가의 리익에 복종시키고 오늘 국가가 요구하는 농촌 경리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 헌신할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농사일을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을 말한다면 우리 졸업생들은 로동에서 단련되지 못하고 처음 농사일에 착수하니만큼 로동에서 강한 인내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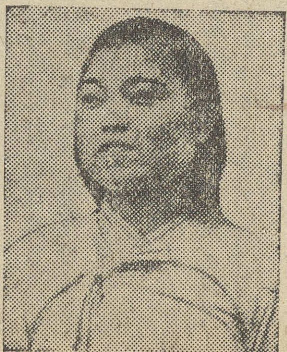
내가 지경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가서 처음에 논모도 하고 그후 논김도 매보니 며칠 동안은 허리가 아프고 온 몸이 매맞은 것 처럼 빠근하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극복하면서 한달을 지냈습니다. 그후 지금에 와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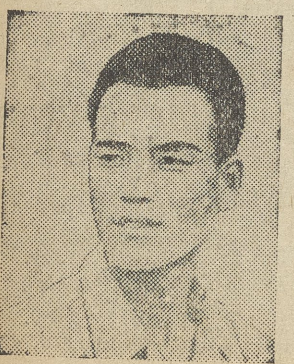
그러나 아직도 나에게 있어서 좀 부족되는 것은 작업 동작이 서틀어서 작업 능률이 잘 오르지 않는 것이 탈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농사 일에 익숙한 농민들의 솜씨를 부즈런히 하나하나 배워서 훌륭한 젊은 농사꾼이 되기 위하여 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도 농촌으로 진출한 우리 졸업생들에게 있어서 겸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물론 농촌 민청원들의 수준 보다 좀 높습니다. 나는 이런데로부터 자신을 쓸데없이 내세우면서 민청원들과 잘 어울리지 않았으며 민청 초급 단체 위원들을 깔보며 그들이 일하는 것을 비웃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내가 지경 농업 협동 조합에서 민청 생활을 시작한 며칠 후였습니다. 『학교 졸업생들은 민청 생활을 잘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하는 일을 비웃기만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후 나는 나의 잘 못을 반성하고 민청 초급 단체 위원들과 민청원들에 대하여 겸손하며 그들과 한덩어리가 되여 사업하고 생활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 승화: 나는 운전 제一 초급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오래 동안에 걸쳐 나의 전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상급 학교에 진학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직접 농촌으로 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였습니다.


윤 제


최 경숙


김 상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학교와 가정에서 그리고 동무들과 함께 가끔 토론을 하였습니다. 어떤 동무는 자기와 같이 상급 학교에 진학하자고 권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처음엔 상급 학교에 갈려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보다도 나의 마음을 사로 잡은 것은 새로히 변천하는 농촌 현실에 대한 애착이였습니다. 그것은 비단 내가 농촌에서 나고 자랐다는데서 뿐만 아니라 협동 경리의 새 길로 힘차게 들어선 우리 나라 농촌 생활에 대한 끝없는 동경에서였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학교를 졸업하자 곧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앞에 동무들이 농촌 생활에 대하여 여러가지 많이 말하였기 때문에 나는 학교를 졸업한 동무들이 농촌에서도 능히 배울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농촌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 졸업생들이 노력만 한다면 농업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을 가질 수 있으며 농업 기사로나 기수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였습니다.

나는 지금 농사 일을 하면서 고급 중학교 一학년용 교과서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매일 공부하는 한편 잡지 『선진 농업』과 기타 서적을 통해서 농업 과학 지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가지 제기할 것은 우리 리 선전실에 앞으로 농업 과학에 대한 서적들을 많이 비치하여 줄 것과 우리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영농 기술 써클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청년들의 농업 지식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협동화의 길은 광명과 행복의 유일한 길

김 상화: 지금 까지 우리 제대군인들과 초、고중 졸업생들만 이야기 하였는데 이제부터 농업 협동 조합에 일찌기 들어가서 생활하고 있는 동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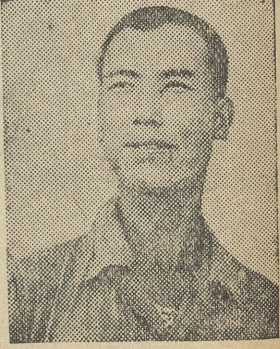
최 경숙: 협동 조합 생활을 통하여 우리들 모두가 깨달은 것은 집단 경리가 개인 경리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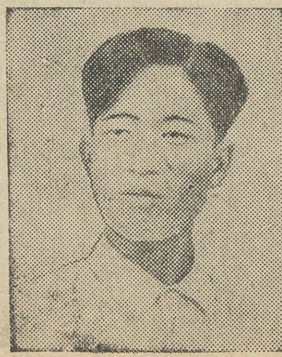
협동 조합은 매개 조합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로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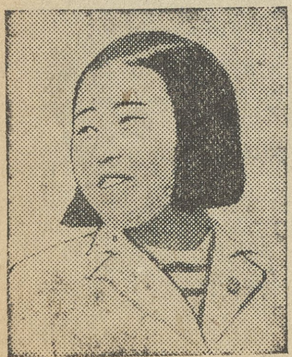
금년도 이앙 사업 때만 보드라도 늙은이들은 주로 모뜨기에 돌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앙하는데 배치시켜서 작업 능률을 현저히 높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계획적으로 할 수 있고 선진 영농 방법을 전반적으로 적용해서 수확고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수확고가 높아진다는 것은 곧 조합원들과 우리 청년들의 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 것으로 됩니다.

작년에 우리 운하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현물세、공동 축적금、사회 문화비、임경료、비료 대여곡 등을 공제하고도 매 로력자 당 벼 三〇가마니와 그 밖에도 부업 수입금으로서 근


리 위선


강 명원


최 승화

七천원을 분배 받았습니다. 우리 집에는 로력자 三명이 있는데 벼 九〇가마니와 부업 수입금으로써 二만여원의 금액을 분배 받았습니다. 그러나 개인농 때에는 三,〇〇〇평의 논에서 현물세를 제외하고 四〇가마니를 냈을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개인농 경리 보다 협동 경리가 우월하다는 단적 실례의 하나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보다 매 로력자 당 벼 二〇가마니 이상 더 분배될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윤 제…농업 협동 조합은 청년들이 자기의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모든 조건을 보장하여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개인농으로 일할적에 선진적 영농 방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얼마간 로력하였으나 모든 조건이 불리하여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력 부족으로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때에 할 수 없었으며 자급 비료도 충분히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인농으로부터 농업 협동 조합에 들어감으로써 나의 뜻대로 선진적 영농 방법과 비배 관리 방법을 보다 충분하게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협동 조합은 나에게 우리 지방의 기후 풍토에 알맞고 다수확 계통의 최 우량곡인 중생 은방주를 보장해 주었으며 락종과 모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돌리게 하였으며 그의 모내기와 김매기 비료 시비 등을 제때에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지난해에 논 一〇반보에서 벼 정당 평균 二一톤 七〇〇키로(四三四가마니)의 수확을 냄으로써 공화국 최고 기록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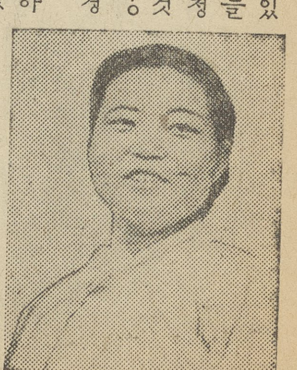
본사 기자…이제 몇 동무들이 말하는데 의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는 바와 같이 농업 협동 경리는 개인농 경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협동 조합이 우월하다고 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자만 자족하고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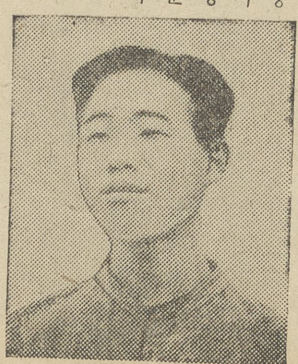
동무들도 다 아시다싶이 오늘 당과 정부는 이미 조직된 농업 협동 조합들을 질적으로 강화하며 그의 경제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협동 조합내 민청 단체와 민청원들의 역할을 일층 높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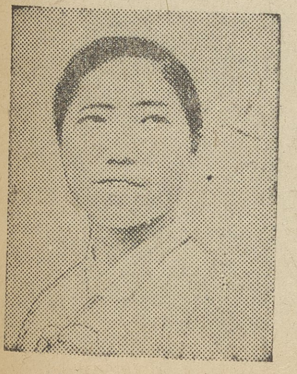
이런 문제에 대하여 좋은 경험을 듣고 싶습니다.

김 지후…우리 리 민청 산하에는 九개의 분 초급 단체가 있는데 그중 七개는 농업 협동 조합 분 초급 단체이며 리내 전체 민청원의 八〇% 이상이 농업 협동 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이런 조건하에서 리 민청 위원회는 협동 조합내 민청 분 초급 단체 사업을 일층 강화하는데 기본 중심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리 민청 위원회는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 분 초급 단체들에서 매개 민청원들에게 조합 규약을 철저히 침투시켜 그를 모범적으로 준수케 하며,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하며, 농업 증산 경쟁 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도록 하는 사업들을 직접 방조하여 줌으로써 협동 조합내 민청 분 초급 단체 사업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최 길 원


허 병 덕


려 영 숙

최 길원…우리 협동 조합 민청 분 초급 단체는 협동 조합을 조직적으로 강화하는 사업에서 우선 민청원들에게 조합 규약을 잘 가르쳐 주고 그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날 민청원들이 조합 규약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관리 운영에 적극 참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로력하고도 그 로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또 자기 로력 일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민청원들이 조합의 규약을 알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분 초급 단체 위원회는 매주 학습회 마감을 리용하여 조합의 규약 매 조목을 실정에 결부시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민청 총회 때에는 관리 위원장을 초빙하여 협동 조합의 관리 운영에 대하여 민청원들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방법들은 민청원들이 조합 관리 운영에 적극 참가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였습니다.

다음으로 민청원들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서게 하였습니다. 우리 협동 조합에서 개인 리기주의 사상은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되였습니다. 지난번 최후원이와 같이 조합의 비료를 두가마니나 훔쳐서 팔아먹은 도적 행위라든가 조합원 최 정자와 같이 작년에 초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조합에 들어와서 쓸데 없이 빈들거리며 전달 행위를 부린다든가 이외에도 자기집 터밭은 잘 가꾸면서 조합밭은 대강대강 해치운다든가 하는 이러 저러한 현상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민청 단체가 청년들에게 공동 재산을 애호하며 조합 일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교양주지 못한데서와 또한 이런 경향들과 강한 투쟁이 미약한데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분 초급 단체는 이동 게시판과 고정 게시판을 四개 만들어서 이런 부정적 경향들을 비판하는 반면에 공동 재산을 사랑하며 일을 성실히 하는 동무들을 높이 찬양하였으며 「공동 재산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왜 그것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며 아껴야 되겠는가」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하여 민청원들은 개인 리기주의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에 전체 조합원들까지 참가하도록 인도하게 되였습니다.

리 종수…우리 소교 농업 협동 조합 민청 분 초급 단체에서는 단위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 조합원 청년들 속에서 선진 영농 기술을 광범히 도입시키는 사업을 조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벼 다수확 영농 기술 써클」을 조직하고 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一五명의 청년들이 망라되였는데 논 九〇〇평을 실습지(민청답)로 만들고 전문적으로 써클원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난해 벼 정당 二一톤 七〇〇키로를 내여 공화국 최고 기록을 세운 윤 제 동무에게 잘 배워 그를 실천에 옮기였습니다. 이리하여 금년도 실습지(민청답)에서 현재 성숙된 정도를 보아 一〇〇평당 벼 평균 七가마니가 수확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당 정책의 적극적 실천자로 나서자!

본사 기자…다음으로 얼마전에 발표된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기 위한 제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五七호에 대하여 동무들이 생각한 점들과 결의들을 말해 주십시요.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그 문제에 대해선 내가 먼저 여기 모인 청년 동무들에게 내각 결정 五七호 실천을 위한 우리 리의 과업에 대하여 몇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기자 동무가 말하기 전에 몇 동무가 말했지만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당과 정부의 결정 실천에서 우리 운하리 청년들의 힘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산이라도 허물라면 허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봄에 식수 사업을 모범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제二위의 표창

을 받은 것이라든가 또 지난 六월달에 연 二、二四○여명의 청년들이 동원되여 三三반보의 간석지를 옥답으로 개간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가축 사료 확보를 위해서 七、○○○여포기의 호박을 재배하고 지금 그를 잘 가꾸고 있는 사실들이 이를 말하여 줍니다.

동무들이 이런 성과에 자만 도취하지 말고 계속 그와 같은 집단의 용기를 발휘한다면 금번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내각 결정 五七호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청년들은 윤 제동무에게서 선진 영농법을 배우고 있다。

동무들이 아시다 싶이 우리 리 앞에는 내각 결정 五七호 실행을 위한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 가을에 八○여정보의 간석지를 옥답으로 개간할 과업이 나서고 있는데 여기에는 약 二一、○○○공수의 로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훌륭히 완수한다면 매년 七二○가마니의 벼를 더 수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동무들이 지금 광범히 전개하고 있는 자급비료 증산을 위한 풀베기는 九월 一五일까지 九、○○○여톤의 풀을 베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년 가을에 가서 수많은 폭탄 구뎅이를 전부 메운다든가 조합원들의 부업 수입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어장을 설치한다든가 하는 이러 저러한 중요 과업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과업들은 모두 생기 약동하는 민청원 동무들의 더 많은 힘과 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 병덕…당과 정부는 이번 뿐만 아니라 농촌 경리를 급속히 복구 발전시키며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항상 두터운 배려를 돌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내각 결정에는 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대책과 함께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수준을 가일층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적 혜택을 증대시킨 것을 볼때 나의 마음은 무척 기뻤으며 내 힘을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농촌 경리 발전에 더 헌신해서 당과 정부의 이 고마운 혜택에 보답할 것인가? 깊이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내 있는 힘과 지혜를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치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하였습니다.

강 명원…나는 먼저 고급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에 진출하여 느낀 감상을 이야기한 바도 있지만 오늘 농촌은 지식 있고 재능 있는 청년들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을 나는 내각 결정 五七호에 의하여 더욱 똑똑히 알았습니다.

나는 지난 기간, 당과 정부의 혜택으로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때문에 나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 바쳐 우리의 농촌을 기계화되고 문화적이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의 일생을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칠 것을 각오했습니다.

김 지후…농촌 경리 발전을 위한 제 대책에 관한 내각 결정 五七호 실천을 위한 투쟁에서 청년들의 힘이 더 많이 요구된다고 앞에서 우리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가 말씀하였습니다. 리 인민 위원회 위원장 동무가 말씀한바 우리 리내에 제기되는 그러한 과업들을 우리 청년들의 힘으로써 능히 완수할 수 있는 자신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내 청년들은 자급 비료 증산을 위한 九、○○○여톤의 풀베기 계획을 一五일간 앞당겨 八월 말까지 완수하기 위한 치렬한 경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은 지난 六월에 간석지 개간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금년 가을에 전개될 八○여정보의 간석지 개간에서도 높은 성과를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군 민청 위원장…나는 오늘 저녁 좌담회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몇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 협동 조합에 청년 작업반과 청년 소조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것은 조합원 청년들의 역할을 높임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나 운하리내 민청 단체들에서는 이와 같은데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는데 앞으로 청년 작업반, 청년 소조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저녁 몇개 협동 조합 관리 위원장 동무들이 참가하였기 때문에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청년들의 새로운 발기에 대하여 적극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운전리 운흥 농업 협동 조합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곳 민청 열성자들은 『영농 기술 써클』에 필요한 논 五○○평의 실습지를 선택해 줄 것을 관리 위원장 동지에게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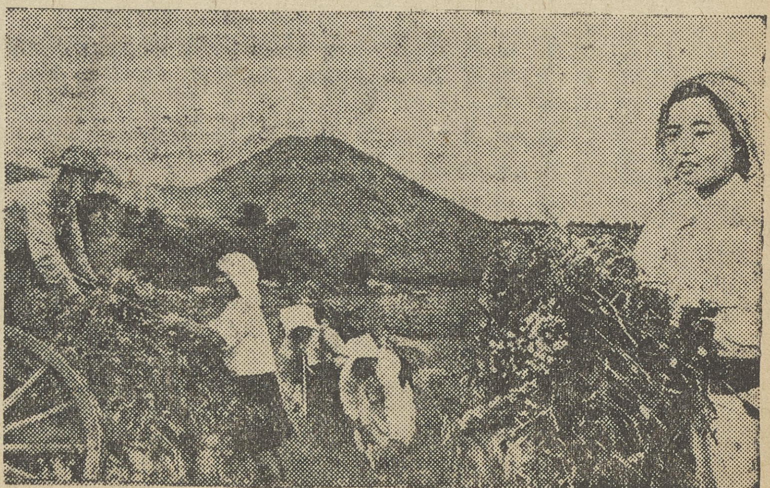
그러나 관리 위원장은 『청년들이 낮에 나가서 기본 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경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끝끝내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청원들은 자기들의 의사를 끝까지 제기하여 낮에는 협동 조합의 공동 로력에 참가하고 순전히 시간외 작업으로써 五○○평의 실습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실습지 『민청답』은 운전리내에서 제일 잘 되였으며 一○○평당 一○가마니의 수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고집하든 관리 위원장도 지금은 오히려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때 청년들의 새로운 발기와 제의를 적극 지지해 준다면 농촌 경리 발전에 그들의 창조적 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본사 기자…오늘 좌담회에서는 여러 동무들의 훌륭한 결의들과 좋은 경험들이 교환되였습니다. 좌담회를 이상으로 끝마치려 합니다.


자급비료 증산을 위한 운하리내 청년들의 풀베기 작업。

본사 기자 김 학일

지상 토론

낡은 사상 잔재란 무엇이며 그것은 우리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는가?

민청 일군들은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의 선두에 나서자!

나는 나와 같이 민청 지도 기관에서 일하는 민청 일군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낡은 사상 잔재에 대하여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나 하면 민청 일군들이 낡은 사상 잔재를 반대하는 투쟁의 선두에 나서지 않고서는 민청원들 속에서 계급 교양을 옳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민청 일군들에게서 표현되는 낡은 사상 잔재의 하나는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이다.

안변군 민청 일군들은 아직도 사무실적 사업 방법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하부 단체에 『七일 보고』제를 제정하여 놓고 문서에만 매달리고 있다. 이러한 민청 단체의 사업에 활회와 힘과 랑만이 넘쳐 흐르고 있지 못할 것은 뻔한 사실이다.

일부 민청 지도 일군들은 군중에 대한 옳바른 관점을 수립하지 못한데서 자기의 "공로"와 "명예"에만 사로잡혀 대중을 명령과 호령의 방법으로 내몰고 있다. 이천군 민청 일군들은 하부의 구체적인 실정을 타산함이 없이 자급 비료 증산 목표 一六〇%를 기계적으로 설정하고 민청원들을 내몰았다.

어떤 민청 일군들은 하부 실정을 연구하지 않고 대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자기 주관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고 있다. 문천군 민청에서는 지난 기간 맹적 문건을 정리한다 하여 一一〇명의 민청원을 일률적으로 부당하게 출맹 처분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관료주의 및 공명주의적 사업 방법은 대중을 리탈시키며 사업을 망쳐 먹을 것은 자명하다. 관료주의가 우리 혁명에 어떤 해독을 주고 있는가에 대하여서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가 심중한 지적을 주고 있다.

때문에 우리 민청 일군들은 군중 관점에선 옳은 일군으로 자체를 부단히 단련시키며 낡은 사상 잔재와의 투쟁에서 자신들이 언제나 민청원들의 선두에 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 四월 전원 회의 문헌을 더욱 진지하게 연구하며 그를 지침으로 하여 자기 사업을 시시로 검토하고 우리의 주되는 관심을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계급적 교양 사업에 돌리며 당의 전투적 후비대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민청 강원도 위원회 조직부
지도원 김 응찬

집단 로동에 불성실한 태도

지난 五월 초순 우리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해 오던 제방 공사와 토지 개간 사업이 진행되였다. 부락에서 멀지 않는 산골짝 공사장이 이때처럼 활기를 띤 적은 없었다.

그런데 민청원 신 정훈은 일손을 재우치는 사람들의 틈에 끼워서 삽을 땅에 꼽고 디디고 섯는 시간이 더 많았다.

심지어 민청원 김 보현은 마사진 지게에 흙을 두삽도 채 담기전에 다라나 버리군 하였다.

지난날 개인 농사 때 이 두 동무는 일 잘하고 힘센 것으로 유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 두 동무들에게 『황소』라는 별명까지 붙였든 것이다.

자기의 일이라면 『황소』처럼 꾸준히 실속 있게 하는데 왜 이 동무들은 집단 로동에서는 몸을 아끼고 일에 태공하는가?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나는 이 두 동무들이 남보다 흙을 덜 파냈다거나 조금씩 저 나른 데 대하여 길게 말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집단 로동에 불성실한 이러한 태도의 사상적 병집에 대하여 분석하려는 것이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자기들의 로동에서 우선 집단, 인민, 국가의 리익을 먼저 생각하며 전체의 일을 자기 개인의 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동무들은 여러 사람들의 등에 업혀서 자기는 일을 적게 또 쉽게 하고 자기들에게 차려지는 몫은 제대로 받자는 것이다.

일을 좀 적게 한 것은 『사소한 일』 같지만 따져보면 이 얼마나 비량심적인 행동인가?

과거 일제 시대 자기 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고 전체의 일을 개인의 일로 보지 않는 낡은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 리기주의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통용될 수 없다.

우리의 로동은 언제 어데서나 우리 나라의 륭성 발전을 위한 고상한 로동의 일부분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기쁨, 행복 중요한 제 성과들은 다만 인민의 복리를 위한 공동적 로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나는 오늘 지상 토론에 참가하면서 우리 민청원들은 집단 로동에서 불성실한 태도에 대하여 그것을 『사소한 일』로 보지 말고 이와 같은 낡은 사상 잔재의 표현들과는 타협 없이 투쟁할 것을 기대한다.

평남 승호군 삼천리 一반
임 경권

봉사성 없는 간호원에 대하여

나는 우리 마을 간의 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원 표 덕선 동무의 행동에서 나타난 몇가지 문제를 가지고 지상 토론에 참가합니다.

간호원 표 덕선 동무는 금년 二二세입니다. 一九五一년초에 민청에 가맹한 후 그는 二년간의 농촌 민청 생활에서 매우 성실하였습니다.

우리 리내 민청원들은 물론 로인들까지도 『얌전하고 일 잘하는 처녀』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렇든 이 동무가 간호원이 된지 二년도 채못되는 오늘에 와서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동무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미움을 받게 된 리유는 다음의 사연이 잘 말해 줍니다.

지난 七월 二일이였습니다. 류정 인민 학교 교원 강 칠종 동무가 진료소를 찾아 갔댔습니다. 간호원 표 덕선 동무는 자기가 누어 있던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소장이 없으니 난 몰라요』라는 대답 한마디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강 칠종 동무는 기분이 언짢은 것을 참고 소화제가 있으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표 덕선은 여전히 침대에 누운채로 『없다』는 한마디로 자기 일을 다해 치웠습니다.

이런 사실은 표 덕선 동무의 그릇된 행동의 한개 실례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청 단체에서는 이 동무의 이런 행동에 대하여 충고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의 행동을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무를 어떻게 전처럼 『얌전하고 일잘하는 처녀』라고 존경하며 칭찬하겠습니까?

독자 여러분! 동무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이런 동무에 대해서 인민에 대한 봉사성이 없는 전형적인 동무라고 엄격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인민에게 대한 봉사성—이는 자기 앞에 맞겨진 사업에 대한 량심적인 태도이며 인민에 대한 성실한 복무의 정신,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도주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회와 인민 앞에서의 자기의 의무를 완수하지 않는다면, 만일 사업을 되는대로 하여 버린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성실한 인민의 일군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과거 일제 때 병원 의 의사나 간호원들이 돈 없는 사람이면 되는대로 대하고 지어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민에 대한 사랑이란 없었으며 돈 벌이를 위하여 일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표 덕선 동무가 인민의 간호원이란 신성한 임무를 망각하고 쓸데없이 우쭐대는 그 사상적 근원은 일제 때 『의사』나 『간호원』의 사상 잔재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표 덕선 동무의 인민에 대한 봉사성 없는 태도를 지상 토론에 공개하면서 여러 동무들의 많은 의견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남 은산군 류정리
민청 위원장 **장 룡경**

국가 재산을 파손 랑비하고도 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우리 민청원들은 어데서 일하거나 어데서 공부하거나 항상 국가와 인민의 공동 재산을 애호 절약한다. 그는 국가 재산이 곧 우리의 재산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국가 재산을 애호 절약하지 않는 락후한 현상을 우리는 부분적이나마 찾아 보게 된다.

지난달 우리 공장 기구 직장 분초급 단체 민청원 강 을건은 귀중한 수입 선반기를 파손하였다. 파손한 선반기는 대수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지경이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강 을건 동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는 『내가 기계를 마수구 싶어 마샀는가? 일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지…』라고 대답하였다.

그는 이렇게 귀중한 국가 재산을 파손시키고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

였다. 공장 민청 위원회는 그의 란폭한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행정에 건의하여 그에게 다시 선반기를 맞기지 않도록 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비로소 강 을건은 자기가 선반기를 다루는데 있어 자기 것처럼 조심히 다루지 않았다고 고백하였다.

공장 민청 단체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진지하게 민청원들의 작업 태도를 검토할 필요성을 느꼈다.

왜냐 하면 강 을건이 선반기를 파손한 것과는 다소간 차의는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국가 재산을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애호 절약하는 그런 기풍이 덜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는 비단 작업 태도에만 국한되여서는 안될 사상 문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후 기구 직장 분 초급 단체에서는 『국가 재산을 파손, 랑비하고도 왜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라는 안건으로 총회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이때까지 알지 못하였든 그릇된 경향까지 폭로 비판되였다. 일부 민청원들은 포금 낫트 제작에서 오작이 나면 남 몰래 쇠 쓰레기에 던지기도 하였다.

어떤 동무들은 자기 기대의 부분품이 닳거나 못쓰게 되면 남의 것을 슬그머니 가져다 바꾸어 끼웠다.

민청원들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원인이 국가 재산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부족하였으며 때로는 『우리의 것』보다 『자기의 것』을 더 소중이 여기는 개인 리기주의에 사로잡인데 있다는 것을 랭정히 비판했다.

이것은 옳은 비판이였다. 그후에 기구 직장에는 기계의 사고가 더 드물게 되였으며 오작품으로 쇠쓰레기에 버렸든 포금 낫트 七〇〇여개를 다시 재생하였다. 물론 규률과 제도가 더 확립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나는 우리 공장 민청이 진행한 사업 중에서 간단한 례를 들어 지상 토론에 참가하면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하고 싶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국가에 손해를 주더라도 자기 개인의 안락만 꾀하며, 국가에는 자기 로력을 적게 바치고 국가에서 더 많이 받자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때때로 민청원들과 청년들로부터 강력한 비판과 배격을 받지 않는 때가 있다.

우리 민청 단체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민청원들이 무관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적극 도와주며 민청원들을 결함과 비타협적인 원칙적인 사람으로 기르는데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강서 전기 공장
민청 위원장 **리 근배**

~◇ 독자들에게 ◇~

금번 내각 결정 六六호에 의하여 『청년 생활』 한달 구독료는 四〇원으로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二개월분 예약금은 八〇원으로 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편 집 부



농산 과학을 연구하는 초、고중 졸업생들

우리 곽산군 남단리 남산 농업 협동 조합에는 작년에 고중을 졸업한 김 종전과 초중을 졸업한 김 대원、김 정우、김 영필、최 정섭、김 순희 등 청년들이 일하고 있다。 이곳 조합은 청년들의 보람찬 일터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는 학교로 되고 있다。

지난 二월 초순 김 종전을 비롯한 초중 졸업생들은 리 민청 단체의 지도 하에 선진 영농 방법을 연구할 수 있는 농산 과학 연구 크루쇼크를 조직하였다。

조합 관리 위원회는 그들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면서 그들이 농산 과학을 연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어 주었다。 관리 위원회는 농산 과학、축산학、농작물 경종 도해집을 비롯한 서적들을 구비하여 주었다。

한편 그들의 희망에 따라 실제 작업을 통하여 연구할 수 있는 조건도 지어 주었다。 즉 축산에 흥미를 가진 민청원 김 정우、최 정섭에게는 어미 돼지 四두、새끼 돼지 一두를 맡기고 그를 책임적으로 키우면서 연구케 하였으며 김 영필、김 순희 민청원에게는 八단보의 포전을 맡기고 피마자、담배를 비롯한 공예 작물을 재배시키면서 연구케 하고 김 종전、김 대원에게는 기타 농산 과학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루의 농사 일을 끝내면 곧 연구실에 모여 서적들을 통하여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연구한 것을 실제 작업에 옮기고 있으며 때로는 조합원들 앞에서 발표회를 진행함으로써 전체 조합원들이 배우며 실천에 옮기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난 파종때 제四 작업반 김 명순、김 상태 농민들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그렇게 옥수수를 배게 세운다면 숫강냉이가 된다』고 하면서 평규식 정방형 파종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농산 과학을 연구하는 김 종전은 관리 위원회와의 련계 밑에 조합원들 앞에서 옥수수 평규식 정방형 파종의 유리성에 대한 연구 발표를 하였다。 여기에서 숫강냉이 지는 원인은 작물이 요구하는 충분한 비료를 주지 않는데서 생긴다는 것을 리론적으로 해명해 주었다。 그리하여 옥수수는 평규식 정방형으로 파종되였다。

지난 六월 중순이였다。 조합 밭에는 늦벌레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김 상희、김 상린 농민을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잡으려 하지 않았다。 늦벌레는 점차 왕성하여졌다。 늦벌레에 대하여 연구하여 온 김 종전은 조합원들 앞에서 또 늦벌레의 해독성에 대하여 연구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김 종전은 늦벌레가 발생되는 원인과 그가 농작물에 주는 해독성을 구체적으로 해설하면서 『초복전 늦벌레는 거름이 된다』고 하는 비과학적 견해를 비판하였다。 사실을 알게 된 조합원들은 단 二일 동안에 발생된 늦벌레를 전부 잡았다。

축산반 최 정섭、김 정우는 자기들이 배운 지식을 돼지 사양 관리에 적용하고 있다。

그들은 돼지들에게 단백질과 골분、철분 등으로 배합한 사료를 기술 지표대로 급여하여 돼지의 건강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 五월 중순 모돈에 새끼를 많이 배게 하기 위하여 二중 교미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곳 조합내 초、고중 졸업생들은 농산 과학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농촌 경리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평북도 곽산군 민청 김 지상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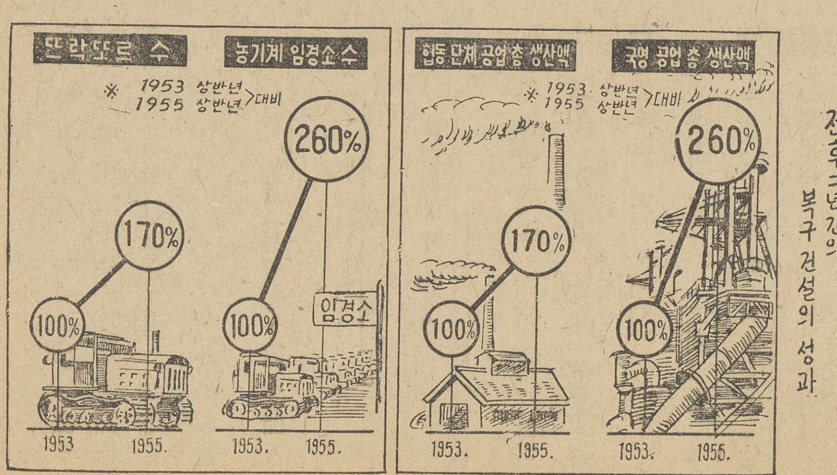
우리 강원도 민청 위원회는 지난 五월 一八일 제二차 전원 회의에서 민청 사업을 개선 강화할데 대한 당 중앙 정치 위원회 결정 실행 대책을 토의하면서 청년들의 기세와 활기를 높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을 광범히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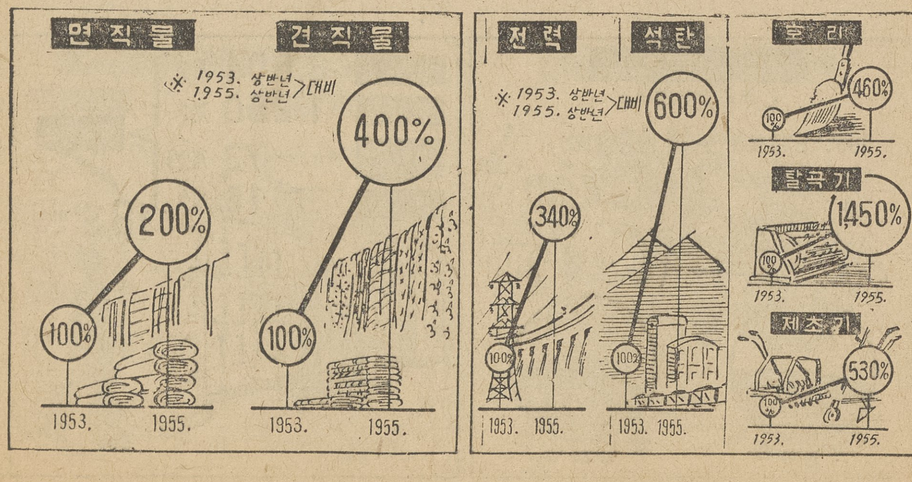
그후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은 도내 청년들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세포군 민청 위원회는 군 민청 전원 회의에서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을 토의하고 그 결정 실행을 위하여 초급 민청 단체를 지도 방조하였다。 결과 북평리 농업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은 퉁소、행금、피리 등을 비롯하여 각종 악

영웅적 로력 빛나는 성과

전후 二년간의 복구 건설의 성과





기 五〇점을 제작하였다.

그후 군 민청 위원회는 지난 六월 一九일에 열린 군 민청 열성자 회의를 통하여 악기 제작 전람회를 조직하고 경험을 교환하였으며 악기 제작 운동을 군내 전체 민청원들 속에서 더욱 확대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오늘 세포군내 一、二〇〇여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악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일터와 일상 생활에서 명랑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천군 민청 단체들에서도 군 민청 위원회의 지도하에 청년들 속에서 악기 제작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천군 축동리와 장동리내 一七〇명의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유휴 자재를 리용하여 피리、퉁소、하모니카、북、행금 등 각종 악기를 제작 또는 수집하는 등으로써 한사람이 한개 이상의 악기를 가지게 되였다.

군 민청 위원회는 지난 七월 七일에 군 청년 구락부를 중심으로 음악 콩클을 조직하였다. 여기에는 자기 손으로 각종 악기를 제작한 四〇여명의 청년들이 참가하여 자기의 음악적 소질을 발휘하였다. 이와 함께 군 민청 위원회는 七월 五일부터 七월 八일까지 농촌 써클 지도자 강습을 조직하고 음악、무용 써클과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 경험을 교환하였다. 현재 이천군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 수는 꽹매기 三〇점、하모니카 一二〇점、퉁소 二三六점、행금 二四점、나팔 四점、피리 一二二점을 비롯하여 기타 악기 一九三점이다.

이외에도 철원군 금강군을 비롯한 도내 각 시 군 민청 단체 산하 청년들 속에서도 악기 제작 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제작된 악기들은 일터와 일상 생활에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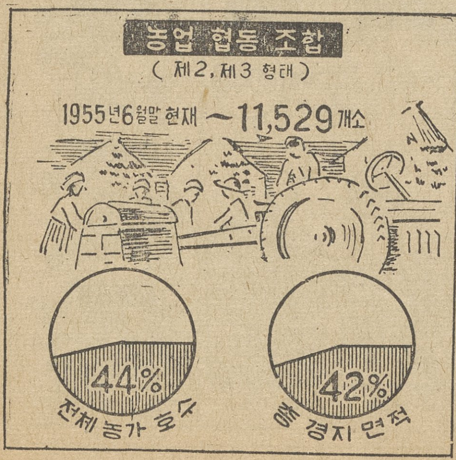
도 민청 위원회는 지난 七월 二〇일에 진행된 농촌 부문 청년 열성자 회의와 관련하여 도내 청년들이 제작한 악기 전람회를 조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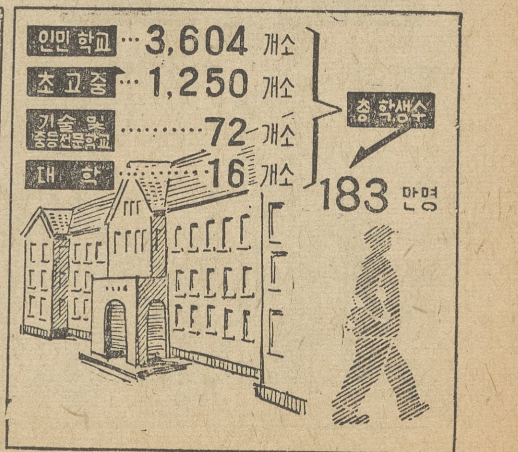
이와 같이 우리 강원도 민청 위원회는 청년들 속에서 一인 一건 악기 제작 운동을 광범히 전개함으로써 청년들의 활기와 기세를 높여 주고 있다.

강원도 민청
박 태천

우리들은 풀베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지난 七월 一一일 리 민청 열성자 회의에서는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을 계기로 八、四七〇톤의 풀을 벨 것을 군내 민청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우리는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七월 二〇일부터 八월 一四일까지의 기간을 풀베기 돌격 주간으로 설정하였다.

한편 베여 들인 풀을 질좋은 자급 비료로 만들기 위하여 이미 만든 퇴적장 七八개、액비통 二九개、재우리 五九개를 七월 二〇일까지 완전히 수축 또는 수리할 과업을 내세웠다.

우리들이 목표한 풀베기를 훌륭히 완수한다면 이는 금년도 우리 리내 자급 비료 생산 국가 지표를 一六〇%로 초과 완수하는 것으로 된다.

우리가 풀베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며칠 되지 않지만 그의 성과는 확실하게 기대된다.

교정동 협동 조합내 민청원 三〇여명은 지난 一〇일간 (七월 一一일부터 七월 二〇일까지) 한사람이 하루 一二짐 이상 풀을 베여 들였다. 그들은 작업의 여가에 남보다 적게 쉬고 풀을 벴으며 다른 조합원들보다 아침 한시간 일찍 들로 나가 풀을 벴다.

七월 一四일 아침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것도 무릅쓰고 민청원들은 一•五톤의 풀을 벴다. 이날 다른 조합원들도 민청원들의 열성에 고무되여 한결같이 들로 나섰다. 비오는 것도 무릅쓰고 온 마을이 풀베기에 나선 광경은 참으로 굉장하였다.

교정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의 경쟁 대상자인 광천 협동 조합내 민청원들도 경쟁에서 떨어질세라 풀베기에 열성을 기울이고 있다. 그들은 풀베기에 본격적으로 들어선 첫 주일에 벌써 一五톤의 풀을 벴다.

이번 풀베기에 들어서면서도 전과 같이 손중말、김 인필、김 옥선 등 민청원들은 하루에 一三―一五짐씩 베여 들여 속보판、『번개』등에 매일 이름이 나붙어 조합원들의 찬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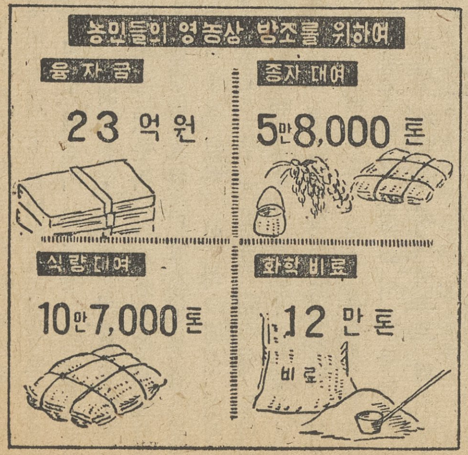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지난 六월에 인민 군대에서 제대되여 온 리 기덕 동무의 눈부신 활동은 민청원들의 모범으로 되고 있다.

그는 전선에서 단련한 튼튼한 몸과 민첩하고 날랜 솜씨로 농사일을 잘 하고 있다.

우리는 풀베기 경쟁을 하면서 이 기간에 민청 생활을 더 활기 있고 재미나게 하는데도 많은 주의를 돌리고 있다. 저녁이면 새 노래를 배우고 쉬는 짬이면 신문 독보、오락회 등을 자주 조직한다.

八•一五 해방 一〇주년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더욱 높은 로력적 열의로 우리는 우리가 맹세한 풀베기 과업을 훌륭히 완수하고 있다.

평남 룡강군 갈천리 민청
위원장 최 창옥





청년들의 기술 수준 제고에 더 많은 주목을 돌리자!

민청 중앙 위원회 로동 청년부 부장
홍 순 권

전후 시기에 우리 나라 로동 청년들의 생활에서 일어난 큰 변화의 하나는 그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현저히 높아진 것이다. 이미 전국적 범위로 보급되고 있는 김 책 제철소 민청 단체의 발기에 의한 一인 一건 창의 고안 운동과 기계 무사고 운동, 기타 선진 기술의 광범한 도입은 그것을 증명하는 실례로 된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비상한 열성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고 있으며 그것의 생산에의 도입은 로동 생산 능률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로동 청년들에 대한 기술 교양 사업 지도에서 민청 단체들의 활동과 조직적 능력도 훨씬 높아졌다. 각 공장, 광산, 운수 부문내 민청 단체들에서 이미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보여 주고 있다.

흥남 비료 공장 민청 위원회는 행정을 도와 청년들의 수준, 직종, 교대별을 잘 구분하여 기술 전습회와 개별 담당제를 옳게 지도하고 있는바 무기능공을 퇴치하고 기능공들의 기능 급수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 상반년도에만 二〇〇여명의 청년들을 기사, 기수 검정 시험에 참가하게 하였다. 녕변 견직 공장, 황해 제철소, 북중 기계 제작소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급속히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발기자로 나서고 있다. 황해 제철소 민청 단체는 초급 당 단체의 지도 하에 선진 기술 도입과 젊은 혁신자들의 대렬을 확대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민청호 평로를 중심으로 청년 혁신자 학교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능한 기술 일군들이 적극 인입되고 있는바 그들은 청년들에게 고속도 용해에 필요한 기술 과목들을 체계적으로 배워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 민청원들과 청년들은 一주 二회씩 四개월 동안만 학습하면 유능한 고급 기능공이 될 수 있으며 기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한다. 이로써 황해 제철소 민청은 젊은 용해공들의 기술 부족을 훌륭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검덕 광산 민청 단체에서도 착암수 학교를 조직하고 청년들에게 선진 기술을 체계적으로 배워줌으로써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평북, 평남, 함남 및 강원도 민청 단체들에서는 도적으로 또는 산업 지구별로 로동 청년 열성자 회의와 경험 교환회를 조직하였는바 이는 로동 청년들의 기술 의욕을 높이며 선진 경험을 대중적으로 보급함에 있어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그러나 로동 청년들에 대한 기술 교양 사업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까지 제고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이 사업에는 많은 결함들과 부족점이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결함의 하나는 생산 설비의 기술적 장비와 함께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현저히 장성 발전된 실정을 고려하여 기술 학습을 조직 운영하지 못하고 과거의 낡은 방법을 도식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즉 일부 공장, 기업소 민청 단체들은 행정에서 조직하는 기술 전습회가 직종별, 교대별 및 수준별 고려가 없이 불합리하게 조직되는 데 대하

여 전혀 무관심하고 있다. 결과 수준이 낮은 동무들에게는 강의 내용이 리해되지 않으며 고급 기능공들에게는 몇해 전부터 듣고 배우고 체험한 것을 반복하게 됨으로써 흥미를 잃게 하며 또는 교대별 고려가 없이 망탕 조직하는 결과는 출석률까지 보장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 진행되는 기술 학습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고급 기능공들의 기능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무관심한 태도는 옳지 않다.

다음으로 중요한 결함은 당과 정부의 배려에 의하여 설치되였고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임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 직공 학교, 로동자 학교, 야간 기술 전문 학교 및 로동 청년 학교들에 대한 민청 단체들의 주목이 적게 돌려지고 있는 사실이다.

실례로 최 용섭 동무가 민청 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는 공장 야간 기술 전문 학교의 금년도 졸업 예정자 중 약 八〇%가 이러저러한 구실로 중퇴 또는 제명 당하였으며 락원 및 북중 기계 제작소 민청 단체들은 직공 학교와 로동자 학교에 대한 지도는 거의나 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제 결함들은 생산 설비의 기술적 장비 수준과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기능상 준비 정도간에 조성된 차이를 제거함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부족은 생산 계획을 달성하지 못하며 오작품 생산과 기계 사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각급 민청 단체들은 기술 교양 사업 지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함들을 시급히 시정하고 앞으로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일상적이며 구체적 지도를 주어야 한다.

그런데 공장 기업소내 민청 단체들은 기술 교양 사업을 조직 지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후 시기에 와서 로동 청년들의 일반적 지식 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젊은 기사, 기수 기능공들이 많이 양성된 사실이다. 이 모든 조건들은 청년들 속에서 진행하는 기술 교양 사업에서 그 형태와 방법을 부단히 개선하며 그의 질적 수준을 보다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이와 같이 로동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이 각이한 실정에 적응하게 각종 기술 교양망을 직종별, 교대별 및 수준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합리적으로 조직하도록 행정을 방조하며 이에 우수한 기사, 기수들을 비롯한 준비된 기술 일군들을 적극 인입함으로써 강의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지도 방조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청 단체들은 고급 기능공들의 기술 수준을 기사, 기수들의 수준에로 점차 발전 시킬 데 대하여 일상적인 주목을 돌릴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하여 북중 기계 제작소 청년 직장에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 강습소 또는 우에서 지적한 청년 혁신자 학교들을 광범히 조직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이 해당 부문의 기술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문화 수준을 높임에 있어서 로동자 학교, 직공 학교 및 야간 기술 전문 학교 등 직장 교육 시설들은 큰 의의를 갖는다. 오늘 공장 기업소들의 로력 보충은 주로 이 학교들을 통하여 실시되며 바로 여기가 기술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온상지이다.

그러므로 민청 단체들은 목전 생산 계획 실행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차 로력 후비로 준비 중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 성적을 제고하며 생산 실습을 성실히 하도록 방조하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애국주의 정신으로 그들을 교양 훈련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청 단체들은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들 중 자격자들을 야간 기술 전문 학교 및 로동 청년 학교에 광범히 망라시키고 그들의 학습 조건을 백방으로 방조

해 줌으로써 끝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전 과정을 맞추도록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각급 민청 단체들은 선진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에 의하여 창안되고 도입된 선진 작업 방법들을 제때에 지지해 주며 그를 보급하는 사업을 기동성 있게 조직할 것이다. 그런데 일부 민청 단체들에서는 로동 청년들 속에서 속출되는 창의 고안 운동을 단순한 자랑꺼리와 선전 자료로 리용하는데 그치고 그를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서는 관심을 적게 돌리고 있다. 이것은 아주 유해로운 경향이다. 민청 단체들은 선진 기술의 도입과 그의 광범한 보급을 구호와 만세로써 쉽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환상을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며 그의 보급을 위한 정치 조직 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민청 단체들은 선진적 작업 방법의 대중적 보급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사、 기수、 기술자들을 적극 인입하여 강습소 또는 청년 혁신자 학교를 조직하고 그를 통하여 민청원들과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효과 있게 조직할 것을 강조한다.

끝으로 각급 민청 단체들은 민청원들과 청년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되는 기술 서적과 선진 작업 방법、 창의 고안품 도안 및 설계、 기타 기술 문건들과 실험 자료 등으로써 기술 까비네트를 광범히 조직할 것이며 또한 저명한 과학자、 기술자、 생산 혁신자들을 출연시켜 강연、 보고、 좌담회 등을 수시로 조직하여 줄 것이다.

동시에 각급 민청 단체들은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적 기초를 확립하며 사회주의 공업화의 기초를 구축하는 현 시기에 있어서 기술을 소유하는 문제는 공업 건설의 속도를 촉진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장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는 당과 수령의 간곡한 교시를 청년들 속에 계속 해석 침투시키며 그들을 선진 기술 습득에로 힘차게 조직 동원할 것이다.

우리들의 사상생활

무엇이 참된 리상인가?

어머니―『병렬아! 듣자니 요지음 학교를 졸업한 젊은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려고 농촌으로 돌아들 온다드구나. 너도 어데로 간다고 그렇게 쏴다니지 말고 집농사나 도와 주렴』.

딸―『아이! 참 속상해 죽겠네. 어머넌 날 「촌 사람」을 만들려고 고중까지 공부시켰서요? 글세 아무리 농촌이 좋단들 고중을 졸업하구 어떻게 밤낮 호밋 자루를 쥐고 일해요. 작년 一년 동안 집에 있은 것도 끔직한 일인데……어떻든 농촌은 내 리상에 맞지 않아요』.

남포시 문애리에 사는 리병렬 동무는 쉬운 일을 찾고 있으며 농사일을 보람없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물론 매개 인에게는 각자 각의한 리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참된 리상―현실적인 리상을 세워야 한다.

참된 리상이란 조국과 사회의 요구에 합치되는 현실적인 리상을 말한다. 만일 개인의 리익에서 세워진 리상이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합치되지 않을 때 개인의 리익은 국가와 사회의 리익에 복종되여야 한다. 이것이 참된 리상이며 현실적인 리상이다.

오늘 당과 국가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전국가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농촌에로 더 많은 지식인을 부르고 있다.

그런데 리병렬 동무는 당과 국가의 현실적 요구를 생각하지 않고 단지 『촌 사람』이 되기 싫다는데서 자기의 리상과 희망을 딴데 두고 있다.

농촌이라면 보람없는 일터인가? 아니다!

금년의 초 고중을 졸업한 수많은 청년들이 『농촌은 나의 대학이다!』라고 말하며 일생을 조국의 농촌 경리 발전에 바칠 각오 밑에 농촌으로 들어가고 있다.

술어해설

▲ 생산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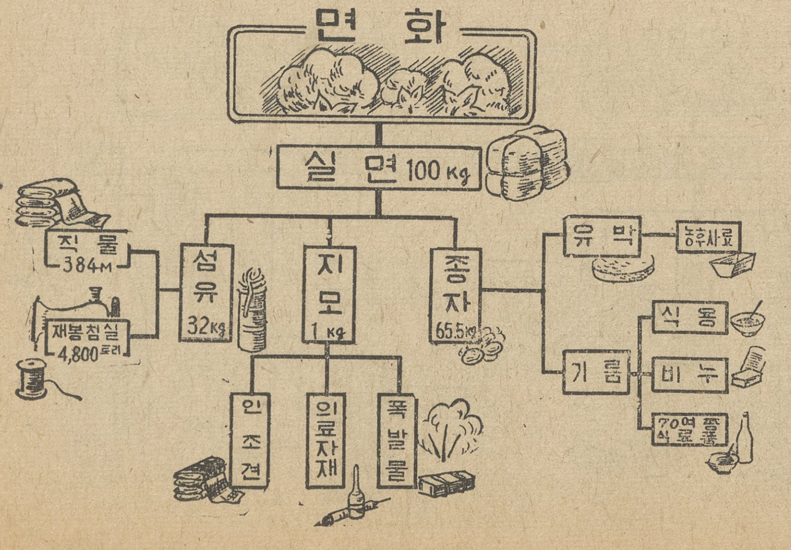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존재여서 자기들의 생활 자료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독으로는 하지 못하고 호상간에 일정한 사회적 관계들을 맺게 된다.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생산 수단과 인간 로동인바 생산 수단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는가 하는 소유 관계 여하에 따라 로동하는 방식도、 로동의 결과인 생산물의 분배 방식 즉 로동과 분배에서의 사람들의 호상 관계도 결정된다.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 관계에 기초하여 생산과 분배의 모든 령역에서 사람들 호상 간에 설정되는 사회적 제관계를 생산 관계라고 한다. 례하면 원시 공동체 사회에서 사람들이 생산 수단을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공동으로 로동하며 생산물을 공동으로 분배한다. 즉 공동적인 소유 관계를 기초로 하여 생산과 분배의 제령역에서 동지적 협조와 호상 원조의 제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은 호상 협조적 생산 관계의 류형에 속한다.

그런데 계급 사회들에서는 생산 수단이 일부 개인들의 사적 소유로 되여 있기 때문에 생산 수단을 가지지 못한 직접적 생산자들은 우선 생산 행정에서 생산 수단의 소유자들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않되며 또 생산물의 분배에 있어서 가혹한 착취를 당한다. 여기서는 생산 수단의 소유자와 직접적 생산자들 간에는 모순 대립의 제관계가 조성된다. 이러한 생산 관계는 지배와 복종의 생산 관계의 류형을 이룬다.

이상 두가지 류형의 생산 관계의 중간에는 과도적인 생산 관계가 있다. 원시 사회로부터 계급 사회로의 이행 시기에 있어서의 공동적 소유와 개인적 경영이 결부된 경제 형태 (로씨야의 「미르」、 독일의 「마르크」 등)、 소상품 생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사적 소유와 공동적 생산이 결부된 경제 형태들에서 보는 생산 관계가 과도적 생산 관계에 속한다.

생산 제관계의 총체가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 즉 하부 구조를 이룬다고 맑스는 가르쳤다. 우리 말에서는 생산 제관계의 총체를 가리켜 단순히 생산 관계라고 하는 수가 많다.

공업과 농업



▲ 반제 반봉건 력량

오늘 미제 침략을 반대하며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을 저애하는 농촌에서의 봉건적 생산 관계—지주적 토지 소유제를 반대하는 반제 반봉건적 혁명에 동원된 또는 될 수 있는 력량을 말함이니, 남북 조선을 통하여 로동 계급과 농민들, 혁명적 인테리들, 도시 소시민, 량심적 민족 부르죠아들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오늘 공화국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의 기초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우리 혁명의 기지, 민주 기지를 가일층 강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조국의 통일 독립, 반제 반봉건 혁명을 하루속히 완수할 수 있다.

▲ 중 공 업

공업을 크게 나누어 생산 수단을 생산하는 부문(제一 부문)과 소비 자료 즉 직접적인 생활 자료를 생산하는 부문(제二 부문)으로 분류한다.

제一 부문의 공업들을 중공업이라고 부르며 제二 부문의 공업들을 대체로 경공업이라고 부른다.

중공업에는 광업, 연료공업, 전기공업, 제철 공업, 기계 공업, 선박공업 등이 속하는바 중공업의 기본으로, 핵심으로 되는 것은 기계 공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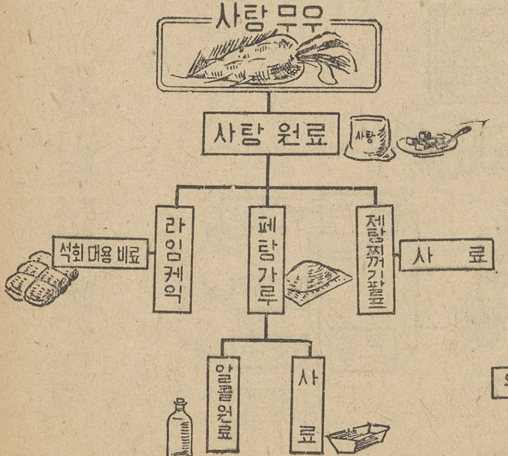
기계 공업은 모든 생산 부문에 기계와 설비품들을 공급한다. 경공업에는 섬유 공업, 식료품 공업 기타 일용품 생산이 속한다. 좁은 의미에서는 경공업에다 섬유 공업과 일용품 생산 등만을 포함시켜 식료품 공업과 대립시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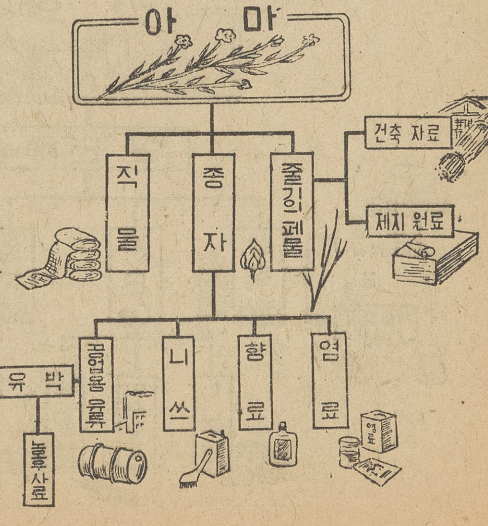
▲ 경제에서의 식민지적 편파성

식민지 경제는 그 나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건설되고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로부터 될수록 많은 것을 착취 략탈해 가려 하며 혹은 그것을 군사적 기지로 리용하려 하는 종주국의 제국주의 부르죠아지의 리해 관계의 견지에서 건설되고 발전된다. 때문에 식민지 인민들의 복리의 견지에서 볼때 식민지 경제는 아주 불합리하고 모순된 성격을 띠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 본다면 우선 그것은 약간이나마 중공업의 발전에 비하여 경공업의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써 표현된다.

그것은 중공업은 우리 나라에 원료, 로





동력 등 유리한 조건이 있었고 또 일제의 대륙 침략을 위하여 필요했지마는 일제로 보아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을 건설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상품을 팔아먹기 위하여 경공업은 오히려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다음으로 중공업 그것에서도 조선에서는 반제품들만 제조하고 완제품을 일본에 가서 만들게 되여 있었다는 것으로써도 표현된다. 이것은 조선에다 직접으로 완제품을 공급할 필요는 없었고 또 조선 인민을 높은 기술적 수준에 끌어 올리지 말아야 할 등등의 리유로부터였다. 약간의 경공업에서 조차 조선에서는 반제품만 생산하게 되여 있었다. 가령 우리의 잠견을 원료로 하는 제사 공장은 약간 있었으나 견직 공작은 없었다.

다음으로 농업에서도 일본에 식량을 략탈해 가기 위해 미곡 생산에만 치중하고 공예 작물 생산은 아주 락후한 상태였으며 특히 목축업은 거의 없었다. 이것은 경공업과 식료품 공업이 거의 없었던 것과도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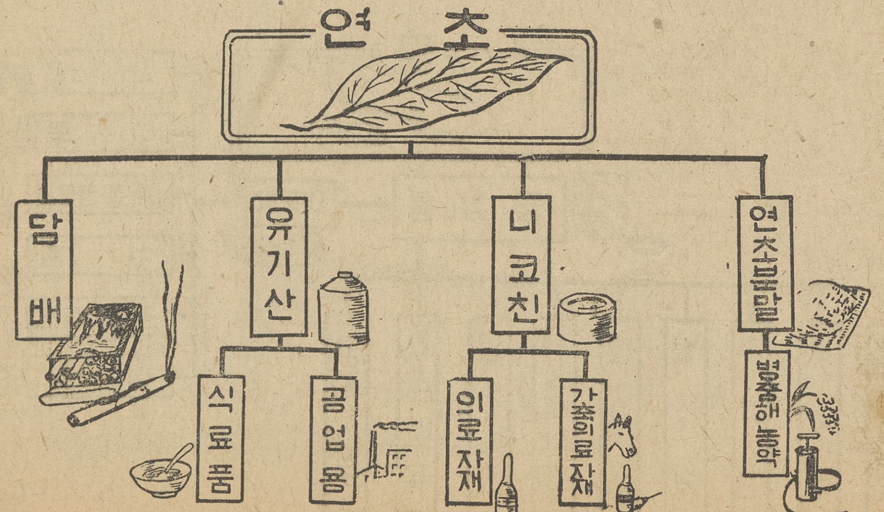
다음으로 운수 부분을 본다면 철도는 일본과 대륙을 향해 있고 조선 내부 각지를 련결하는 횡단선은 거의 없었다.

또 공장들의 위치—공업 립지에서 보더라도 공장들은 일본으로 실어가는데 편리한 지점 항구들에만 건설되였고 우리 나라 주민들에 대한 공급, 원료 산지와의 관계 등은 거의 혹은 전연 고려되지 않았다.

이러한 식민지적 편파성, 기형성 때문에 우리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민 생활을 위한 경공업, 특히 식료품 공업은 거의 가지지 못하였으며 자주적 인민 경제의 기초의 기초로 되는 기계 공업이라고는 전연 없었으며 기타 많은 지장과 손실을 당하고 있다.

▲ 혁명자적 자주성

여기서 말하는 혁명자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혁명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나 로동당원들을 두고 말한다. 그들은 언제 어데서나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행동하여야 하며 조직 규률에 복종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조직상의 어떤 상부라 하여 비당적 비계급적 립장에서 행동하던가 하부에 어떤 것을 요구 또는 지시하는 경우에는 아무리 하부라 할지라도 결코 맹종하거나 융화 묵과할 것이 아니라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이를 거부 또는 비판할 줄 알아야 하며 또 상부가 비록 원칙적 립장에는 섰으나 하부의 실정을 잘 모르고 분명히 실천 불가능한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도 역시 무조건으로 접수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의견을 제기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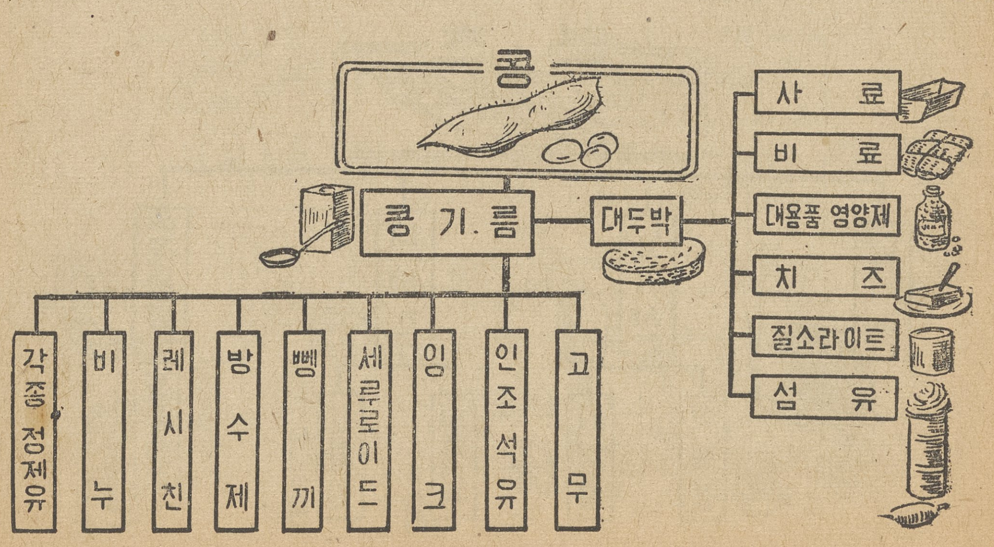
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혁명자적 립장、 당적 계급적 립장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줄 알며 옳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맹종하지 않으며 묵과、 융화하지 않으며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덮어 놓고 접수하지 않으며 원칙적 립장에서 비판하며 거부하며 제의할 줄 알며 당원의 권리를 행사할 줄 아는 태도와 능력、 이러한 것을 혁명자적 자주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족주의

낡은 사회에서의 가족 성원들 간에는 육친적 애정、화목、관용、 호상간 료해와 신뢰 등의 이러한 낡은 도덕이 지배하며 조직적 규률이라든가 비판과 자기 비판이라든가 원칙성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오늘 우리들의 집단 생활、 조직 생활、 례하면 당 단체、 사회 단체 또는 그 지도 기관들、 국가 및 경제 기관들에서 그 성원들이 이러한 가족 성원들과 같이 호상간 료해하고 친숙한 데로부터 엄격한 조직적 규률과 질서 례하면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의 원칙、 유일 관리제、 책임 분공과 개인의 책임에 대한 엄격한 요구성、 엄격한 로동 규률、 결함에 대한 비판과 자기 비판 등이 없이 산만하게 무규률적으로 사업하며 결함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지 않고 서로 융화 묵과 타협하는 경향、 이것은 가족주의다。 가족주의의 분위기、 가족주의적 작풍 등으로 쓰인다。

▲교조주의

종교 또는 신앙 생활에서 확립되여 있는 원리 또는 신조를 교리 또는 교조라고 한다。 그것은 물론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며 종교적、 관념론적 독단이며 허구인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교리 또는 교조에 대하여 토론할 수도 겸토할 수도 없으며 의혹을 품을 수 조차 없으며 다만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런데 맑스―레닌주의 과학에 있어서의 모든 명제들과 원칙들은 그것이 과학적 진리라고 해서 어데서나 어느 때나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맑스―레닌주의 리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다。 그것은 매개 나라들의 구체적 현실에 맞도록 창조적으로 적용되여야 하며 따라서 우선 창조적으로 학습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종교에서의 교조와 같이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것으로써 학습을 대치하며 어데서나 언제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교조주의다。 승려들이 경을 읽듯 하는 학습에서의 독경주의는 교조주의의 한 표현이다。 교조주의는 형식주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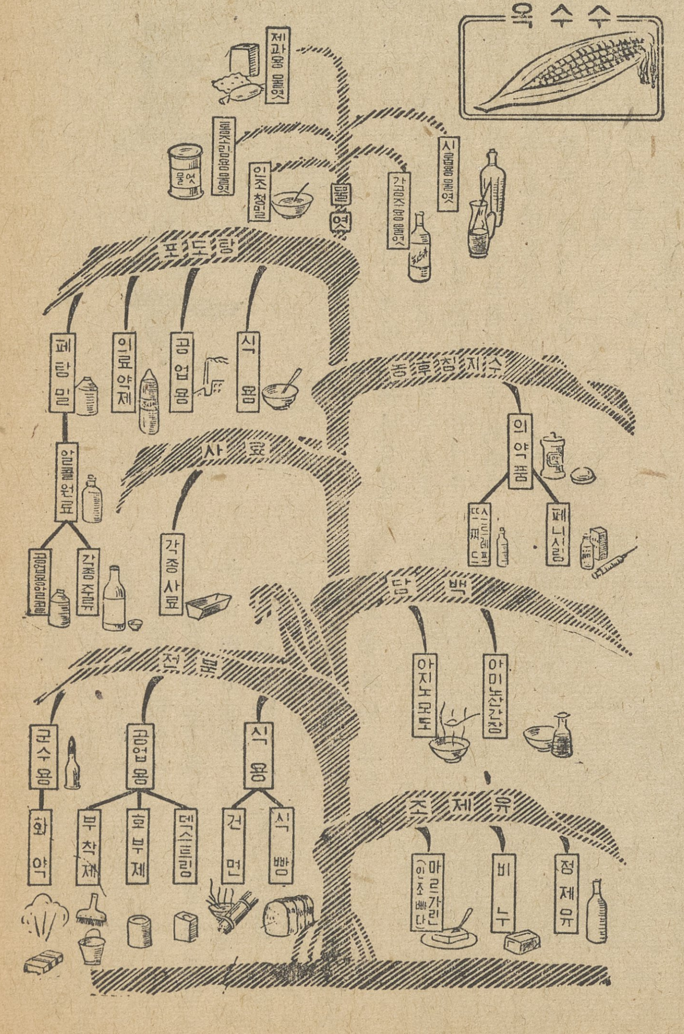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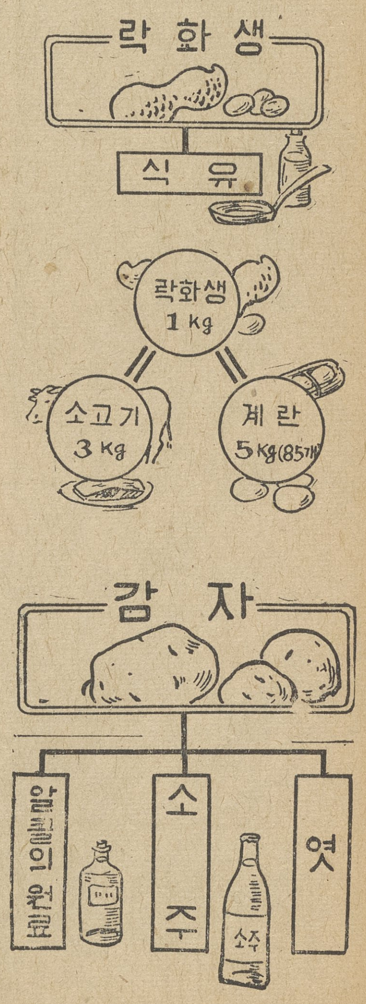
와 밀접히 련관되며 또 이것과 마찬가지 것으로 될 수도 있다。

▲공명심

개인의 공로를 세우고 명성을 떨쳐 보려는 심리로서 개인주의의 한갖 표현이며 출세욕、 개인 영웅주의와 밀접히 관련되며 혹은 이들과 다분이 같은 내용을 가지기도 한다。

봉건 사회에서나 부르죠아 사회에서는 개인의 공명심은 보통 현상이였으며 혹은 공명심이 많은 사람은 큰 뜻을 품은 사람으로 간주되여 오히려 찬양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인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명심은 어데까지나 낡은 사회의 개인주의、 개인 영웅주의의 잔재로서 맑스―레닌주의에 특징적인 집단주의、 호상 협조、 공동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 장애로 되는 것이며 특히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아닌、 남의 로력의 결과를 가지고 자기의 공로로 내세워 명성을 날리고 출세를 하여 보려는 데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더욱 유해로운 것이다。





오체르끄

공청호수

홍 건

五월의 쓰따리나바드는 몹씨도 무더웠다。 조선의 삼복 더위 이상이였다。 그럴 수 밖에…… 따지끄쓰딴의 수도―쓰따리나바드는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 적도가 바로 그 등허리를 자르고 뻗은 인도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직사 태양에 땀이 련종 귀밑으로 흘러 내리고 온몸이 땀에 흠씬 젖었다。 땀의 세례를 받아 호졸군 하게 된 우리 일행의 몰골이 보기에 좀 딱했든 모양인지 안내하는 쏘련 동무가 『따지끄쓰딴의 여름은 인도의 겨울만큼도 덥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를 웃기였다。 그리고 공장들을 견학할 오후의 스케쥴을 변갱하여 우리를 시내에 있는 공청 호수(共青湖水)에 안내하였다。

공청 호수는 주위가 三키로쯤 되는 인공적으로 파진 호수이다。 더위를 피하여 몰려온 사람들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일행도 옷들을 훌훌 벗고 풍덩풍덩 물속에 뛰여들었다。 세계의 지붕인 빠밀 고원에서 눈녹은 물이 흘러흘러 고인 이 호수의 물은 행결 찼다。 내가 바로 사랑스러운 따지끄쓰딴의 공청원 쥬마예브 홀까슈 동무를 알게 된 것이 바로 이 호수에서였다。 그는 고급 중학교 졸업반 학생이였다。 우리는 같이 수영도 하고 숨박곡질도 하고 뽀드도 타는 사이에 벌써 느닷없이 친해졌다。 호수가의 백사장에 엎디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졸업한 후 물론 대학엘 가겠지』 라는 나의 질문에

『아니요』 라고 그는 뜻밖에 도리를 흔든다。

『그럼?』 하고 나는 의아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 보았다。

『나는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하고 또렷 또렷이 말마디마다 뒤를 눌러 가며 말하였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 나의 눈은 다시 한번 둥그래졌다。

『네!』 하고 그는 농말이 아니라 진담이라는 듯이 나를 말끄럼히 쳐다 본다。

『아버님과 같은 사람이라니……학잔가』

『아니요』 하고 도리를 다시 한번 흔들고 나서 이번에는 어디 한번 마쳐보라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며 나를 쳐다 본다。

『그렇다면 당이나 정부의 요인인가?』

『아니요』 계속 생글생글 거릴뿐……

『옳지 인민 배우 아니면 작가…』 하고 이번에는 나도 자신 있다는 듯이 다우쳐 물었다。

『아니요』 하고 이번에는 킥 킥 소리까지 내여 웃어댄다。

『모르겠는데…』 나는 다분히 멋적어졌다。

『나의 아버지는 로동자예요。 보통 로동자에요』 라고 그는 나의 멋적어진 감정을 풀어줄 심으로 인제야 꼬투리를 까보인다。

『그래?!』 하고 나는 뜻 깊게 고개를 끄덕이였다。

『네』

『그래 보통 로동자라면서 어째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구 하는가?』 하고 재우쳐 물으니까 그는

『그 사정은 제 아버님께 들으세요。 거기에는 재미있고 아주 심중한 유래가 있답니다。 아버님은 저기 로천 식당에서 비루를 마시고 계셔요、 어서 가요』 하고 나를 막 끌어댄다。

『그럼 가 보지』 하고 나는 그가 끄는대로 그의 아버지가 앉아 있다는 로천 식당으로 발을 옮겼다。

× ×

『자 앉으십쇼。 영웅 나라에서 온 친구…자 씨원한 비루를 드십쇼』

쥬마예브 동무의 부친은 나를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는 五〇세쯤 되여 보이는 건장한 로인이였다。

앙가바틈한 키에 떡 벌려진 어깨 둥글납짝한 얼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코、 두툼한 입술、새까만 코 수염 등 거저 보통 로동자의 다무진 모습이다。 그리고 깔끔한 감정이란 조금도 느낄 수 없는 터분한 한두마디만 주고 받으면 곧 친해질 그런 인상이였다。 청년이란 조급한 법이라 쥬마예브 동무는 우리가 서로 흔히 주고 받아야 할 인사의 말도 끝나기 전에 내가 찾아 온 사연을 자기 아버지에게 전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허……좋습니다 해 드리지요、 패 긴 이야기요、 이야기란 길면 재미 적은 법인데 자우간 시작해 봅시다』 하고 그는 남은 비루를 꿀떡꿀떡 다 마시고 나서 이야기의 실머리를 풀어 놓기 시작하였다。

× ×

―나의 고향은 빠밀 고원이지요、 빠밀 고원을 아십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지대지요。 흔히 지구의 지붕이라고들 말합니다。 또 우리들은 흔히 우리 고향을 천당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들 말한답니다。 제일 높은 봉우리가 쓰딸린봉인데 그 높이가 七、四九五메터나 되지요。 내가 살든 부락은 四、〇〇〇메터 높이에 있었는데 五、〇〇〇메터 높이까지도 사람이 살 수 있답니다。 여기선 구름이 항상 발밑에서 감돌고 우로는 태양을 우러러 보며 밑으로는 비가 내리는 것을 굽어 보군했답니다。 따지끄쓰딴에는 겨울이 아주 짧지만 거기에는 아주 겨울이 긴 셈이지요。 七월에 가서야 겨우 봄이 오구 그나마두 한 四〇일 밖에 계속되지 않습지요。 겨울과 겨울사이에 쥐꼬리만한 봄이 조금 끼인 셈이지요、 거기서 어떻게 뭘 먹구들 사는가구요。 옛날에는 양을 치구 양털로 옷을 짜 입고 양고기를 먹고 살았죠。 그리고 혁명 후에는 미츄린의 포도가

밀이 자라게 됐지요. 이왕 빠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더 고향 자랑을 하게 내버려 두시요, 우리 빠밀의 자랑은 첫째로 대 빙하요, 깊이가 五〇〇메터, 길이가 八〇키로메터나 되는 길고 깊은 얼음 강이 흐르고 있답니다. 태고로부터 지금까지 말이요. 이것이 우리 따지끄쓰딴의 농업의 원천이지요, 이 대 빙하가 밑으로 내려옴에 따라 조금씩 녹아 흘려서 모인 것이 우리 고향의 또하나의 자랑인 『검은 호수』요. 九〇〇립방메터나 되는 이 호수에 사시장철 물이 그득 차 있답니다. 이 호소가 따지끄쓰딴 끼르끼쓰에로 흐르는 여러 강줄기의 발원지이지요. 강우량이 정말 적은 우리 따지끄쓰딴에서는 이 강물들이야 말로 생명수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씨야 사람들이 볼가강을 어머니의 강으로 부르듯이 우리 따지끄 사람들은 이 대 빙하를 어머니의 강물이라고 사랑들한답니다. 고향 자랑은 이만하고……자우간 사람들이란 참으로 자기를 낳고 길러준 고향, 자기의 조상의 뼈가 묻혀 있는 고향 땅을 사랑하는 것만은 사실이요. 추위, 눈사태 등이 생명을 시시각각으로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고장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고 수천년을 그대로 살아 왔지요. 물론 지금도 살고 있답니다. 혁명 전의 우리들의 생활이란 문자 그대로 원시적이였소, 그런데 이런 산중에도 위대한 一〇월의 불길이 불어왔소. 一九二四년에야 비로소 빠밀 고원이 혁명의 세례를 받게 됐지요. 나는 一〇월 혁명이 가져다 준 가지가지의 전설적인 이야기에 몹씨도 흥분했었소. 더우기 모쓰크바, 레닌이 계시는 모쓰크바에 꼭 가보고 싶은 충동에 미칠 지경이였소. 그리고 나두 꼭 레닌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맘이 샘물 솟듯 했소. 완고한 나의 아버지는 나의 모쓰크바행을 적극 반대했소. 그러나 나는 몰태 빠밀을 떠나고 말았소. 집에 한마리 밖에 없든 당나귀를 훔쳐 타고 말이요. 그때 내 나이는 열 일곱살이였소. 모쓰크바가 먼줄은 미리 짐작은 했지만 세상에 그렇게 먼줄이야 몰랐소. 덜렁 덜렁 나귀등에서 흔들거리며 한달을 내려와도 그만 두달을 내려와도 그만 가도 가도 계속 산 뿐이였소. 나와 나귀는 지칠대로 지쳤소. 석달 백날만에야 겨우 평지에 이르렀소. 즉 지금의 이 쓰따리나바드에 도착한 셈이요. 흙집이나마 집들이 쭉 늘어선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아! 여기가 바로 모쓰크바로구나』하고 기뻐 웨쳤소. 그래 지나가는 사람을 붓잡고 무르랬드니 모두가 나를 보구 슬슬 피하지 않겠소. 그럴수 밖에 없든 것이 석달 열흘동안 세수를 한번도 안 했지, 게다가 떠날때 입었든 의복이 너털너털 꿰지고 찢어지고 주제가 말이 아니였으니까요. 당나귀라는 놈두 먹지를 못해 파리할때루 파리해서 몰골이 아주 흉하였소, 날은 저물어가구 배는 고프구 정말 난처하두군. 그런데 나와는 옷차림이 다르고 얼굴 모습도 다른 한 청년이 내앞으로 다가오질 않겠소. 그가 바루 내가 생전 처음 본 로씨야 사람이구 또 공산당원이였소. 그의 이름은 안드례예브인데 당의 위임으로 따지끄쓰딴의 공청 조직을 책임지고 공작하든 동무였소. 그 동무가 날 자기 숙사로 안내해 주었소. 그날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모쓰크바행은 중지할 수 밖에 없게 됐소. 당나귀를 타고 一,〇〇〇날을 가두 못가는곳이라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단말이요. 더군다나 나의 큰 방조자였든 당나귀가 그날밤 죽어버리고 말았으니. 이젠 정말 절망이죠. 어떻든 모쓰크바에 갈 수는 없구 그렇다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구 큰 소리를 치고 떠나 온 이상 고향에 승겁게 다시 돌아갈 수도 없구 해서 결국 쓰따리나바드에 주저 앉게 됐소. 『위대한 사람』이 될려는 나의 원대한 희망이 하루밤사이에 눈 녹듯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소. 그후 나는 안드례예브 동무의 주선으로 공청에 가입했소. 정말 참된 생활의 이야기는 지금부터요. 나의 빛나는 공청 생활이 시

작됐소. 안드례예브 동무가 나에게 직접 많은 교양을 주었소. 어떤날 밤 그는 내가 고향을 탈출하게 된 동기를 듣고 나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소.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일가요?』

나는 서슴치 않고

『레닌 같은 사람이죠, 물론!』라고 대답했소.

그러니까 그는 계속 『그렇다면 어째 레닌이 위대한 사람일가요?』라고 물었다.

『그건…그건…』이번에는 나의 말문은 그만 막히고 말았소. 빙긋이 웃고 난 안드례예브 동무는 다음과 같이 나에게 이야기했소.

『위대한 사람이란 별사람이 아니요. 당에 가장 충실하구 인민을 위해 땀을 더 많이 흘리는 사람이요…』

나는 이 말이 그 때에는 알것두 같구 모를 것두 같구 아리송송했었소.

그후 나는 주로 안드례예브 동무의 부관격으로 늘 그를 따라 다녔소. 어떤날 우리는 농촌엘 갔었는데 그때의 농촌이란 한심하기 짝이 없었소. 이고장은 정말 비가 드물게 오우. 때문에 비가 제때에 새 눈물만큼이라두 와줘야 겨우 농사 비슷한 것이라두 짓지 그나마두 않오면 농민들은 빼빼 마른 두 팔로 잔등과 맞붙은 뱃살을 움켜 잡고 앉아 있을 수 밖에 없었소. 그 다음엔 기아와 방랑 생활이 남았을 뿐이였소, 정말 물이 절대로 필요했소. 참 『저 나스레찐의 모험』이란 영화 보셨지요, 한목음의 물 때문에 딸까지 팔지 않습디까?! 그렇게 이 고장에서는 물 한모금이 중요하답니다. 만일 귀중한 손님이 오면 더운 물을 한사발 대접하는 것이 큰 자랑이지요. 이건 여담이고…자우간 그 당시 우리 농촌에는 물이 절대로 필요했소. 문뜩 나에게는 빠밀 고원의 검은 호수 생각이 났소. 그곳엔 물이 그렇게 흔한데… 그놈의 물을 끌어왔으면…… 나는 이 이야기를 안드례예브 동무에게 했소. 그랬더니 안드례예브 동무는

『옳소, 물을 위한 투쟁, 이것이 따지끄 인민들의 삶을 위한 투쟁이요, 물을 끌어옵시다. 당은 벌써 계획하고 있소. 우리 공청원들은 우리 당의 호소에 출선 나서야 할 것이요…』

따지끄 벌판에 물을 끌어오기 위한 관개 공사는 곧 시작됐소. 우리 공청원들은 당의 호소를 받들고 날든 새도 타죽는다는 『죽음의 벌판』으로 용약 달려갔소. 그때에는 아직 우리 쏘련에는 모든게 충분하지 못했소. 더우기 기중기며 뜨락똘이며 불도젤따위가 어떤 것인지 우린 이름조차 몰랐소. 가지고 있는 기구란 오직 삽, 괭이, 그리고 우리들의 몸과 그리고 불타는 심장들 뿐이였소, 상상을 좀 해보우, 곱뿌에 떠논 물이 곧 끓어 넘치는 그런 더위에서 땅을 파든 우리를 말이요. 난 작가가 아니여서 잘 표현은 못하겠지만 당신은 작가니까 능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고 믿소, 매일 우리는 물 대신 쩝쩔한 땀으로 목욕을 했소. 마라리야가 류행했소, 설상 가상으로 반동들의 습격이 빈번했소. 일사병에 쓰러지는 동무들이 나날이 늘어갔소, 의약품이 부족하지, 식량이 부족하지, 거기에다 물까지 부족하니…… 우리 공청원 중에는 슬금슬금 다라나는 사람도 없지 않았소. 그러나 우리는 물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소. 아니 멈출 수도 없었소. 그것은 물 없는 따지끄는 생명없는 따지끄와 마찬가지기 때문이였소. 공청원들의 피와 땀과 들끓는 심장으로 하여 드디여 一七五키로메터에 달하는 운하가 완성됐소. 죽음의 벌판에 어머니의 강 빠밀 고원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소. 아니 그 금 같은 물이야 말로 우리 공청원들의 땀이요, 죽음의 벌은 행복의 벌로 변했소. 꼴호즈, 쏩호즈가 일어나고 농민들의 생활은 꽃 피기 시작했소, 옛날엔 승냥이만 울부짖든 벌판에서 지금은 우리 쏘련에서 가장 우수한 목화가 가장 많이 산출되지요……지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농민들의 행복을 위해 한잔 들

구…… 아… 씨원하다。 그럼 계속합시다。 우린 관개 공사를 끝마치고 작가들의 표현을 따서 정말 개선가도 드높이 쓰따리나바드로 돌아 왔소。 그때 쓰따리나바드는 아까도 조금 언급했지만 흙지붕을 올린 집들이 포갬포갬 나란히 서 있는 조그마한 촌락에 불과했소。 그런데 우리가 농촌에서 돌아 왔을 때에는 놀랄만큼 달라졌소、 근대식 건물들이 서기 시작하고 새로운 넓은 도로가 쭉쭉 가루 세루 뻗구 건설、 건설 일색이였소。 참 지금 평양이 그렇게요。 그런데 여기서두 역시 귀한 것은 물이였소。 건축 로동자들이 정말 하루의 피로를 풀 목욕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조차 모자라는 형편이였소。 빠밀 고원에 있은 검은 호수 같은 것이 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면…… 나는 문뜩 이런 생각에 잠겼소。 안드레예브 동무가 깊은 생각에 잠긴 나의 어깨를 툭 치고

『위대한 사람 모쓰크바에 안가십니까』 하고 빙긋 웃어 보이질 않겠소。

그래 나는 그 물음엔 대답두 않구

『호수를 팝시다 호수를……』 하고 불쑥 웨쳤지요。

『호수?』 하고 안드레예브 동무는 눈을 휘둥그레 뜨질 않겠소。 그래 나는 나의 생각을 설명했지요。 그 다음날 곧 공청 회의가 소집되였소、 쓰따리나바드 시내에 큰 호수를 파기로 만장 일치로 결정했소。 농민들을 위해 땀을 아낌없이 흘린 우리 공청원들은 이번에는 도시 주민들을 위해 땀을 흘리기 시작했소。 자 보시요、 바로 이 공청 호수가 우리 손으로 판 것이요、 이 호수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겠지요… 자우간 이 호수 역시 우린 삽과 괭이로 팠소。 우린 매일매일 씨원한 빠밀의 물에 목욕할 날을 그리며 또 다시 땀의 목욕을 시작했소、 결국 한때 『위대한 사람』을 꿈꾸든 나는 한낮 땅 파는 두더지가 된 셈이지요 하……땀에 흠박 젖은 두더지 말이요 하……이 호수가 완성되구 두신데 강물을 끌어대는 날이야기를 좀 합시다。 큰 웅덩이에 물이 흘러 들기 시작했소。 우리 공청원들은 모두 웅덩이 속에 뛰여들었소 쓰따리나바드 시민들은 모다 웅덩이 둘레에 뫼여섰드랬소。 물이 점점 무릎、 배、 가슴 이렇게 올라왔소、 물이 곧 우리 키를 넘었소。 나는 그때 누런 흙탕물을 한 바께쯔나 마셨을게요、 너무 기뻐서 말이요。 시민들은 우리에게 꽃다발을 안겨 주고 부둥켜 안아들 주었소。 우리는 모두 울었소。 눈물로 목욕을 할 정도로。 우린 무한히 기뻤든 것이요。 이날의 감격、 이날의 기쁨을 난 지금도 잊을 수 없소。



그때 당 비서 동지가 이렇게 연설했소。

『이물은 다름아닌 공청원들의 땀이요』

과연 우리가 흘린 땀이 아마 저 물만할께요 하…… 나는 그때 안드레예브 동무가 말하든 위대한 사람의 정의가 어렴풋이 알려지는 것 같았소。 그렇다면 나두 인젠…이렇게 자고 자대해본적두 있었소。 그러나 『아직 멀었다 요것쯤 가지고 네가 뭘 위대한 사람이냐?』 나는 이렇게 내 자신을 채찍질 했소。 아마 지금 저렇게들 재미 있게 헤염들 치는 젊은 친구들이 우리의 고생을 상상 못할게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요、 어떻든 저 애들이 더위를 한시라도 잊고 즐겁게 이 호수에서 하루해를 보낼 수 있지 않소。 중요한건 그것이요。 농민들도 그렇게요。 아마 우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두 그런 일이 있었든가 하고 고개들을 기웃둥 거릴게요。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겠소。 우리의 공로야 영원히 잊혀져두 좋지요。 그러나 문제는 그 벌판에서 앞으로도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킬 각종 곡물이 산출된다는 것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대단히 기쁘고 만족하구 나의 공청 시대가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오。

지금 우리 생활은 정말 나아졌소。 옛날에 비하면 천국 생활이지요。 이런때 흔히 젊은 친구들은 안일에 빠지기 쉽지요。 전쟁 시기에 공청원들은 용감히들 싸웠지요。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 생활이 차차 좋아진다。 그러면 청년들은 흔히 맥이 풀리게 되지요。

그러나 당이 정말 제때에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니까 안심이 되지요。 당이 부르는 길로 따라가면 청년들은 실수 없는 법이요。 누구나 다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아차 내가 교양 사업을 한 셈이군 하…… 미안하오、 네? 그럼 지금 내가 나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구 있느냐구요? 천만에… 그건 주위의 사람들이 날 그렇게 부를뿐이요、 나 자신이 그렇게 인정할려면 아직 멀었소。 나는 계속 땀을 흘릴셈이요。 공청때와 꼭 같이 말이요。 아직 난 공천원들에게 지지 않을 자신이 있소 하……

생각해 보시우 내가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인민들의 생활이 좋아지구 결국 나의 생활도 좋아지질 않소。

어떻게 땀을 흘리지 않을 수가 있겠소。 전달 피구 안락하게 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소。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셈이죠。

아차 또 교양이 시작되는군 따분하게 되기 전에 그만 해 둡시다 하……—

× ×

『아버지』의 기운찬 웃음이 끝나기도 전에 쥬마예브 동무는 나에게 말을 던졌다。

『아시겠어요? 제 졸업후 희망을?』

나는 곧

『처녀지 개간 사업』이라고 서슴치 않고 대답하였다。

『맞았어요』 그는 손벽을 쳐 가며 기뻐한다。

그리고 계속하여 자기 아버지를 넌짓이 바라 보며……

『어때요? 우리 아버님 말이예요、 위대한 사람이지요?』 하고 물었다。

『그렇소、 과연 옳소。 나는 동무도 아버님께 못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믿소』 하고 그의 손을 힘껏 쥐고 흔들었다。

공청원들의 땀으로 이루어진 공청 호수에는 저녁이 깃들기 시작했다。 아득히 높은 빠밀 고원의 산봉우리들의 흰 눈은 저녁 노을에 타고 있었다。

마치 이 나라의 젊은 공청원들의 기상인 마냥 푸르고 희고 붉게……

또다시 공중으로

제진하 (중국)



손충국 동무가 부대를 떠난지도 벌써
一년이 넘는지라 련대 정치 위원은 그
가 오늘 돌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대단
히 기뻐했다。

이 젊은 비행사는 압록강 대안 장백
현의 어느 한 산촌에서 태여났다。 그의
선조들은 대대로 조선 인민과 한 산에
서 나무를 해다 때였고 또 한 강의 물
을 먹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
자들이 조선을 반대하는 침략 전쟁을
도발하자 그는 즉시로 항미 원조 전선
에 참가하였다。 그후 그는 단 四九일 동
안의 전투에서 적기 三대를 격추 및 격
상시켰다。 그러나 그 자신도 전투 과정
에서 부상을 당한 후 병원에서 一년 이
상이나 료양 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그는 공군들이 보통입는 그 말
숙한 군복을 입고 웃는 얼굴로 정치 위
원 앞에 서 있다。 매운 바람에 그의 외
투 앞자락이 휘날리고 있다。

『손 충국 동무』 ― 이렇게 말하면
서 정치 위원은 줄곳 그의 두 다리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이였다。 그러나 이것
은 손 충국의 마음을 저윽히 불안케 하
였다。 그는 정치 위원이 어째서 그렇게
그를 노상 쳐다 보는지 알 수가 없었
다。 그런데 별안간 정치 위원이 입을
열었다 『손 충국 동무! 저쪽 원편에
있는 비행기 엄폐호를 알지요?』。

『네 압니다。 그것은 제가 과거에 탓
던 ○九호기 엄폐호가 아닙니까?』。 그
는 웬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이렇
게 대답하였다。

『좋소、 그러면 거기까지 뛰여갔다
오시오。 자、 시―작!』

정치 위원은 이렇게 구령을 치면서
빙그레 웃고 있었다。 손 충국은 정치
위원을 바라보면서 그제서야(옳지! 저
분이 아마 그래서 그러는게야)하고 대
강 눈치를 차렸다。 그는 속으로 (내가
잘 뛰는지 못뛰는지 찬찬히 좀 보세요)
하고 생각하면서 휙 돌아 서서는 그 엄
폐호 쪽으로 뛰여 갔다가 순식간에 정
치 위원 앞에 와서 섰다。 바로 이 때에
동무들이 사방에서 와 몰려나와 법석을
대면서 그를 에워쌌다。 정치 위원은 너
무 기뻐서 소리내 웃은 다음 그의 량
어깨 우에 손을 얹고 말하는 것이였다。

『자、 그것들을 다 내노시오』。

손 충국은 퇴원증、 비행 합격증、 감
정서 등등이 들어 있는 증명서 무끔을
꺼내여 정치 위원에게 선뜻 내밀었다。

一九五二년 四월 二一일。 나무가지
들에는 겨우 움이 트기 시작하였고 서
북풍은 아직도 쌀쌀하다。 새벽 같애 자
리를 차고 나오니 바깥은 아직도 캄캄
하여 열발자국 앞에서 오는 사람의 얼굴
을 알아 볼 수 없는 지경이다。 연유 보
급차、 충전차、 견인차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이리 저리 바삐 돌아다닌다。 비행
사들은 비행기 점검에 분주하다。 손 충
국은 아직 조반도 못 먹은채 점검을 막
끝낸 판인데 누구인지가 『붉은 기가 꽂
혔소』 『전투 직일관 동무』하고 웨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는 재빨리 좌
석에 뛰여올랐다。 뒤이여 『광! 광!』
하고 두 발의 총성이 들리드니 록색 신
호탄이 류성과도 같이 포물선을 그리며
채 밝지 않은 하늘 저쪽으로 사라졌다。
그는 혼자서 「오늘은 틀림없이 적정이
심할거야……」하고 생각하였다。 발동
기는 울부짖기 시작하였다。 누구인가
그에게 무엇인지 갔다 안긴다。 그것은
비스켓트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입
에 넣어 볼 생각도 못하고 곧 리륙하
였다。

이 날의 전투 임무는 압록강 철교를
보위하는 것이였다。 이 날은 퍽 흐린
날씨여서 적기들은 이 날씨를 리용하여
우리의 후방 보급선을 차단해 보려고 망
상하였다。 전투 구역까지 급행하자 우
리 련대는 저공으로 출발하여 삽시간에
압록강 상공에 다달았다。 그러나 이 때
자기들의 기도가 이미 발견된 것을 안
적기들은 목적지에 채 도착하기 전에 폭
탄을 내 던져 버리고 추격기들의 엄호하
에 도주하였다。 우리의 미끄들은 추격
을 개시하였다。 등잔 만해진 손 충국
의 눈동자는 잠시도 적기를 놓치지 않
았으며 그의 우기인 곽무괴의 비행기가
그와 나래를 걸고 나아갔다。 그들은 전
속력을 내서 급히 적기에 접근하여 적
기를 『이동식 조준경』에 넣은 다음 단
추를 누르니 적기는 싯거먼 연기를 내
뿜으면서 조선의 서해바다 깊이 사라져
버렸다。 이때에 지상 지휘처로부터 『삭
주로 가서 적기를 막아내라』는 긴급 명
령이 내렸다。 그는 이 긴급 명령을 집
행하는 데만 골몰하여 그만 자기 우기
와의 련락이 끊어졌다。 목적지의 절반
쯤 까지 갔을 때 돌연 전면에 에프 八
六형 적기 四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
다。 그 후면에 또 四대가 있었다。 그는
적의 포위망에 들었던 것이다。 그는 즉
시로 고도를 높여 적기보다 높은 위치
를 취하였다。

적기는 점점 더 접근해 왔다。 그들 공
중 날강도들은 八대나 되는 력량으로써
이 쪽의 『미끄』단 一대를 상대하면 되
는것 만큼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놈들은 조급히 발포하지 않고
더욱 접근하려 들었다。 손 충국은 꾀를
내여 비행기를 좌 상방을 향하여 한번
선회하였더니 자기를 공격하려던 적 지
휘기를 바로 눈앞에 볼 수 있었다。 그는
잘 묘준한 다음 지긋이 단추를 눌렀다。
이 때 다른 적 에프 八六 一대가 그의
눈앞으로 달려 들었다。 바로 이 때 좌측
상공에 있던 적기가 사격해 왔다。 그의
비행기는 三차에 걸쳐 적탄을 맞았다。
그리하여 좌석 내부는 연기가 자욱하고
휘발유 냄새가 코를 찔러 마치 질은 안
개에 휘감긴 것 같이 되였다。 고도계의
바늘은 비행기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다
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다。 손 충국은
곧 중대장에게 정형을 보고하는 한편
전력을 다해서 비행기를 조종하였다。
그는 비행기가 맹렬한 속도로 하강함에
따라 불이 자연히 꺼질 것을 기대하였
다。 이 때에 붉은 비상 신호등 전체에
불이 켜졌다。 이는 비행기가 곧 폭파하
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였다。 밖을
내다보니 고도는 불과 二○○―三○○
메터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형
하에서 좌석 밖으로 뛰여나간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이 보통 상식으로 되
여 있다。 그러나 손 충국은 아주 태연
자약하게 휙 뛰여 내렸다。 순간 몸에 무



서운 타격을 받은 것은 알았으나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적기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적기들이 남겨 놓은 무수한 비행운이 이제는 호수와 같이 푸른 하늘 우에서 엷고 엷은 구름의 떼로 변하고 있었다。 손 충국은 정신이 들었다。 온 전신의 맥이 다 풀리고 너무나 목이 말라 가슴에 곧 불이 당길 것만 같았다。 때마침 멀지 않은 곳에서 졸졸 흘러내려가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저 단숨에라도 그곳까지 뛰여 가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다。 두 다리는 그 야말로 까딱할 수도 없었다。 슬며시 머리를 들고 돌아보니 그의 온몸은 피로 맥질을 하고 있었고 절단된 그의 대퇴골이 한치가량 근육 밖으로 솟아 나와 있었다。 그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였다。 그의 머리 우 나무가지에는 적의 포탄을 맞아 거미줄 모양으로 엉킨 락하산이 매달려 있었고 그 우에 새가 몇마리 앉아 재재거리고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리를 질질 끌며 개울을 향해 기여갔다。

물은 소리를 내며 눈 앞을 흐르고 있었다。 산곡간에 흐르는 물은 유리와 같이 맑았고 그 맑은 물이 바위에 부디쳐 은빛으로 빛났다。 그는 급히 두 손으로 물을 웅키여 입에 갖다 대다가는 깜작 놀란듯이 쏟아버렸다。 그리고서는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였다—「안돼 절대로 마셔서는 안돼」하고。

그 곳은 사람들의 래왕이 극히 드문 골짜기였다。 바람이 휘 몰아치며 지나갈때마다 해묵은 나무잎들이 서글프게 맴돌이쳤다。 그는 마음을 걷잡을 수 가 없었다。 그는 「여기는 인가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일가? 잘못하다간 이대로 그냥…… 피가 아직도 흐르고 있으니 시간이 오래 되면 대단히 위험하단 말이야」하고 생각하다가는 또 「아니다! 나는 적어도 지원군 전사가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하고 결심을 하는 것이였다。 그는 권총을 꺼내여 하늘에다 대고 몇방 쏜 다음 시냇물을 따라 다리를 끌며 기여갔다。 그는 한참 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있는 벼랑에 마주쳤는데 반나절을 두고 빙빙 돌아도 도무지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를 악물고 벼랑을 따라 기다가는 그만 기진하여 한참 굴어 떨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또다시 정신을 잃었다。

깊은 밤이였다。 어느 한 조선 할아버지가 그를 어느 진료소까지 업어왔다。 그 할아버지는 어데서인지 뜨거운 입쌀

죽을 들고 왔다。 손 충국은 그 죽을 단숨에 다 마시였다。 조선 인민의 따뜻한 사랑과 전우들의 살뜰한 배려가 그의 마음을 포곤히 녹여 주었다。 이 때서야 그는 자기가 하루종일 밥을 먹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 주머니 속에서 급히 비스켓트 몇개를 꺼내였다……。

구급 환자 진찰실에서는 六、七명의 의사들이 되여 손 충국 동무의 상처를 진찰하였다。 젊은 담당 의사는 종시 눈쌀을 찌프리고 있었다。 마치 자기 자신이 큰 고통을 가진 사람모양으로。 방안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의사 동무、 나는 다시 비행하게 되겠습니까?』 손 충국은 그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물었다。

의사들은 서로 눈짓을 하더니 한참만에야 그 젊은 의사가 입을 열었다。 『그렇게 조급히 굴지 마시요。 동무는 무엇때문에 후에 생각해도 될 일을 미리 근심하오』。

별안간 창문 밖에서 요란한 찌프차의 나팔소리가 울려와 방안의 정적을 깨트렸다。 잠시 후 녀 간호원 동무 하나가 종종 걸음으로 방안에 들어왔다。 그는 손 충국 쪽을 한번 힐끗 쳐다보더니 의사를 향해서 『부대에서 환자 동무를 만나러 왔습니다』하고 말하였다。

그 젊은 의사는 고개를 끄덕한 다음 손님들을 안내하라고 손짓을 하면서 가벼운 어조로 『우리들은 나가서 잘 연구해 보십시다』하며 나가버렸다。 다른 의사들도 그의 뒤를 따라 나갔다。

손 충국은 입구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 볼그레한 두 볼을한 녀 간호원에게 안내되여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자 그만 『정치 위원 동무…』하고 고함을 쳤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하였으나 정치 위원이 곧 그를 붓잡아 도루 눕혔다。 정치 위원은 그와 악수한 다음에 『눕소、움직이면 안되오』하고 말하였다。 정치 위원을 보자 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정치 위원 동무、 나는 다리가 부러졌습니다』—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사실인즉、 그는 계속해서 『그래서 다시는 비행할 수 없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려 하였던 것이나 화제를 돌려서 『동무들은 다 잘 있습니까』하고 물었다。

정치 위원이 채 대답하기도 전에 갈이온 손 충국의 비행기 정비원이 대답하였다。

『동무들은 다 잘 있소。 이번 전투에서 우리는 압록강 철교를 끊어 놓으려는 적의 기도를 분쇄하였는데 우리 부대만 하여도 적기를 五대나 격추하였소。 동무들은 지금 손 동무가 하루 바삐 돌아올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소……』。

『나를 기다린단 말이요?……』

정치 위원은 이 고뇌에 싸인 청년 비행사를 바라보면서 곧 말을 이었다。

『손 충국 동무、 급할게 없소。 안심하고 잘 쉬오。 그것이 현재 동무에게 부과된 과업이오……』。

『현재는 그렇다 하고…… 그러면 금후는?……』 손 충국 동무는 혼잣 소리 모양 이렇게 말하였다。

『금후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나는 의사가 아닌 것만큼 금후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소。 동무는 한개의 공산당원이며 공산당원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소。 당은 한개의 보통 전사에 지나지 않던 동무를 가장 현대적인 무기를 다루는 전사로 만들었으며、 당은 동무로 하여금 二중 三중의 적 포위 속에서도 적기를 격추하게 하였으며、 당은 동무로 하여금 심산 유곡에서 끊어진 다리를 끌고 기여 나오게 하였소。 그러므로 그것은 물론 동무가 금후 다시 비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이요。 동무는 「참된 사람의 이야기」란 그 훌륭한 영화를 구경하였소?』

『네 구경했습니다』

『그는 곧 우리 생활의 귀감이오。 손 충국 동무! 곤난이란 항시 존재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극복하여야 하오。 우리 공산당원들은 특수한 재료로 만들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로 곤난 앞에 뒷걸음질 치는 법이 없는 것이요』。

정치 위원의 이야기는 돌격 직전의 명령 모양으로 손 충국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그는 마음 속으로 생각하였다 ―― (메리찌예브도 다시 비행할 수 있었으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의사들은 여러가지로 연구를 거듭한 후 손 충국의 상처에는 염증이 생겼으므로 절단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의하면 설사 상처에 염증이 생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 매디로 부러진 대퇴골을 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즉시 절단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였다。

그러나 손 충국은 절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병원 측은 환자 자신이 여러 차례 완강히 주장하는 바람에 최후의 단안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이 날이였다。

손 충국은 침대 우에 누어 있었는데 그 두 볼이 볼그레한 간호원 한 동무가 희색이 만면해가지고 들어와 그에게 말하였다。

『손 충국 동무、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동무에게 「골봉합」을 해드릴 것입니다』。

『아니 「골봉합」 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건가요、간호원 동무。나의 다리는 절대로 절단하여서는 안됩니다。나는 아무리 아파도 참겠으니까요。동무、내 대신 의사에게 잘 좀 말해주시오』

『동무의 다리는 절단되지 않을터이니 안심하세요……』。

한 동무는 누구하고 말할 때든지 그 말씨가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아 말끝마다에 감탄부를 찍어야만 마땅할 것 같다。

『「골봉합」을 한다는 것은 별게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동무의 부서진 다리 뼈들은 아무렇게나 붙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떼내서 부서진 뼈들을 잘 맞추는 것을 「골봉합」이라고 한답니다』

간호원 동무는 손 충국의 눈치를 한 번 슬쩍 보더니 보충해서 말했다。

『수술할 때에도 아무 근심 마세요。그 때 만약 출혈이 심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어요。우리 병원에 있는 동무들이 뽑아놓은 피가 대량으로 보관되여 있으니까 그것을 수혈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또 고함을 쳐서도 안됩니다。그렇게 하면……』。

그는 마치 누나가 동생을 타이르듯 그렇게 친절하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였다。손 충국은 아직도 엄마곁을 떨어지기 싫어할、소녀와 같은 이 녀 간호원을 쳐다보며 웃음이 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손 충국은

『동무가 가서 의사 동무께 전하십쇼。내 다리만 낫게 해준다면 나는 아무 것도 두려운 것이 없으니 걱정 마시라고요』。

수술이 시작되였다。한 동무는 흰 나비 모양 방안을 바삐 뛰여다녔다。열마후 그는 손 충국의 앞에 와 앉아서 늘하던 그 모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손 충국의 마음은 자기의 다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데 쏠리였었지만 그러나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의사는 이와 같은 수술이 환자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가를 잘 알고 있었다。그것은 다리에다 구멍을 몇개 뚫은 다음 뺏속으로 강철로 된 철사를 집어 넣어야 하기 때문이였다。의사는 간호원더러 환자의 눈을 싸매 주라고 하였다。손 충국은 의사의 뜻을 알아 채리고 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괜찮습니다。안심하고 어서 하세요』 하였다。

한 동무는 쉬지 않고 그와 이야기하였다。그는 별안간 썩썩 하는 소리를 들었다。뼈에 구멍을 뚫는 바람에 너무나 아파서 그는 거의 소리를 지를 지경이였다。그러나 그는 아래 입술을 깨물고 두 손으로 한 동무의 손을 으스러져라 하고 꽉 쥐였다。너무 꽉 쥐는 바람에 한 동무마져 악을 쓸 지경이였다。한 동무는 손 충국이 자기의 굳은 의지력으로

고통을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손 충국 동무、어때요 견딜만 합니까?』 하고 가볍게 물었다。

그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이에서 손 충국은 간호원이 의사보고 무엇인가 속사기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다음부터는 의식을 잃어버렸다。

손 충국은 두 차례나 『골봉합』을 하고 한번 수술을 하였으나 부서진 뼈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였다。

어느 날 아침에 그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자리에 누어 『아、나는 이제 다시는 비행기를 못 타보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그런데 이 때 간호원이 좋아서 죽겠다는듯이 헐떡거리면서 방안으로 뛰여 들어 왔다。

『손 충국 동무、동무에게 정말 행운이 찾아왔어요』 하며 명랑하게 이야기 하는 것이다。

『우리 병원에 유명한 선생님이 한분 오셨는데요、그분은 골격 전문이시래요、그저께 손 동무를 보아주신 그분 있지 않아요。바로 그분 말야예요。그분은 항미 원조 남경 의료대로서 조선에 오셨는데 정말 굉장한 분입니다。그런데 오늘 그분이 오셔서 동무에게 「식골」(植骨)수술을 해주시겠대요』。

이날 위 박사가 와서 손 충국에게 「식골」 수술을 해주었다。그의 륵골에서 뼈를 조금 떼여내다가 부서진 대퇴골에 접골시켰다。손 충국은 기부스를 하고 누어 있었다。다리의 아픔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소리없이 참아내기는 힘든 일이였다。그러나 그는 한 방안에 있는 동무들을 괴롭힐가봐 이를 악물고서는 한마디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아픔을 견디여내기 여려울 때마다 그는 이불끝을 깨물었다。때로는 그의 머리맡에 있는 편지를 읽기도 하였다。그 가운데는 전방에 있는 지휘관들과 전우들이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투에 대해서 써 보낸 것도 있고、한 병실에 있다가 다시 전방으로 나간 동무들에게서 온 편지도 있으며 또 압록강변에 있는 그의 고향에서 온것도 있었다。이러한 편지들을 읽고 있노라면 자기도 다시 전선으로 돌아가 전우들과의 친근한 우정과 유쾌한 전투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듯이 느껴지며 그 바람에 일시는 상처가 아픈 것까지 잊게 되는 것이였다。



나종에는 그의 비행기의 지상 정비원인 왕 회천、왕 양의 두 사람이 『참된 사람의 이야기』를 보내주어서 그것을 읽었다。이 책을 읽으면 몸에 비행복을 입은 키 큰 사나이 하나가 그의 앞에 우뚝 서서 로씨야 사람에게 특유한 그 큰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그는 바로 메리찌예브 그 사람이였다。메리찌예브는 놀라운 의지력과 용감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에게 무한한 용기와 힘을 주었다。그는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였다 ――

(메리찌에브는두 다리를다 잃었는데도 다시 비행기를 탔으며 뿐만 아니라 계속 전투에 참가하였다。그러면 지금 나의 경우는 그 보다 조건이 훨씬 유리한데 어째서 탈수 없단말인가? 안될 리가 만무하다)。이렇게 생각하면 자신이 또다시 『〇九호』기를 몰고 하늘 우에서 줄달음치며 흰 구름들이 비행기 옆을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다。그는 유쾌하게 웃었다。

벌써 거의 一년이란 세월이 흘렀다。이 一년동안 그는 머리말에 놓인 책속에 파묻혔었다。『참된 사람의 이야기』에 뒤이여 『로신 선집』을 읽었으며 애청의 시집이며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였는가』며 오스뜨롭스끼의 수필 론문집이며를 읽었다。그는 오스뜨롭스끼가 레닌 훈장을 받는 그 단락의 이야기를 특히 좋아하여 그의 일기장에다 따로 베껴두었다。

『우리는 자기 생활에서 로 불쉐위끼라고 불리는 그 특출한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의 영용한 투쟁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행복스럽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준 사람들을 본받으려고 많은 애를 써왔다。……비록 병이 나를 자리에 눕게 하였지만 그러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나를 교양해 준 로볼쉐위끼들한테 증명하려 한다。로동 계급 속에서 나온 청년들은 여하한 조건 하에서도 절대로 항복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나도 지난날에 용감히 투쟁하였다。운명은 나를 압살하고 나를 락오자로 만들려 하였지만 나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겠다」고 웨쳤다。그것은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였다。나는 계속 전진하였다。그것은 나의 주위에 당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였다。이제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을 맞이하는바 이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부대에 돌아가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줄 것이다』。

「다시 부대로 돌아간다? 나는 언제나 돌아가게 될 것인가?」이렇게 생각하며 손 충국이 망연 자실하고 있을 때 한 동무가 방안에 들어와선 『물 드릴가요』하고 물은 다음 그가 채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머리맡 작은 장우에다 물을 한 그릇 떠다놓고는 돌아 나가려 하였다。손 충국은 급히 그를 부른 다음

『한 동무、내 대신 위 선생께 부탁좀 해 주십시요。잠간 만이라도 좋으니까 바깥 구경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없겠는가고요……』。

한 동무는 그가 얘기 끝을 채 맺기도 전에 『네、내가 가서 물어보겠어요』하고는 뛰여나갔다。잠시 후에 그는 작으마한 밀차를 밀고 들어와서는 『선생님이 말이죠、꼭 십분 동안만 허락한다고 그러세요』하고 전갈을 하였다。

그는 문밖에 나가 누어 가없는 하늘을 바라 보았다。푸른 하늘은 비단결 같이 매끄러웠고 구름 한점 보이지 않았다。사람들은 해군 병사들이 바다를 사랑한다고들 하지만 한 비행사가 푸른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도 결코 그만 못하지 않은 것이다。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푸른 하늘이란 그야말로 천고 불변인것 같지만 늘 공중에서 생활하는 비행사가 볼 때에는 그것은 참으로 변화 무쌍하다。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들어 갑시다』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간청하듯이 한 동무를 바라 보았다。

『그런 소린 하지 마세요、벌써 시간이 넘었으니 어서 들어가십시다』하며 그는 벌써 작은 밀차를 방쪽으로 떠밀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기다리던 때가 왔다。의사는 그에게 말하기를、앞으로 일주일 후이면 기부스를 떼내게 될터인데 엑쓰광선에 의해서 감정한바에 의하면 수술 결과가 대단히 좋다는 것이였다。그는 참으로 기뻤다。……그는 방금 간호원 동무가 갖다 준 그의 전우의 편지를 뜯었다。그러나 내리 읽어나가도 거기에는 무슨 소리가 씌여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편지에는 이렇게 씌여 있었다…『一二월 四일、개인 날씨다。이 날

고공으로 매들이 한떼 날아왔다。이 새매들은 그전것과 퍽 다른 것이여서 모두들 매우 기뻐하고 있다。五〇일 동안에 토끼 열두마리를 잡았는데 그 유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고。한 방에 있는 동무들이 돌려가며 읽었으나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하며 모두들 고개를 기웃둥 거렸다。손 충국은 별안간 껄껄대고 웃으면서 『아、이전 수수께끼요』하고 말하였다。

『머、수수께끼라구?』모두들 그제서야 부대가 새로운 비행기로 장비되였으며 또 적기를 一二대나 격추하였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 차렸다。그래서 모두들 한바탕 껄껄대며 웃어댔다。손 충국은 이 괴상한 내용의 편지에 대해서 생각하였다。

(동무들은 새로운 비행기를 타게 되였다고들 하는데 나는 이 다리를 가지고 새로운 비행기를 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그의 마음 속에는 또 하나의 근심꺼리가 생겼다。그는 방안에 혼자 남게 되자 가만가만히 내려가 침대를 붓잡고 서서 조금씩 왔다갔다 해보았다。그는 너무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다。그렇지만 이렇게 하기에만도 얼마나 힘이 드느냐? 기부스를 한 다리는 그야말로 천근이나 되여 조금만 움직거려도 전신이 불불 떨리고 이마엔 식은 땀이 쏟아졌다。그러나 정치 위원의 이야기며 동무들의 편지며 그리고 또 기여히 다시 비행기를 타고야 말겠다는 신념이며가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그는 끝까지 련습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그는 기부스를 떼는 그 날부터 두 다리를 잠시도 그냥 두지 않았다。그는 방안에 누어 있지 않고 종일 바깥의 긴 복도를 왔다갔다 하며 련습하였다。앉아 있을 때 까지도 그는 부지런히 다리를 놀리였다。그렇게 하기를 얼마쯤 하니까 차차 쌍지팽이 없이도 막대기를 집고 걸어다니게 되였다。마침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로인 한분이 그에게 지팽이를 갖다주었다。그래서 그는 못을 구해다가 그 지팽이를 『T』형으로 개조하였다。그 후부터는 병원안 어데를 막론하고 그의 발자국과 그 작은 단장이 남겨놓은 오묵한 구멍이 없는 곳이 거의 없게 되였다。갑자기 쏟아진 소나비가 마른 먼지 땅 우에 남겨 놓듯 그렇게 무수히 남겨 놓은 그 작은 구멍마다에는 영웅적인 전사의 불굴의 의지와 공산 당원의 완강한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여하한 곤난 앞에서도 우리의 전사들은 항상 승리자이였다。이제는 그도 비교적 자유로이 걸어다닐 수 있게 되였다。그는 한편 자기 체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철봉、평행봉 운동을 시작하였다。어느 상쾌한 봄날 아침이였다。겨우면 동이 트기 시작하였고 공기는 유난히 밝았다。이 때 그 넓은 운동장에서 웬 사람 하나가 그의 하루 일과를 시작하였다。그가 누구였겠는가? 그는 다름아닌 우리의 손 충국 동무이였다。

그는 철봉과 평행봉 운동을 통해서 팔의 힘이 회복되여 이제는 한번에 여나무번이나 흔들기 동작을 할 수 있게 되였다。그러나 다리는 아직도 말을 잘 듣지 않았다。특히 다리를 구부리자면 매우 힘이 들었다。그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였다。『고속도 비행기를 운전하자면 다리힘이 퍽 드는데 다리를 잘 구불어뜨리지도 못하고서야 어떻게 하겠는가?……』그가 이러한 생각에 잠기고 있을 때 저쪽에서 웬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급히 달려오고 있는 것이 뵈였다。그는 즉시로 그가 간호원 한 동무라는 것을 알았다。손 충국은 몸을 움직임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따내린 머리채며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오르내리는 다리며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의 머리를 휙 스쳐지나는 상념이 있었다。그래서 그는 별안간 미친 사람 모양 고함을 쳤다。한 동무는 면바루 땅에 내려섰다。

『한 동무、이 쪽으로 와서 자전거 좀 빌려 줄 수 없을가요?』그는 숨 가쁘게 말하였다。

『빌려드리다 뿐이겠어요、아침마다 우리 있는데 와서 가져 가세요』。

그 이튿날부터는 또 병원안 어디에나 무수한 자전거 자욱이 그득했다。 그는 넘어지면 일어나서 또 집어탔다。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집어탔다。 결국 몇 번이나 넘어졌는지 또 다리를 몇 군데나 다쳤는지 자기 자신도 몰랐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자전거를 아주 솜씨 있게 탈 수 있게 되였고 그의 다리도 매일매일 단련하는데 따라 九〇도 각도로 꺾을 수 있게 되였다。

이날 위 박사는 一〇五호실로 가려고 운동장을 지나다가 손 충국과 그 밖의 몇몇 동무가 공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문뜩 걸음을 멈추고 한쪽에서 구경을 하였다。 그는 속으로 은근히 기뻤다。

손 충국은 그날 밤에 그의 침실로 불려갔다。 그는 손 충국의 바지를 걷어 울리게 한다음 그 푸르축축하고 커다란 수술자리를 자세히 들여다 보았으며 그리고 나서는 또 작으마한 고무함마를 가지고 그 곳을 가볍게 두두려 보았다。

「어떻소、 아프오 안아프오」 하고 위 박사는 가볍게 물었다。

「아니요 안아픕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힘을 들여 두드렸으나 손 충국은 아프지 않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더 세게 때렸으나 여전히 아프지 않다고 잡아뗐다。 그랬드니 위 박사는 성난 사람 모양으로 점점 엄숙한 표정을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때리면 성한 사람의 다리도 아플 것이오、 젊은 친구。 동무는 나에게 거짓 말을 하고 있소」。

그러자 손 충국은 황급하게 대답하였다。

「선생님、 조금 아픈건 사실입니다」

「그래 조금 아프단 말이지?」

「네、 이것은 정말입니다」

위 박사는 그만 웃음이 터지고 말았다。

손 충국은 위 박사 앞에서 한바탕 자전거를 타보이였다。 그랬드니 로 의사 선생은 매우 기뻐하면서 「좋소、 래일 나하고 같이 「체력 검사」 하려 갑시다」하고 말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곧장 원장실로 들어갔다。

· 그 이튿날、 손 충국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체력 검사 위원회에 갔다。 그의 다리는 여기에서도 한참 얻어맞았다。 은테 안경을 쓴 젊은 의사 하나가 그의 카르테에 있는 렌트겐 사진을 세밀하게 들여다 보고는 손 충국의 얼굴을 보면서 깜짝 놀래 묻는 것이였다。

「아니 그래、 조금 아까 그렇게 두드렸는데도 아프지가 않았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서 허둥지둥하며 「네」 하고 말았다。 그랬드니 그 젊은 의사는 머리를 약간 기웃둥하고 나서 검사표에다 무엇이라고 기입하려 하였다。 그러자 손 충국은 그만 당황해서 「동무、 잠간만 기다려 주세요」 하고서는 그 부러졌던 다리의 바지를 걷어올린 다음 여러층되는 대우에 뛰여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며 법석을 댔다。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의사들은 그만 벙벙해졌다。 그 젊은 의사는 손 충국의 손을 붓잡고 흥분해서 말하였다。

「손 충국 동무、 정말 놀랍소。 그만하면 동무는 비행기를 탈 수 있소。 자、 동무는 이제부터 수송기를 타도록 하시오」

「왜요」

「수송기가 동무에겐 알맞소」

「나는 전선에 나가 전투에 참가하겠습니다」

「동무의 다리는 회복되였다고는 하지만 분사식 비행기를 타기에는 적합하지 않소」

「아닙니다。 나는 최전선에서 전투하겠습니다。 내 다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메리씨예브는……」

그 젊은 의사는 그의 눈을 한번 쳐다보고나서 웃으며 말하였다。

「손 충국 동무、 동무는 메리씨예브가 그 때에 탄 비행기가 어떠한 비행기였으며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비행기가 어떠한 비행기인가 하는 데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오。 제二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만 하여도 어떠한 나라나 다 푸로페라 있는 비행기를 탔소。 그러나



지금은 모두 분사식 비행기를、 초음속 비행기를 사용하고 있소。 그 때는 一九四二년이였으며 지금은 一九五二년이오。 십년 전과 십년후는 비교조차 할수 없소!」

손 충국은 무어라고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듣고만 있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를 찬찬이 쳐다보고 있는 위 박사의 시선과 마주치자 불현듯 용기를 얻어 가지고 흥분하여 말하였다。

「의사 동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있고말고요、 메리씨예브는 두다리를 다 고무다리를 해가지고 싸웠는데 오늘날 ……」 ——그는 위 박사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나서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의학이 비상히 발달하여서 세동강이 나다싶이한 제 다리를 제대로 고쳐 놓았습니다。 어쨋던 이것은 진짜 사람의 다리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경우에 있어 곤난은 메리씨예브보다는 퍽 덜할 것입니다!」

손 충국이 부대로 돌아온지도 벌써 십여일이 된다。 그는 자나 깨나 공부를 하여 신식 비행기의 성능을 잘 알게 되였으며 또 매일같이 다시 비행할 꿈만 꾸었다。 그러나 편대 간부들은 그를 한 이틀 더 쉬게 하려고들했다。 그래 그는 대대장이 계획서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 물었다——「대대장 동무、 나는 래일 비행하게 될가요」 대대장은 그의 묻는 말을 듣고 유쾌하다는 듯이 수중의 계획서를 높이 들며 말하였다——「래일 동무는 비행기에 앉게 될 것이오」

「누구의 비행기를 말입니까?」

「동무 자신의 것을。 얼마나 훌륭한 비행기인가 래일 두고 보오」

비행장에는 미풍이 불어 붉은 줄、 흰 줄로 울긋불긋한 풍향이 요동하며 춤추고 있었다。 활주로에는 비행기들이 가즈런히 서 있었다。 그 비행기들은 등에는 초록빛 무늬를 칠했고 뱃쪽은 푸른 빛이였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서있는 비행기 한대만은 아직도 보호색을 칠하지 않아 본래의 은빛 그대로이였다。 손 충국은 어린 아이 모양으로 그 비행기를 향해 뛰여갔다。 정비원들이 명랑하게 그를 맞으며 이 비행기에다가는 어떠한 무늬를 칠했으면 좋겠는가를 물었다。 그는 오직 웃음으로써 대답할 뿐이였다。 그의 두 눈은 잠시도 이 신식 매에게서 떨어지질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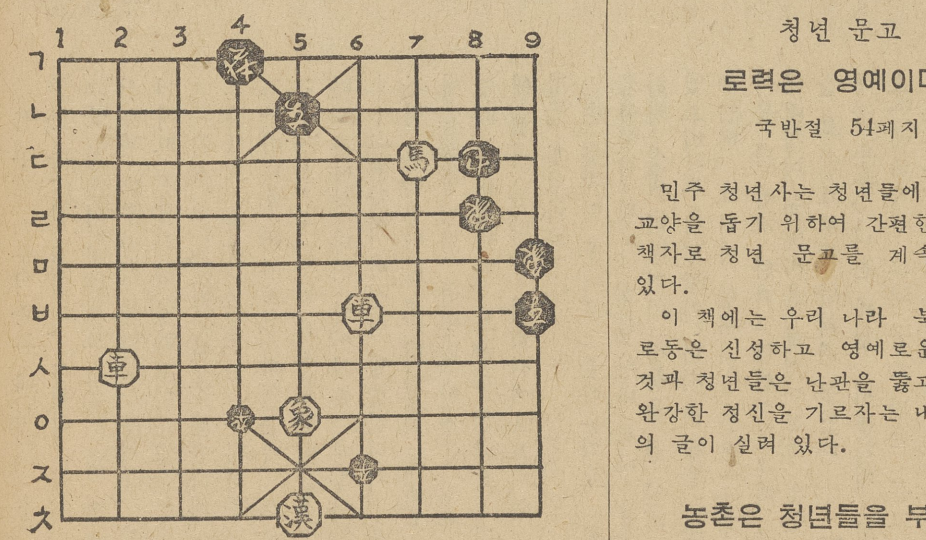
지휘처에서 명령이 내리자 그는 좌석에 뛰여들어가 발동을 건 다음 활주로를 서서히 미끄러져 나갔다。 그가 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낌과 함께 광활한 대지도 수놓은 것같이 아름다운 산과 강도 모두가 다 날개 밑으로 사라졌으며 새벽의 특유한 그 아름다운 구름도 그의 날개 밑으로 사라졌다。 모터소리는 명랑한 노래 소리와도 같이 경쾌하였고 전사의 가슴은 기쁨으로 하여 두군거렸다。 손 충국은 자기의 애기를 몰아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푸른 하늘을 날았다。

一九五五년 六월 二三일부 『중국 청년보』에서

석 화 역

장기 박보 수 풀이

漢이 먼저써서 이김(5수)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기관 지『청년생활』1955년 제 8호
1955년 8월 15일 인 쇄
1955년 8월 20일 발 행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인쇄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ㄱ-30152 21,000부 발행 값 40 원

영국의 위대한 세계적 문호 쎅쓰피어의 유명한 희곡 《로메오와 쥴리엩》를 영화화한

100—

쏘련 발레트 예술 영화

로메오와 쥴리엩



이 영화는 죽음보다도 더 강하고 깨끗한 두 청춘의 사랑에 대하여서와 또 이러한 고결한 사랑은 편견과 악의 및 잔인성을 타승하고야 만다는 것을 이야기하여 준다.

영국의 고도 웨로나에는 서로 원쑤지고 싸우는 두 귀족이 있었다. 이중 한 귀족의 아들 로메오는 원쑤진 귀족의 외딸 쥴리엩을 사랑하게 되여 부모도 모르게 결혼 례식을 올린다. 그러나 로메오는 쥴리엩의 사촌 오빠와 격투하게 되여 그를 죽인다. 이로 인하여 로메오는 거리에서 추방되고 쥴리엩은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빠리쓰 백작과 결혼하게 된다. 쥴리엩은 이 결혼을 모면하기 위하여 수도승이 준 물약을 먹고 깊은 잠이든채 묘지에 운반된다. 이 급보에 접한 로메오는 묘지에 달려가 애인의 시체 앞에서 독약을 먹고 죽는다. 쥴리엩은 긴 잠으로 깨여났으나 로메오는 이미 죽었다. 쥴리엩은 뜻하지 않는 비애에 단도로 자결하고 만다.